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8 호 9월30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8호 (40)

1949년9월30일

내 용

통일 민주 조국 건설을 위하여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 하에서 통일 민주 조국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렬 과감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조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내정 간섭이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미제의 앞잡이 리승만 매국 도당의 최후 발악이 날로 더 심하여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조선 인민은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을 급속히 달성할 과업을 당면한 최대의 민주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해방후 四년동안 북반부에서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 건설의 제 성과들을 더욱 튼튼히 하며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공화국의 강력한 정치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여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더한층 확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되어 있다。

이는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다만 북반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통일 민주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모든 력량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튼튼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모든 지역의 광산、공장、기업소、철도、운수、농촌、어촌등에서는 근로 인민 대중의 광범한 증산과 건설 투쟁이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몇개의 실례를 들어 무산광산 전체 로동자들은 一九四八년도 생산 실적에 비하여 一四四·四%로 추가된 동 광산 금년도 전체 년간 생산 책임량을 자기들의 애국적 증산 투쟁으로써 지난 九월 七일

에 이를 완수하고 계속 추가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청진제철소 제二 해탄로 복구 공사는 五十七개의 탄화실과 해탄로 부설 시설인 세탄공장을 비롯하여 중유유산공장등의 방대한 복구 공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쏘련기술자들의 방조와 전체 로동자들의 창발적 노력으로 써 八월말일까지에 이를 완수하고 九월 一일부터 콕쓰 생산을 개시하였다。

또 북반부 농민들은 금년도 농산물 증산에 있어 례를 들어 맥류를 국가 계획보다 一〇一·九%로 초과 실행하였으며 제一기 작물 현물세를 지난 八월 三十일에 一〇〇%로 완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 민주 조국 건설을 위한 북반부 근로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애의 표현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리승만 매국 도당이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여 야만적 테로와 학살 정책으로 써 무고한 인민들을 무제한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 남반부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애국 인민들의 영용한 무장 투쟁이 시시 각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미제와 소위 「유·엔위원단」을 즉시 철거케 하며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대중적 시위와 파업과 봉화 투쟁이 날이 갈수록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절대 지지 찬동하면서 평화적 조국 통일을 반대하며 동족 상쟁과 내란을 도발하는 리승만 도당을 소탕함이 없이는 통일 민주 조국을 건설할 수 없음을 자기들의 실지 경험으로 써 철저히 인식하고 전 인민적 구국 투쟁에 총궐기한 것이다。

오늘 남반부의 인민유격운동은 남반부 八도 十五부 一백十八군 六백八十二면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인민유격대는 지난 一년간 반동 「군경」과 三천여회에 달하는 대소 전투에서 언제나 「군경」을 소탕하며 적의 무기를 로획하면서 거대한 인민의 무력으로 장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리승만 도당에게 강제로 끌리어가서 놈들의 억압과 기만에 의하여 행동하는 소위 「국

방군」들은 이미 수차에 걸쳐 매국노 리승만의 괴뢰 정권을 반대하여 三八 이북 지역으로 의거 입북하였으며 앞으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에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선언서가 그들에게 철무될 때에 리승만 도당의 동족 상잔과 내란 도발을 반대하고 나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지도자인 김일성 수상께서는 지난 九월 八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四차 회의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 一년에 관한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다 일어나고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 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 도당들은 자기 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선 인민들은 리승만 매국 도당을 인민들로부터 아주 완전히 고립시킴으로 써 이를 깨끗이 소탕하고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한층 파감하게、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증산과 건설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매시기마다 초과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공화국 지방 주권 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화국 정부의 결정과 법령들을 강력 민속히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공화국의 민주기지를 파괴하려는 인민의 원쑤, 파괴분자, 암해분자, 탐정분자들을 고상한 민족적 각성으로 써 적발하며 놈들의 흉책을 제때에 폭로하며 원쑤들에 대한 인민의 경각성과 적개심과 증오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초소에 서 있는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의 임무는 실로 중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와 경비대와 보안대를 더욱 강대한 인민의 무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력량을 집중할 것이며 그들의 가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강력 또 광범

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 三천만 애국 인민은 김일성 수상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통일 방책의 실현을 위하여 공화국 기발을 높이 들고 더욱 과감히 장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단결된 인민의 위력은 거대한 것이다. 단결된 인민의 위력은 인민의 원쑤들을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며 놈들의 지반을 없애버릴 것이며 놈들을 급속한 시일 내에 타도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달성하게 할 것이다.

이미 국제 민주 력량과 튼튼히 련결되었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굳게 뭉쳐 있는 조선 인민은 반동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머지 않은 승리의 날을 위하여 투쟁하며 준비하자!

통일 민주 조국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일층 제고하자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부부장 차 영 락

당 조직 지도사업 방면에 있어서 특히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고상한 사상 정치적 수준에로 제고시키기 위한 모든 당 내부 사업은 당을 량적 질적으로 향상 강화하며 더우기 당원들의 당적 활동과 모범적 역할의 제고를 위한 조직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

매개 당원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옳게 조직 동원하는 개별적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부강한 민주 조국 건설을 쟁취하기 위한 력사적 제 과업들을 수행하는 현계단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창조적 역할과 자원적 열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광범한 비당원 대중들에 대한 당적 활동을 강화하여 애국적 민주 건국 운동에로 총동원케 하는 성과는 오로지 당적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조직하는 성과와 깊이 관련된다.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매개 당원들의 전투 력량을 배양하고 사업 능력을 제고할 데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에서 더욱 더 커졌으며 당 조직사업에 있어서 긴박한 요구로 되었다. 그것은 우리조국 강토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을 하루 속히 철거케하고 리승만 매국도당을 타도 분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투쟁에 있어서나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는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정치적 조직적 지도 력량으로 되는 우리당의 당 대렬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사

업이 매우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창립된지 불과 三년이 되는 청소한 당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조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대중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투쟁한 업적들은 거대하며 오늘에 와서 조선인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의 강유력한 지도적 력량으로 장성 발전되고 있다.

그리하여 조국을 민주화하며 부강 발전을 위한 제과업 수행에 있어서 八十여만의 매개 우리 당원들은 조직자적 역활 및 사상 정치적 지도 임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고 있다.

매개 당원들이 국가적 사업에서나 당적 위임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활동의 기본적 지침은 우리당 강령과 규약에 기초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성이 고상한 수준에로 발전 강화된 것도 매개 당원들이 당 강령 실현을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당 규약을 옳게 준수한 실천적 결과이다.

당 규약상 원칙에서 엄격한 입당 절차에 의하여 당원의 영예를 획득한 당원들은 그 모두가 조국의 민주화와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검열되고 준비된 열성적 분자들이며 우리 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근로대중의 선진적 우수분자들이다.

오늘 우리당 성원중에는 기본적으로 로동자 농민 사무원은 물론 학생들 및 적지 않은 녀성들과 민청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당 대렬에는 사회적 성분과 성별과 년령등이 각이한 성원들로 조직되고 있다.

또 우리당 대렬 내부에는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업을 집행함에 당적 교양과 훈련을 많이 받은 준비된 당원들과 당생활에 경험이 적은 신입당원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와 같은 조건 밑에서 매개 당원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복잡 첨예한 정치 정세 하에서 그들의 열성과 역활을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여 조국과 인민과 당의 리익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것은 매개 구성 성원을 사상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전투적 력량을 강화함이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전당을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사상 정치적 교양 훈련과 강력한 투쟁에 적극적 참가를 준비시키며 투쟁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당과 국가적 요구에 수응하여 발전시키는 것등을 목적하는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의 당적 중요성은 심히 큰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은 수준에서 쟁취하자면 매개 당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준을 부단히 제고 향상할 데 대하여 당기관들이 더 많이 관심을 돌릴 것을 당 중앙위원회는 엄격하게 지사하였다. 즉 우리당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 제二차 전당대회는 당단체들의 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당 상급기관들은 하급 당단체들의 지도사업을 더욱 가강히 할 것이다. 당 상급기관은 하급 당단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결정서와 지시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급 당단체 사업에 참가하며, 하급당 일꾼들과 접촉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상급 당 기관의 일꾼들은 각 하급당단체들의 사업 정형을 직접으로 살펴보며 그 자리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조를 줄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또 제二차 전당대회 이후 하급 당단체들의 九개월간 사업 총화를 총결하는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하급 당단체들의 조직 정치적 사업의 구체적 정형에서 지도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히 분석적 지도사업을 일층 강화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 회의 후 전체 당단체들은 지도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 산 지도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열성과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당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 강화하는 제반 대책들은 매개 당원들의 사업상 력량과 가능성을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아낌없이 배치도록 인도하며 매개 당원들의 처해 있는 구체적 실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사업 력량을 정치적으로 정당히 평가하며 당적 위임과 책임을 분공하며 그들의 당적 활동을 창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 × ×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 회의 이후 각급 당단체의 당 자도사업 부면에 있어서 개별적 자도방식은 당단체의 지도사업 수준을 현저하게 제고시켰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쟁취하였다.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기동성 있게 조직한 결과 매개 당원들의 활동성과 역활의 모범성은 당 사업의 창조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현저하게 제고되는 사실들을 지방 당단체들의 일상적 사업 경험이 현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더우기 당 대렬의 급속한 장성 발전과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급속한 변동의 환경 속에서

자체의 임무를 성과있게 집행하기 위하여서 당내부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당단체는 자체 내부를 강화할 때 대한 일상 사업이 미약하게 진행된 결과로 같은 시간 내에 전당적으로 진행하는 당적 사업을 시간적으로 뒤떨어져 집행하고 있으며 또 기본적으로 이미 완결되어야 할 당 내부 경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들을 볼 수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 조건 위에서 개별적 지도를 강력히 실시한 결과 급속한 시일내에 그와 같은 기본적 결점들을 시정 극복하는 성과를 획득하게 되었다。

당 내부 경리사업이 정돈됨에 따라 전당 통계사업 수립의 보장과 당 장성사업이 정상화되었으며 당 대렬을 내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민주 건설사업에서 자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당단체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을 자체 실행에서 구체화하며 지도사업 방식을 개선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직도 낡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개별적 지도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형식적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례를 들어 일부 당원들이 당생활에 적극성이 미약하며 열성이 부족한 데로부터 당회의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며, 당적 결정을 집행함에 높은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부족하며, 당규률을 위반하는 그릇된 사실들이 당 대렬 내부에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부분적이나마 당 대렬을 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엄중한 사실로 된다。 이와 같이 락후한 사실은 매개 당원들에 대한 사상 정치적 교양과 조직적 훈련 사업을 조직하고 당적 위임 실천을 수시로 검열하며, 결점과 오유를 제때에 적발 시정하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조직하며, 때때로 당생활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와 의사를 청취하여 고상한 정치적 수준에서 평가하여 주며, 개별적 충고와 권유로써 지도사업을 세심하게 조직하는 사업이 미약한 데 기인되는 것이다。

한가지 례로서 일부 당단체들의 신입당원들에 대한 훈련 사업정형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신입 당원들에 대한 훈련사업 방식은 개별적 지도 방식이 가장 강하게 요구된다。 입당 년한이 짧으니만큼 당사업상 경험이 적으며 당적 교양과 훈련이 부족한 관계로 그들의 당성은 일반적으로 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시키는 사업 특히 적지않은 신입 당원들을 훈련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신입 당원들에 대한 훈련 사업은 주로 개별적

지도 방식에 의하여 특별한 교양과 훈련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세포학습회와 세포회의에 참가하는 것으로써만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사업을 대행하는 부분적 결점들이 있다。 그 결과로 신입당원들이 우리당에 입당한 포부와 열성을 계속 발전시킬 데 대한 특별한 방조를 주지 못하며, 그들을 당생활에 깊이 적극적으로 인입하지 못하며, 그들의 사상 정치적 시계를 넓혀주지 못하는 사실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 방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광범한 국가 건설사업의 복잡성과 발전속도에 수응하여 일층 제고되어야 할 당원들의 모범적 역할이 제고됨이 아직도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만약에 국가 건설사업 특히 생산직장내 당원들의 모범적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에 대한 지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二개년 인민경제 一九四九년도 상반기의 계획은 각 부문에 걸쳐 넘쳐 실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원들이 각 생산 부문 내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자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고리로 되는 것은 당적 결정과 지시를 매개 당원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실정에서 자원적이며 창조적 능력으로 집행하는 수준을 향상 강화하는 데 있다。

자체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중심적 과업을 알며, 장점과 결점의 전체와 부분적 현상을 구별하고, 당의 결정과 지시의 기본적 정신에서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사업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개별적 지도사업의 중심적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일부 당단체들이 매개 당원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산만성과 자체 사업의 중심과업과 엄중성을 판정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상부의 결정서와 지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려는 기계적 방식을 완전히 퇴치못한 결과, 당원들의 당적 발전이 조애되는 부분적 사실들을 아직까지 볼 수 있다。

실례로서 당내 경각성 제고와 당 대렬의 순결성을 강화하는 당 조직 강화에 대하여 토의하는 각급 당 단체들의 각종 당회의에서 일부 당단체는 그를 여실히 증명하여 주었다。

특히 총화군당부와 신외주시당부들은 이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조직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다음과 같은 결점들이 당단체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당 중앙 상무위원회는 엄숙히 비판하였다。

총화군당단체와 신외주시당단체는 이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문제의 기본적 정신 하에서 지방실정과 환경에서 자체사업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지

못하였으며 다수 경우에 중심을 떠난 토의와 자체 사업에 대한 비판이 극히 낮은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전개되었다。

총화군당단체는 당로선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민주국가 건설사업에서 인민들과 탈리된 엄중한 일부 사실들을 광범히 토의하고 자체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속에서 당의 위신을 쟁취하며、 인민대중과 산 련락을 강화하며、 당대렬의 공고발전을 위한 당원들의 고상한 투쟁성과 당과 인민들의 원쑤들을 증오하는 적개심을 강화할 것이었다。

또한 신의주시당단체는 지방 정권을 강화하며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의 모범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파괴와 태공의 반동적 시도에 대한 당적 경각성을 강화할 것이었다。 그럼으로써만 생산실적을 높이며 생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 달성을 당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업 집행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사업방식을 퇴치할 것이 엄중히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과업들이 총화군당단체와 신의주시당단체에 제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경우에 있어서 퐁롱적으로 개별적 당원들의 비행들을 들추어 내며 사업발전을 보장하는 결정적 의의가 적은 사소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낮은 수준에서 결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당사업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중심적 방향을 잃고 원대한 전망이 없이 목전에 제기되는 부분적 문제만 처리하는 것으로써 만족하는 사업 방식의 결과이다。

한개 당단체의 사업에 있어서나 매개 당원들의 당적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업의 기본적 부분과 차요한 부분을 구별하여야 되며 사업의 엄중성에 따라 지도적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당내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사업에서 특히 매개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결점과 오유를 제때에 적발 시정하여주고 당 대렬의 질적 강화를 위한 당사업상 필요한 방법으로 된다。

당내 비판과 자기비판은 대상자의 사상 정치적 수준과 사업상 능력을 고려하며 결점과 오유를 범하게 된 객관적 조건 및 자체의 약점들을 세밀히 분석하며 정치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명확한 대책이 명시된 고상한 비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내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태도는 계급적으로 진실하여야 되며 대담하여야 된다。

그러나 일부 당단체들과 당원들이 당내 비판과

자기비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그의 기본적 정신은 정당하다 할찌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그릇된 결과 당원들의 호상간 사상적 통일과 행동상 일치성을 약화시키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지방 당부 지도원이 참가한 당 세포회의에서 평소에 당회의에 열성있게 참가하지 않는다는 리유로써 한 당원에 대하여 전체 회의 참석자의 비판이 몰아치는 방향으로 전개된 사실이 있었다。

당회의는 당생활에 열성이 부족한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교양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비판과 자기비판이 고상한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원들의 당생활 방면에서 존재하는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일상적으로 개별적 충고와 비판을 주며 특별히 교양과 훈련을 조직할 대신 어떠한 기회를 리용하여 덮어놓고 「몰아치는」 방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옳지못한 비판방법이다。

이러한 제반 결점들은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도 대상자의 구체적 정형을 리해하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주관적 의사와 선입관에서 지도한 결과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지도사업에 있어서 특히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제고하고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매개 당원들의 당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어떻게 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본적 과업은 무엇인가?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지도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당원들은 자체 사업에 대한 의의와 방법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되겠다。 개별적 지도사업이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당원들이 정통하여야 되며 일반적 지도사업과 옳게 결부시킬줄 알아야 된다。

수많은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리론 수준과 준비정도와 조직적 훈련정도、 즉 각이한 당성 관계로 발생되는 사업능력과 투쟁력을 옳게 조직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 지도간부들이 개별적 지도에 대한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 지도사업이 낮은 수준에서 의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매개 당원을 지도함에 있어서 매개 당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생활 조건을 알아야 하며 사상 정치적 준비 정도로부터 개별적 소질과 재능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당원이 처해 있는 구체적 환경 속에서 수행할 과업과 집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과 그들의 요구를 타산함으로써 그들을 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의 로선을 집행하는 투쟁에로 강력하게 집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별적 당원에 대한 전반적 리해와 정당한 정치적 평가없이 그들에 대한 조직적 훈련을 줄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당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매개 당원들에 대한 전반적 사실들을 분석하고 정치적으로 옳게 평가한 기초 위에서 지도 방침을 수립하는 방식은 지도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 방식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당원들의 천박한 주관적 견해와 선입관에서 기계적으로 지도하려는 지도방식을 철저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셋째,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고상한 사상 정치적 수준에로 향상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지도하는 당원의 지도사업에 관계되는 원칙적 문제들과 제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는 사업을 위시하여 자체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등 제반 준비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여야 된다.

당 결정과 지시를 깊이 연구하여야 되며 그의 기본 정신과 방법상 문제들을 알아야 되며 실제 지방에서 활동할 데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준비사업을 등한히 하는 결과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급 당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해명하여 주지 못하며, 자체의 역할을 제고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지도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검열사업을 강화하며, 계속적으로 비판하여야 한다. 지도사업은 일상적으로 조직할 것이며 특히 시작된 사업의 진행 행정을 세심히 검열하고 연구하면서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에로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검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비판사업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비판사업은 사업이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같이 앞선 부분에 대하여서도 계속 비판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사업을 제기만 하고 어떤 시기와 기회를 리용하여서만 지도하는 지도방식과 사업에 대한 비판이 없는 지도방식은 사업을 개선시킬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사업은 제기된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계속적 지도사업과 비판 사업을 광범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도사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당부들은 지도원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된다. 지도원들의 지도사업 내용과 방법을 검열함이 없이, 비판함이 없이는 그들의 결점과 부족점을 적발 시정할 수 없으며 자체의 사업수준을 제고시킬 수 없는 것이다.

× × ×

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 강화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당부 지도원들의 당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사업은 중요한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들의 기본적 과업은 당의 결정을 정확히 실행하는 사업을 조직하며 당단체들의 내부적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며 일상적 생활에서 제출되는 제반 문제들을 제때에 해당 당부에 정당하게 반영시키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준비되고 경험있는 당 사업 일군들이 지도원으로 되어야 하며 지도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체의 역활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도원들이 매개 당원들로부터 당적 신망이 두터우며 치밀하며 위신있는 지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결정과 지시가 그들의 실제 생활 내용과 옳게 련결된 지도사업을 수행하여야 되며 책임적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들은 지방 당단체나 당원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구체적 준비사업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준비 사업 없이는 책임있는 산 지도 사업과 당원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도 사업에 있어서의 지도원들의 준비사업은 당의 결정과 지시의 기본적 정신이 무엇이며 집행방법과 수단이 어떠한 것이며 당단체나 매개 당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구체적 실정에서 창발적으로 집행할 데 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매개 당원들을 당적으로 인도하는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지도원들은 첫째로 당적 위임과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적이며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자체사업을 총화하지 못하며, 특히 사업에 대한 자기비판적 태도가 명확치 못하며 깊이 연구하지 않는 태도와 매개 당원들과 그들의 활동과 깊이 련결되지 못하는 결과는 당원들의 당적 발전을 위한 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산 지도를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지도에 있어서

개진은 없으며 사업은 낮은 수준에서 진행된다。그러므로 지도원의 역활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적 위임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과 창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백방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지도원들은 자체의 사상 정치적 교양과 조직 훈련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지도원은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사업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자체의 력량이 없이 지도할 수 없으며, 자체의 역활을 높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자체사업의 정치적 안목을 넓히며, 경험에서 배우며 일상 사업에 능통하며, 능률을 제고하는 자체교양과 훈련사업에 열성적이어야 한다。매개 당원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사업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매개 당원들의 전투 력량을 광화하고 당적 경각성을 제고하여 당대렬에 잠입한 적대분자들과 이색분자들을 적발 숙청하며, 당내 사상상 일치성과 행동상 통일을 쟁취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당단체의 전투적 력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자인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투쟁에로 용감히 나아갈 수 있다。

만기작물 현물세 징수사업 협조에 있어서 우리당단체의 과업

리 구 훈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역활에 의하여 일제의 기반 하에서 조선이 해방된후 북조선에 있어서는 첫 민주개혁으로서 토지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은 토지없던 농민으로부터 모두 토지의 영원한 주인공으로서 자유스럽게 영농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은 급진적으로 발전 향상되고 있다。

토지개혁 이후 공화국 북반부 농업발전은 실로 약진 일로를 걷고 있으며 지금 전체 농민들은 새 二개년 인민경제계획 농업생산부문을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금년도에 있어서 이미 수확한 제一기 작물 맥류생산고는 국가 생산계획량을 一○一·六%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춘잠견은 一一四·二%로 초과 실행되었다。

이와 같이 북반부 농촌경리가 급격히 발전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옳은 시책과 우리당단체들의 헌신적 협조밑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과 공정한 농업현물세제가 실시된데 기인된다。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과거에 자기 수확의 七○%까지의 략탈적인 소작료 납부와 막대한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현재 농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수전에 있어서는 수확의 二七% 밭농사에 있어서는 수확의 一○% 내지 二三%라는 단일한 현물세만을 납부하기로 되었다。동시에 농업현물세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확보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는 다만 토지개혁을 공고히 하며 종전의 무수한 가렴잡세와 강탈적 공출제도로부터 농민들을 해방하여 농업증산의 열의를 북

론아 주며 경제적 여유를 갖게하여 농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시설과 물질 문화생활의 급진적 향상만을 기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농 동맹을 공고화하며 단결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체 농민들은 농업현물세제의 국가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당면한 만기현물세 징수사업에 보다 더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현물세 징수사업은 국토 완정과 민주독립을 위한 장엄한 구국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 실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이 사업을 국가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단체들 앞에 다음과 같은 당면 과업들이 제기된다。

(一) 만기작물 수확고 판정사업에 대하여

농업현물세를 정확히 실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수확고 판정사업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확고 판정사업이 옳게 보장되지 못하면 현물세 징수사업은 그 기본 정신에서 위반될 것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와 인민 앞에 손실을 초래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물세 징수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되는 수확고 판정사업을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매개 부락에서 전체 농민이 참가한 농민 군중대회에서 진정한 자기들의 대표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판정사업을 집행케 하는 직실로 인민적인 제도하에서 실행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판정사업의 중요성을 리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현물세제의 민주주의적 정신과 세납 제도로서의 우월성을 명백히 엿볼 수 있다。

우리는 三개년간 현물세 부과사업에서 많은 고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영예스러운 국가적 의무인 현물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 감에 따라 현물세 판정사업은 정확히 집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년도 조기작물 현물세 징수사업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일부 농촌 당단체들은 현물세 판정사업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과거의 고귀한 경험을 원만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감이 부족하였다。

우리 당단체들은 만기작물 현물세 징수를 위한 판정사업을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로, 수확고 판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정위원회는 리(동) 단위로 조직하되 지역이 넓은 리(동)에는 수개의 판정위원회를 조직케 하여 사업상 지장이 없도록 하며 판정위원은 그 부락 군중회의에서 선거하되 인민정권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그 부락 사정에 정통하며 인민들의 신임이 두텁고 책임성 있는 열성농민으로서 구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조기작물 현물세 징수사업에서 각도에 걸쳐 부분적 지방에서 판정위원회 구성에 결함들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황해도 송화군등 일부지방 판정위원중에 불순분자가 잠입하여 국가와 인민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

우리 농촌 당단체와 당원들은 인민위원회가 판정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돌리며 판정위원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하도록 협조하는 동시에 항상 그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부단히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각성과 실무적 기술에 능숙케 하여 판정위원들의 사업수준을 높이도록 하며, 일체 부정확한 경향에 대하여는 군중 앞에 이를 폭로시키면서 새 위원을 개선할 것이며, 농맹 민청등을 통하여 강력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도록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판정위원회 내의 우리당원들은 헌신적, 모범적으로 사업하여 판정위원들의 사업상 책임성과 정치적 자각성을 제고시킬 데 대하여 극력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판정사업의 기초가 되는 파종면적 재확인 사업을 정확히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실파면적 재확인 사업은 각리(동)에서 一번지로부터 마지막 번지까지 매 필지별로 파종곡종 및 작황등을 정확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만일 면적 확인 사업이 매 필지별로 정확히 나서지 않으면 수확고 판정 사업은 정확히 집행될 수 없다。 더우기 간혼작(間混作) 등 토지 리용률에 대한 실파면적을 정확히 내기 위하여서는 면적 확인 사업이 철저히 실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상수확고 판정사업과 병행하여 매 필지별, 곡종별 실파면적이 확인됨으로써 예상수확고 및 실 수확고 판정사업은 정확한 궤도에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실 수확고 판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는 우선 예상 수확고 판정사업을 정확히 실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상수확고 판정은 파종 면적 재확인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되 개인별 매 필지별 및 종별로 실제작황조사에 대하여 집행할 것이다。 예상 수확고 판정이라고 소홀히 하여 책상 위에서 추상적인 숫자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하는 옳지 못한 경향들을 퇴치하고 반드시 매 필지마다 실제로 답사하여 작황을 구체적으로 조사 판정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넷째로, 실 수확고 판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는 수확하기 전 적당한 시기에 매개 필지중에서 작

황(作況)의 중용처(中庸處)를 택하여 평애(坪세)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평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애처소를 필지중에서 작황의 중용처를 선택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관정할 시기는 가급적 각종 작물의 성숙기를 따라 집행하는 것이 공정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금번 내각결정 九二호는 년 四기에 나누어 정세서를 발부하게 함으로써 각종작물의 수확고 적기 관정과 현물세 부과사업을 제때에 더욱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다. 곡물의 건조들에 대하여도 곡물별 또는 관정시기등 구체적인 질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할 것이다. 과수 관정에 있어 락과 및 파과률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수령 수세 위치등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할 것이다.

一 관정사업은 반드시 대지적(對地的)으로 필지별 곡종별로 성숙기를 따라 실 수확고를 관정하기로 하되 계산 집계를 정확히 하도록 협조할 것이다.

다섯째로, 관정사업에 있어 아직도 주작물에만 치중하고 과실 소채 및 특용작물에 대하여는 관심을 적게 돌리는 경향과 투쟁할 것이다. 과실, 소채, 면화, 마류, 저류등의 생산의 중요성과 국가적 요구는 이러한 작물들이 현물세 징수사업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소채 및 특용작물에 있어서는 관정사업이 용이치 않으므로 관정위원 및 행정기관내 농산부문 당원일군들은 과실 소채 및 특용작물에 대한 관정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돌려 국가에 손실을 초래치 않도록 협조 보장할 것이다.

여섯째로, 관정 및 부과사업을 정확히 보장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현물세 납부에 대한 자각적 열성을 일층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개 농민들의 자기의 예상 수확고 또는 실 수확고를 필지별 곡종별로 정확히 신고케 할 것이다. 개인별 신고제에 있어서는 농민들로하여금 자각적 원칙하에서 또 각리(동)에서 농맹등 농촌 사회단체들을 추동시켜 농민상호간에 대중적 검토하에 애국적 견지에서 자기의 곡종별 실파면적과 예상 수확고 또 실 수확고를 인민위원회에 정확히 신고케 하여 수확고 확인 사업에 방조를 줌으로써 관정사업이 한층 정확히 실천되도록 할 것이다. 관정위원들은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께서 말씀하신바「한알도 더 받지 말며, 덜 받지 말라」는 현물세제의 근본 정신을 높이 받들고 관정사업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관정 사업의 부정확으로 인한 현물세 정수의 불

공정은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와 인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매개 관정위원들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 제三기 작물 수확고 관정사업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관정위원 및 일부 농촌 지도일군들중에 존재하는 옳지못한 경향들을 급속히 퇴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금년에는 한발이 있었다는 선입관념으로 일부 락후한 농민들의 말에 추미하는 경향 및 자만자족과 안일성에서 관정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경향들에 대하여 우리 당단체와 당원들은 무자비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二) 만기작물현물세 납부사업에 대하여

만기작물현물세를 농민들에게 정확히 부과하며 이를 제때에 우량곡으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현물세 부과는 반드시 리(동) 인민위원회에서 확인된 관정위원회의 관정서에 근거하여 부과할 것이며 현물세 량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면 인민위원회의 부과사업 진행정형을 행정기관의 관계 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아직도 면 인민위원회가 관정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예산안을 가지고 책상 위에서 할당식 부과를 하는 옳지 못한 경향들을 일소시키도록 할 것이다. 현물세 징수상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는 출입경작지(出入耕作地)에 대한 통보 사업을 당해 면 리(동) 인민위원회에, 신속히 또는 정확히 실행케 하며 징세서 발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인민위원회 농산 부문 일군들은 출입경작 대조 확인 사업을 제때에 실시하도록 협조 보장할 것이다.

둘째로, 량곡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며 세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기 수확을 실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적기 수확을 보장함으로써 농산물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며 현물세를 우량곡으로 제때에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확물의 탈곡, 조제, 건조등의 제반 사업을 제때에 실시하기 위하여 그 기구와 로력등을 합리적으로 편성 조직하도록 협조할 것이다.

셋째로, 징수장 및 포장용 자재(가마니 새끼등) 준비사업을 충분히 실행할 것이다. 징수장의 개수와 창고의 수리 도량형기의 준비등은 물론이요, 침목 우복등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검수 수속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검수일군들의 책임성과 계획성있는 분공을 실시할 것이다.

포장용 자재에 대하여는 농민들 상호간에 교환 준비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알선케 하며 특히 과실용 상자에 대하여는 량정부문 일군들은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

책을 강구 수립할 것이다. 파거의 경험에 비추어 금년도에는 포장 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물세 징수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포장 자재가 불충분한 관계로 세곡 특히 과실 및 소채 등에 대한 국가적 손실이 없도록 주의를 돌릴 것이다. 이와 함께 현물세곡의 운반 대책을 옳게 조직하도록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우마차 및 자동차 등의 운반 수단을 사전에 준비하여 그 동원 계획을 옳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운반상 지장이 없도록 파괴된 도로 교량 등을 제때에 수리하도록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세곡 납부에 있어서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 등의 일활을 정하여 질서있게 검수케 함으로써 로력의 허비와 검수장의 혼란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보자할 것이다. 또한 징수장 창고에 징수 세곡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근 창고에 즉시 운반할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세울 것이다.

네째로, 현물세 검수사업을 신속히 정확히 집행하여 우수한 세곡을 받도록 주의를 돌릴 것이다. 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원들의 정치 실무적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량정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케 하며 호상 토의 비판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검사사업은 매일 계획적인 정상적 출하 밑에서 진행할 것이며 기한이 박두하여 돌격식 또는 야간검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에 등한시하기 쉽던 과실 소채 특용작물등의 검사를 엄정히 집행하도록 협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곡의 량과 질을 더욱 보장하며 검사 사업을 민활히 또는 질서있게 하기 위하여 출하전 부락 예비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검사장에서 불합격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과실 소채등의 현물세 징수에 류의하여 징수와 배급 운수등의 계획을 사전에 세밀히 세워 징수상 부정확은 물론이요, 변질 부패품이 나지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돌리도록 할 것이다.

요컨대 만가작물현물세 납부사업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단체는 농업 현물세제의 국가적 중요성을 전체 농민들에게 광범히 선전 침투시키며 강력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농업현물세 납부에 대한 자기들의 고상한 국가적 임무를 더욱 깊이 인식케하고 그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자기 수확중에서 가장 우량 곡물을 기한 전에 완납하도록 협조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三) 현물세곡 보관사업에 대하여

현물세 판정사업을 정확히 하여 우량곡으로 제때에 징수함과 함께 현물세곡을 원만하게 보관하게 하는 사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현물세곡을 국가에 손실이 없도록 원만히 보관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세곡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세곡창고를 충분히 수리 개수하여야 할 것이다.

야적세곡에 대하여 침목 및 우복등에 수시로 류의하도록 경각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창고 및 야적 처소에 비화 방수용 도구를 적절히 비치하여 여하한 돌발적 경우에라도 즉시 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각종 세곡창고 및 야적세곡의 경비를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량정부문 일군들을 비롯하여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련계 밑에서 전 인민적으로 세곡창고 및 야적 세곡에 대한 경비에 최대의 경각성을 갖도록 하며 자위대를 강화하여 주야로 경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 당단체는 적극 협조 보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만이 국가량곡에 대한 화재 도난 및 수재 등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요, 동시에 반동분자들의 해독을 제때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 ×

오늘 공화국 북반부 전체 농민들은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를 옳게 파악하고 조국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을 절대 지지하면서 리승만 매국역도들을 소탕할 굳은 결의로써 농업증산에 치렬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파종면적에 있어서 작년에 비하여 九만四천九백정보가 확장되었다.

전체 농민들의 이와 같은 애국적 열성으로 말미암아 「해방후 곤난을 당하던 식량문제는 三년동안의 농촌경리 발전에 따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소되었고 식량조전이 점차적으로 윤족하게 되었으므로 一九四九년초부터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배급 정량을 제고하였으며 시장의 쌀값은 대폭적으로 인하되어 인민들의 생활안정이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이라는 시비는 벌써 근절되었습니다」(김일성수상)

우리당단체는 농민들의 애국적 열의를 한층 더 고무 추동하며 농민들에게 현물세 납부사업에 대한 국가적 의의를 선전 침투시켜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상의 제반 과업들을 헌신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북반부 농민들 앞에 제기된 만기작물 현물세 납부사업은 빛나는 성과를 거둘 것이며 공화국의 식량토대는 한층 더 튼튼히 구축되어 갈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민주조선의 통일과 완전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리 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지향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기치 하에 철석같이 결속된 三천만 인민의 견결한 투쟁은 우리 조국을 분렬 예속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을 당황 망조 속에 휘몰아쳐 몰락을 재촉하면서 승리의 길로 내닫고 있다。

三천만 인민의 절대한 환호 지지 속에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그후 각 도、시、군에서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참가 밑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각 도、시、군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의 대렬을 더 한층 굳게 결속시키면서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대회에서 채택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에 대한 선언서는 조국의 통일과 완전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의사와 리해 관계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공명 정대한 요구로서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그의 실현을 위한 치렬한 구국투쟁에로 더욱 궐기시키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조국 통일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증산 투쟁에 비등된 애국적 열성을 집주(集注)하고 있다。

북반부 각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조국통일을 보장하는 조국 보위사업을 적극 후원할 목적으로 중앙을 비롯하여 각 도、시、군 조국보위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공장、기업소、학교、농촌、가두에 조직된 조국보위후원회 초급 단체들은 조국 보위 후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과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의 제의에 일층 고무되면서 최후 발악하는 반동의 탄압을 박차고 구국투쟁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 강화하면서 있다。

남반부 인민 유격대는 오대산으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六백키로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활개를 펴고 남반부 八도 十五부 一一八군 六八二면에 이르는 광활한 구역에서 반동을 무찌르고 있다。

남반부의 애국 인사、애국 청년 남녀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호소에 고무되면서 대량적으로 유격대에 참가하고 있는바 八월 一일부터 八월 十일까지 十일 간에는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여도 전 남조선에서 三、三八二명이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서울、인천、대구、부산 등 중요 도시 로동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며 지난 七월 二十일 一시간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남반부 각지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대한 각종 삐라 포스타들이 계속 나붙고 있으며 시위운동、군중대회、봉화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듯 전조선의 애국적 력량을 총집결시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국토 완정과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되고 있다。

오늘 조국의 통일과 완전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들의 이와 같은 거족적 구국 투쟁에 겁먹은 리승만 망국 도당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층 로골화된 무차별적 검거 학살을 감행하고 있다。

놈들은 미국 상전에 무기 원조를 애걸 복결하면서 악명 높은 「병역법」을 괴뢰 국회에서 급급 통과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동족 상쟁의 마당에 강제로 내몰려고 애쓰고 있으며 「특경대」 「민보단」을 계속 대량적으로 인민학살의 제一선에 배치하며 테로 학살의 자금으로 년액 六억원의 강제 징수를 책모하고 있다。 한편 소위 「국방군」과 반동 경찰들은 三八선 이북 촌락들에 침입시켜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 랍치하며 민가들에 방화하며 가축들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놈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八·一五 해방 四주년 경축까지 두려워 남반부 전지역에 걸쳐 정식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八·一五를 전후하여 경기도 경찰국 관하에서만도 四七八명의 인사를 불법 체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검약수를 비롯하여 소위 「국회의원」 근 二十명을 체포 송청하는 등 괴뢰 국회내에서까지 검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리승만 도당이 제아무리 갖은 흉책으로 최후 발악하여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여 궐기한 전조선 인민들의 억센 전군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흉악한 민족 분렬과 내란 도발 음모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조선 인민들의 숙망인 조국의 통일과 완전 독립을 급속한 시일 내에 쟁취하기 위하여 남반부에서도 북반부에서 실시한 것과 똑 같은 제반 민주 개혁을 하루 바삐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과업 실현에로 더욱 견결히 매진한다.

× × ×

첫째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우리 조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괴뢰집단 「유·엔위원단」을 우리 강토에서 하루 속히 철거케 하며 리승만 매국 반동 도당을 폭로 분쇄하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한다.

외국 침략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로서 완전 독립이 보장된 나라는 동서고금에 그 례를 볼 수 없다.

조선 인민들은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부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나간 四개년간 불요 불굴의 투쟁을 거듭하여 왔으며 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토지 개혁을 위시한 제반 민주 개혁의 승리적 실시와 그 성과의 확대 공고화를 위한 투쟁, 매개 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의 초과 달성을 위한 투쟁, 인민 정권 강화를 위한 투쟁, 남반부에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환호 지지하는 시위투쟁, 十월 인민 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파업, 시위, 군중대회, 작년 四월 三일 제주도에서 봉화를 올려 오늘 남조선 전지역에 활발히 전개되는 무장 유격 투쟁,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쟁등등 실로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애국적 투쟁으로서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에 대한 견결한 지향과 조선 인민은 능히 자기의 손으로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조선 인민은 충분히 자기 국가를 자기 손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조선에서의 쏘 미 량군의 동시 즉시 철거를 미국 정부에 제의하고 솔선 자기 군대를 三八선 이북 지역에서 완전히 철거시킨지 이미 一년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인민들의 이와 같은 견결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조국이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으로 분렬된채 있는 것은 오직 쏘베트군대의 철거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하여 「유·엔위원단」을 인입하여 자기 군대의 계속

주둔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로골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호 조장만 없었다면 한줌도 못되는 리승만 매국 도당들은 일각이라도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며 미제의 허수아비 집단인 「유·엔위원단」은 일보라도 우리 조국 땅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였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 조국은 통일된지 이미 오랬으리라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은 미 제국주의의 군대를 우리 강토에서 철거케 하며 「유·엔위원단」을 물러 가게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즉시 철거케 하며 소위 「유·엔위원단」을 물러가게 할 것을 자기의 제일 첫과업으로 내세우고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 군대를 철거케 하는 동시에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민족 반동 도당들을 용서없이 처단할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방해하는 자는 조국과 인민의 원쑤이며 자유와 평화의 적이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길에서 장애를 주는 모든 놈들을 능히 소탕할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들의 총력량을 동원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조국의 반역자들을 철저히 반대 소탕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둘째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활동을 협조하며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 개혁을 일층 확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이 조작한 망국적 五·十단선을 뽀이코트하고 작년 八월 二十五일 북반부 전체 유권자의 九九·九七%와 남반부 전체 유권자의 七七·五二%의 참가 밑에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선거하고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 중앙 정부를 수립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각계 각층을 망라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련립 정부로서 조선의 유일한 합법적 최고 집행 기관이며 조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 기관이다.

공화국 정부는 전조선 인민들과 애국적 력량을 더욱 굳게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면서 북반부에서 이미 달성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를 일층 공

고 발전시키고 조국과 인민을 원수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는 강력한 인민 군대를 육성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쏘베트 동맹을 위시한 제 인민 민주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세계 민주 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그의 위신은 날로 제고되고 있다.

공화국 정부와 정부 수상인 김일성 장군의 올바른 령도 밑에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통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며 부강 민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정치 경제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남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에서 달성한 찬란한 민주 개혁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화국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된 민주 력량은 조국통일전선 결성의 기초로 되었으며 인민 정권의 올바른 시책 밑에 북반부 인민들이 쟁취한 위대한 성과들은 오늘 조선 인민들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오늘 조국의 신속한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 운동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거족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를 더욱 튼튼히 하며 그를 발전시켜 강력한 공화국의 정치 경세 토대를 축성하며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공고히 하는 사업은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우리 조국의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 개혁들을 일층 확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조국의 통일 달성과 부강 조국 건설의 튼튼한 담보로 되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며 조선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활동을 협조함에 모든 력량을 경주한다.

셋째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조선에서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전조선적으로 광범한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한다.

미 제국주의 군대는 남조선에 진주하던 그날부터 민주 진영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조선 인민들의 자발적 창의에 의하여 남조선 방방곡곡에 수립되었던 각급 인민 위원회는 직접 미국 무력의 출동 밑에 탄압 해산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민족 반동 도당들을 비호 조장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독립 국가의 급속한 수립을 예견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고의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二차의 쏘 미

공위를 파탄시킴으로써 공화국 남반부를 자기의 식민지로 분렬 예속화할 본래의 침략적 목적을 적라라하게 들어내 놓았다.

총칼로써 망국적 『五·十단선』을 감행하고 리승만 괴뢰 국회와 괴뢰 정부를 조작하여 낸 후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수를 받는 리승만 매국 도당의 발악은 더욱 혹심하여져 가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은 공화국 남반부에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여지없이 유린하고 있다. 一九四六년 五월에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의 폐간을 비롯하여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 수많은 신문들이 폐간당하였다. 이리하여 오늘까지 서울에서만도 十七개의 대 신문과 二개의 통신사가 폐간되었으며 리승만 괴뢰 정부를 조작한 이후에만도 전 남조선에서 五十九개의 신문 잡지가 폐간되었다.

최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을 전후로 하여 二十五명의 신문 기자를 체포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관한 출판물들을 모조리 압수하는등 인민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극도로 유린하고 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과 마찬가지로 남반부 인민들은 집회 결사 시위에 대한 자유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 지지 군중대회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의 수많은 군중대회, 시위운동들이 총칼로써 탄압되고 남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지하로 구축되었다.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에 대한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무조건 체포와 무차별적 테로 학살의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 해방 후 리승만 매국 도당에 의하여 학살된 인원 수는 九만三천여명에 달하며 四十七만八천여명이 검거되고 十五만四천여명이 투옥되었다.

우리는 어 이상 더 남반부 인민들을 암흑과 무권리 속에 남겨둘 수는 없으며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전체 남반부 인민들에게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남조선 감옥에 투옥된 애국자들을 하루 속히 석방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는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조선적으로 광범한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전체 조선 인민에게 공민의 동등권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남조선에서 민주 운동에 대한 탄압과 테로를 반대하여 남조선 감옥 속에 투옥된 애국자들의 석

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들의 초보적 권리조차 유린 말살시키고 민주 세력에 대하여 혹독한 탄압을 가하여 정치적 예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가지의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토지 개혁 실시의 결과 토지의 영원한 주인으로된 북반부 농민들의 비등된 애국적 열성은 경지 면적과 수확고를 년년이 제고시키고 있다。 一九四八년 말에 와서 토지 개혁 전에 비하여 경지 면적은 약 四%, 곡물수확고는 二九%의 장성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식량이 결핍하던 지대로부터 식량의 여유있는 지대로 전변되었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형편은 날로 윤택화하여 가고 있다。 이와 반면에 남반부에 있어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농촌에서 반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전농가 호수의 九·七%밖에 안되는 기생 지주들이 전체 경작 면적의 六二·九%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농가 호수의 九○·三%는 토지 없는 또는 토지 적은 농민으로서 五할 내지 九할이 넘는 소작료와 일제 시대를 릉가하는 강제 공출 제도 밑에 농량까지 략탈당하고 초근 목피로써 연명하고 있다。 이리하여 경지 면적은 종전에 비하여 九十八만五천여 정보나 황무지로 변하였고 수확고는 一九二五년—一九三九년 五년간 평균 수확의 七一%로 감소되었다。

남반부 농민들은 북반부 토지 개혁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요구하며 자기들에게 기근과 파산과 지주에의 예속을 가져온 리승만 매국 역도를 타도하는 농민 봉기를 모처에서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남반부 농민들을 미제와 반동 봉건 지주들의 살인적 착취 밑에 내맡겨 두며 三남의 옥토가 박토로 변하여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반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세기적 숙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인 개인, 법인 및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농촌에서 농민들을 지주의 가혹한 착취 밑에 남겨두고 반동의 토대를 닦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는 중요 산업 기관들은 직접 미 독점 자본가들의 손에 또는 반동적 조선 모리배들에게 넘겨주어 로동계급을 무제한적 착취 대상으로 남겨두고 민족 산업을 극도로 파괴시키고 남조선을 완전히 미 제국주의의 상품 시장과 원료 원천지화시키고 있다。

중요 산업을 국유화한 북반부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에 일제가 파괴 방화 침수시켜 놓고 간 공장 광산들을 복구 확대하고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여 국영 산업 총생산량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에 二六三·三%로, 一九四九년 상반년도에는 一九四八년의 상반년에 비하여 一三四·八%로 증가되고 로동생산성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도에 二三五·八%로, 一九四九년 제二·四분기에는 一九四八년도 평균에 비하여 一二○·五%로 장성 발전되었다。 이리하여 지금 바야흐로 一九四九년도—一九五○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유산인 산업에 있어서의 락후성과 편파성을 극복하고 균형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남반부에 있어서 산업은 날로 피폐되어 소위「한미 경제협정」이 조작된 후 그의 파탄 속도는 더욱 현저하다。 一九四七년 二월 현재로 남조선의 기업체 총수 一만二백九十여개소이던 것이 동년 十二월말에 와서는 九六·七%가 파산되고 그의 三·三%에 불과한 三백四十개소의 기업체가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남조선에서 산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얼마 가지 아니하여 산업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반부의 중요산업을 인민의 손에 튼튼히 장악하고 인민경제의 계획적 운영 밑에 민족 경제의 급속한 부흥 발전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일본 국가, 일본인 개인, 법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산업 및 기타 기업소들의 국유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이와 같이 전체 산업과 농촌경리가 피폐의 절정에 달하고 남반부 인민들이 공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고 빈궁과 기아에 쪼들리며 테로와 학살의 공포 속에 시달리게 된 것은 오직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있지 않고 한줌도 못되는 일부 매국적 반동 지주 자본가들의 손에 정권이 롱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후 四년동안 미군정과 리승만 괴뢰 정권하에서 시달린 남조선 인민들은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지 않고서는 공민의 초보적 권리도 민족경제와 민족문화의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였다。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빨을 높이 들고 인민위원회를 복구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

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조선 반동분자들에 의하여 탄압당한 인민들의 자치 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그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넷째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쏘베트 동맹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와의 친선 관계를 발전 강화시키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국제 협조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오늘 복잡 첨예화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 문제의 해결은 국제 문제의 일환으로서 제기되는 것이며 조선 인민의 승리는 국제 민주 진영의 절대한 성원 밑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결정적 역활로써 우리 민족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나아가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함에 실로 막대한 방조를 주었다。 조 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우리의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 발전에 있어서 위력한 물질적 조건으로 되고 있다。 쏘베트 동맹은 국제 문제에서 조선을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시종 일관하게 주장하여 왔으며 또 계속 주장하고 있다。

만일 쏘베트 동맹의 이와 같은 성의있는 물심량면의 방조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찬란한 민주 건설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며 자주 독립의 로대를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히 하고 우리 조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위대한 쏘베트 동맹과의 공고한 친선은 통일적 조국의 부강 발전을 보장하는 승리의 튼튼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앞으로 조 쏘 인민의 더욱 견고한 친선을 위하여 극력 노력한다。

동시에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부강 민주 발전을 성원하여 주는 민주주의 중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과 기타 자유 애호 국가들과 튼튼한 친선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쏘련을 위수로한 인민 민주 재 국가 및 기타 자유 애호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 강화시키는 문제는 재국주의 반민주 진영과의 강력한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는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를 두목으로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동 지배 층들은 몰락하여 가는 자기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전쟁만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들은 망령

히틀러、뭇소리니、도죠(東條)의「방공 협정」을 답습하면서 각종 반공 반민주 뿔럭을 조작하여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제국주의 도당들은 각국에서 반동 도당들을 비호 조장하며 우익 사회주의자들을 자기의 번견으로 삼아 각종 민주 운동을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 그들은 포츠담 결정을 몰렴치하게 배반하고 서부 독일과 일본에서 팟쇼 히틀러 도당과 일본 군국주의 도당을 옹호 조장하면서 재무장화를 획책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불구 대천의 원수이던 일본 제국주의의 재무장화 책동은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민주 독립 국가 건설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일본을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일본의 비 군국주의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국주의 도당들이 제아무리 새 전쟁을 선동하며 세계 인류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속에 끌어 들이려 하여도 오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며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무한히 강대하여지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선 인민들과 함께 침략적 동맹을 조작하며 새 전쟁 도발 목적을 가진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을 반대하며、평화와 국제적 협동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며、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철퇴시키고 리승만 괴뢰 정부를 타도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승리적으로 쟁취함으로써 전세계 평화옹호운동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 잔재와 온갖 반민주주의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위대한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던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민족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민족 문화는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인민정권의 올바른 지도 밑에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잠입하였던 일본 제국주의의 낡은 사상 잔재를 깨끗이 숙청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다。 결과로 오늘 북반부에서는 문맹자들이 거의 다 퇴치되고 十五개의 대학、五十四개의 기술전문학교、九二二개의 초급중학교、一七五교외 고급중학교들에서 수십만의 근로인민의 자제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一九五〇년도부터는 민족적 숙망이던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문

학 예술은 높은 민주주의적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발전되어 수많은 창작품들이 우리의 민족 문화를 빛내고 있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三十종의 신문과 四十五종의 잡지들이 발간되어 인민들을 민주주의적 애국정신으로 교양하며 조국의 완전독립과 부강 민주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추동하고 있다。

더우기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문화를 가진 쏘베트 동맹과 문화 과학 및 예술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교류와 상호 협조의 관계가 백방으로 강화되게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우리 민족 문화의 급속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문화의 찬란한 장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반면에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의 반동 매국 정책 하에 있는 남반부에서는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는 쇠퇴와 파멸의 절정에 달하고 있다。

산업과 농촌 경리의 파탄과 함께 五백억원을 계상하는 통화 팽창은 필연적으로 전대 미문의 물가 등귀를 초래하였다。 수많은 로동자들은 실직당하고 농민들은 리농하여 三백만명이 넘는 실직자 군중이 방황하고 있다。 이리하여 인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문화 생활이라고는 인민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매국노 자신들의 발표에만 의하여도 오늘 남조선에서는 五六六만명의 문맹자들이 미제와 리승만 매국도당의 고의적 우민 정책에 의하여 하등의 대책 없이 방임되어 있다。 학교의 문은 반동 관료들과 모리배 지주들의 자제들에게만 열리었고 수많은 학령 아동들이 취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소위 괴뢰 국회가 一九四九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인민 학살을 위한 경찰비는 五十一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하면서도 문교비는 겨우 十九억원밖에 예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리승만 매국 도당 팟쇼적 암흑 정책의 일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일제 시대 그대로의 팟쇼적 교육 「리념」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진보적 학생과 교원들은 모조리 축출되고 있다。

진보적 문화 단체 및 문화인들의 활동은 억압 해산되고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미국식 문화만이 일부 반동 유산 계급들의 완롱물로 성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남반부에서의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의 이와 같은 참혹한 파탄성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급속한 시일 내에 통일 독립을 달성하고 파탄되어 가는 남반부의 민족 경제와 민족문화를 부흥 발전시키며 조선 인민들 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며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 잔재와 기타 온갖 반민주주의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조선의 애국적 력량을 더욱 튼튼히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면서 승리의 자신심 드높이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자기의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일로 매진하고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애국적 민주 진영은 반동 진영보다 그 어느때보다도 강대하다。 우리의 인민 군대는 조국 보위의 초소에 튼튼히 서있으며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은 일층 맹렬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해방 후 四개년간의 조국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강철같이 단련되고 결속되었다。

오늘 쏘베트 동맹을 선두로 한 반제국주의 민주 진영의 강대한 장성과 중국 인민 해방군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들에게 승리를 재촉하며 보장하여 준다。

三천만 인민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기치 아래 굳게 결속되어 모든 동원적 조직적 태세를 갖추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일층 긴장하고 동원된 상태에서 리승만 역도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를 매 걸음마다 폭로하며 원쑤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대렬을 일층 강화하여 단결된 인민들의 위력으로써 원쑤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지반을 소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오직 대세는 인민의 힘으로 결정된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일층 굳게 결속하여 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국토 완정 조국 통일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남조선에서의 노예교육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문화정책

김 오 성

제국주의자들이 약소민족을 침략함에 있어서 취하는 정책은 단지 정치, 경제, 군사적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광범한 교육—문화적 수단을 동반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군함과 대포의 앞, 혹은 뒤에는 반드시 상인들과 함께 문화—교육방면을 담당하는 식민지 통치자들이 따라선다.

이 자들은 각종 각양의 간판과 색채로써 타민족의 민족적 자각성과 자주독립성을 거부 말살하며 타민족을 자기들의 정신적 노예로 만드는 데 종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통치하여 오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서 여실히 보았으며, 또한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에 들어온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우리조국 남반부에 들어온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도당을 조정하여 해방 후 오늘까지 四년여를 정치, 경제, 군사, 각방면에서 식민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의 강력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남조선인민을 미제의 노예화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문화 식민지화하려는 각종 반동적 「교육 문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 도당들은 지나간 四년동안 남조선에 있어서 노예화 교육과 식민지, 문화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여 왔는가?

우선 그들이 교육 문화 방면에 있어서 목적하는 바는—

첫째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있어서 인민의 민주주의적 발양과 민족적 자각성 애국심들을 거세 의곡시키는 것이며

둘째로 이러한 민족적 자각성과 민주주의적 발양을 억제, 거세하는 중심 목표로써 무엇보다도 인민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 정책(크게는 세계제패의 책동)을 엄폐, 「합리화」하며 남조선 인민을 「숭미(崇米)」 사상으로 중독시켜 미제의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은 어떠한 술책들을 사용하여 오고 있는가?

첫째로 남조선에 있어서 모든 민주주의적 학원, 언론 출판기관, 문화단체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하며

둘째로 교육 문화정책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 잔재와 식민지적 통치방법 및 그 제도들을 유지 답습하면서 모든 문화 교육기관을 친일파, 모리배, 민족반역자 및 미제국주의자 자신들이 독점하고 교육 문화기관을 모리의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일체 타락적, 퇴폐적, 세기말적, 향락주의적, 각종 독소와 미국의 부패한 짜즈문화 및 소위 미국식 「자유주의」의 환상을 류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셋째로 광범한 인민층 특히 근로인민을 교육 문화 분야에서 격리시키고 인민에 대한 우민(愚民) 정책을 실시하며,

넷째로 사상 리론방면에 있어서 소위 「코스모포리타즘」과 함께 각종 반동 부르죠아사상 리론을 전파하며 동시에 편협한 배타주의적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며

마지막으로 북반부 민주건설과 인민적 민주주의를 비방 악선동하여 히틀러식 반공 반쏘의 악선동에 광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흉악한 방법들로써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은 오늘까지 남조선에 있어서 노예교육과 식민지 문화 정책을 실시하여 왔는바 이제 그 구체적 사실들을 보자.

× × ×

첫째로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 매국 도당은 남조선에 있어서 교육 문화 방면에 대하여 야만적인 탄압을 가하여 왔다.

우선 교육방면에 있어서 미제는 남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학원과 교원 학생들에 대하여 해방 직후로부터 각종 탄압을 가하여 왔다.

一九四五년 十二월에 벌써 청주 제二고등녀학교에서 민주주의적 교원 수명을 퇴직시키고 뒤이어 一九四六년 二월에 청주 제一중학교에서도 三명의 교원을 퇴직시켰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의 노예교

육 정책에 울분을 품고 있던 청주、진천、제천、영동、충주 일대의 남녀 중등 학생들과 교원들이 「일제 교육 잔재 숙청」「학원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 후 「학원의 민주화」를 외치는 인민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미군정은 三월 四일에 경성 법정전문학교의 불법 폐쇄를 단행하고 남조선의 수많은 학원에 대하여 소위 「무허가 학원」의 구실하에 폐쇄령을 내리게 됨에 있어 법정전문학교 불법 폐쇄에 대한 학생 교원들의 항의투쟁이 일어났다。四월 四일、동성상업의 동맹휴학을 비롯하여 四월 한달동안에 서울에서만도 六개의 전문학교、三十여개의 중학교가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웠다。또한 학원에서 진보적, 학생 교원을 몰아낼 목적으로 조작한 소위 「국대안」을 반대하는 투쟁을 一년간이나 계속하다가 四백여명의 교수와 四천여명의 학생이 학원에서 구축당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에 있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노예화 교육정책을 실시한 것이 오늘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군이 상륙 직후부터였다는 것을 반증하여 준다。

남조선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교원 학생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혹심한가 하는 것은 지나간 四년동안의 사실을 일일이 렬거할 것 없이 최근의 몇가지 실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남반부인민의 항쟁이 치렬하여 가고 리승만매국도당의 멸망이 가까와 올수록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은 학원에 대하여서도 혹심한 탄압 학살정책을 감행하여 오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있어서 최근의 실례를 들면 리승만 매국도당은 려수 순천사건이후 一九四八년에 七〇〇여명、금년四월까지 四〇〇여명의 애국적 교원을 소위 「숙청」으로 검거、투옥、축출시켰으며 (五월 七일 「조선중앙일보」) 그 후 다시 一、五〇〇여명의 교원을 축출、투옥、검거하였다。(五월 六일 광주발 「합동통신」)

남조선매국노들이 애국적 교원에 대하여 어떻게 로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라남도의 소위 「학무국장」이라는 자의 다음과 같은 로골적 언사에서도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학교가 모조리 폐쇄되어도 좋으니 一천명 이상의 불순교원을 「숙청」하겠다」。(五월 七일 「조선중앙일보」)

이와 같은 탄압은 애국적 학생들에게도 혹심하게 가해지고 있는바 민주주의적 학생 단체인 민주학련에 가입하였거나 혹은 민애청에 가입한 학생은 모조리、체포 투옥하고 심지어 학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학급대에 악질 반동매국노의 자제들로 현직 경관을 겸임시켜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원의 분위기를 명랑화하기 위하여 학생이 경찰을 겸직하는 것은 폐지시킬 수 없는가?」하는 신문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위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 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三월 二十五일 「서울신문」)

학원에 대한 탄압과 간섭은 단지 경찰이나 행정당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헌병대에서 더욱 가혹하게 하고 있다。

실례로 五월 二十四일 남조선 소위 「륙군본부 정보부 대구지구 방첩대」(S—S) 대장은 신문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현재 본대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사람은 五二五명인데 그 대부분이 학생이다。학생들은 완전한 사상전환을 볼 때까지 교양한 후 석방할 생각이다。학생들은 소영웅적 심리가 있는고로 몇날쯤 수감되었다 나오면 도리어 가장 혁명투사인듯한 자부심을 가짐이 많아짐에 감하여 확실한 사상전환을 할 때까지 수용하겠다。학부형들은 절대 오해말도록 바라며 군에 대한 불온한 언사를 쓰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이다。」(五월 三十一일 「련합신문」)

이상의 사실만 가지고도 오늘 남조선에 있어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매국도당이 학원에 대하여 어떻게 야만적 팟쇼적 탄압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조선에 있어서 언론 출판기관 문학 예술단체등 문화 각방면에 대한 탄압정책도 역시 교육방면에 대한 탄압과 동일하다。그들은 모든 민주주의적 언론 출판기관을 폐쇄하고 문화단체들을 지하로 구축하였다。

남조선에 있어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매국도당의 언론 출판탄압이 얼마나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들출것도 없이 최근 괴뢰 「정부」의 소위 공보처 차장 김형원 자신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다。즉 김형원이가 소위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남조선에 있어서는 리승만괴뢰정부가 조작된 이후 불과 一년도 못되는 동안에만 하여도 五十九개의 신문 잡지들이 폐쇄되었다。

이외에 과학 문학 예술방면에 있어서 모든 애국적 학자、작가、배우、예술인들을 검거 투옥하고 극장과、연구실에서 추방하였으며 남조선에 있던 수백명의 저명한 학자 예술인들이 북반부로 들어온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 × ×

둘째로、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매국도당은 교육 문화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일제 잔재를 유지 답습하고 있는가?

유명한 친일 「황민화 교육가」 어며 한민당원인 유

여겸을 해방직후, 미군정 문교부장으로 등용하고, 남조선의 유일한 최대교육기관인 서울대학 총장겸 법문학부장에 친일파이며 한민당원 백락준, 동예과 부장에 역시 친일파이며 한민당원인 현상윤등을 임명한 사실등이라든가 괴뢰정부의 소위 문교부장관에 꽂쇼 관념철학자이며 친일파인 안호상을 임명하고 있는 사실들은 새삼스러이 부언하지 않는다 하여도 현재 남조선에서 소위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삼국유사(三國遺史)의 문구를 표방하고 진행되는 모든 교육행정 그 자체가 일제식 교육제도를 많은 분야에서 답습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교과서에 있어서 수학 물리 기타 자연과학부문등은,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력사 지리 일반 사회과학 방면의 교과서 역시 일제가 조선청소년들을 노예화하며 「황민화」하기 위하여 만든 일제때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어에 있어서까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여 사용하다가 그만둔 무내용하고,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조선어독본의 내용을 표지만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 「학생사」에서 출판한 「중학 강의록」 제一회 제四호에 수록된 국문 제五과 「전원(田園)의 취미」, 제六과 「공중의 경치」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제총독부편찬 「조선어독본」에 실린 것을 그대로 문구하나 수정 없이 전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해방된 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배워주는 그들의 「국문교육」의 일단인 것이다.

이 외에도 오늘 남조선에 있어서는 유명한 친일파 최남선의 엉터리 없는 관념론적 「조선력사」가 당당한 교과서로 행사하고 있으며 「황민화 교육가」 친일문필가들이 일확 천금을 꿈꾸며 일석 일야에 날조한 각종 교과서들이 범람하고 있는바 그의 거의 전부가 일제들이 편찬한 것을 복사 번역한 것들이다.

교과서가 이러한 위에 소위 교원 교수라는 자들의, 대부분이 일제에게서 배운 「대학노트」나 혹은 일제시대에 「황민화」를 떠들며 가르치던 해방전 교수.안을 일본말 그대로 가지고 나와 술어의 반 이상을 일본말 그대로 쓰며 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는 아직까지 학생들의 일상 회화가, 반 이상 일본말로 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발행하는 잡지 「개벽(開闢)」 一九四八년 五월호에 실린 「언어교육론」이라는 론문에서 엄홍섭이 지적한 바에 의하여도 다음과 같다.

「말한마디 서로 주고 받을 때 보면 조선말 일본말 영어가 한데 섞여 뒤범벅이 되어 나온다. ……적어도 해방후 三년이라면 인제 제법 혼란되

었던 언어생활도 정리되었어야 할 일이다……」(「개벽」 五월호 五八—五九페지)

이것은 오늘 남조선 학생들의 보통 현상이며 유치원 어린애들까지 유희를 하며 놀때는 일본말 그대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수다하다.

이것이 모두 우연한 일이나 혹은 나어린 학생들의 죄가 아니요, 남조선매국도당의 망국적 교육정책과 일제 통치 잔재의 방임, 나아가서는 유지 답습에서 나온 결과들인 것이다.

一九四七년 一월부터 一九四八년 三월까지 소위 공보부에 납본된 만화책은 약 七十종 二十여만부인데 그것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해방민족으로서의 건설적 정신을 교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일제들의 만화를 그냥 복사한 것이다. (一九四八년 三월 三十一일부 「서울신문」)

남조선매국도당들은 일제들의 「국기요배」를 본받아 「태극기」에 절을 시키고 있으며, 왜놈들의 침략적 군사교육제도를 본받아 일제 소위 「배촉장교」를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일제때 그대로의 「군사훈련」을 강요하고 있으며, 소위 「학도 호국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심지어 매국노들은 해방된 오늘 일본에 류학생을 파견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매국노 박렬(朴烈)은 재일 조선동포의 교육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인 교육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과거 일본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여도 열렬한 애국충성을 함양하지 않았던가? 이점으로 보아 자주교육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五월 七일 「련합신문」)

이 박렬의 말 하나로써도 오늘 남조선 매국도당이 어떠한 립장에서 교육정책을 수행하여 나가고 있는 지는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문화분야에 있어서도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 매국노들은 소위 「홍행、취체법」 「국가 보안법」 등 일제의 륙법천서를 복사한 각종、반동법령들을 실시하며, 문화정책에 있어서 일제들의 잔재를 그대로 유지 답습하고 있다.

× × ×

이상과 같이 민주주의적 학원 문화기관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하며 문화 교육분야에 있어서 일제 통치 잔재를 답습하는 동시에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의 모든、교육 문화기관을 독점하고 각종 정신적 독소를 류포하고 있는바 그 실정은 어떠한가?

우선 영화분야에 있어서 실례를 보자. 미제는

소위『적산』이라는 명목 하에 극장과 영화관들을 모조리 친일과 모리배들의 개인소유로 넘겨 주었다。(一九四八년 九월 四일『동아일보』)

이리하여 자기 주구 졸도들에게 극장, 영화관을 장악시킨 미제는 그들을 통하여 헐리우드의 침략적 미국영화를 남조선에 마음대로 범람시키고 있다。

미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중앙영화배급회사는 남조선 전역에서 약 一백의 극장 영화관을 독점하고 남조선의 모든 극장운영의 실권을 좌우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있어서 문화기관을 독점 지배하기 위하여 소위『한미 경제 원조 협정』제九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신문 라디오대표가 미국원조의 접수 및 활용에 관하여 한국을 려행하며, 자유로이 시찰하며, 충분히 보도함을 허락한다』

이와 같은 망국『협정』에 의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언론, 출판, 선전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까지도 미세가 장악 독점한 것이 수다하다。소위 밋숀학교니, 혹은 사립학교나 하여 직접 미국인이 경영하는 학교 이외에도 언더우드등 수많은 미국인들이 남조선 교육계를 지배하며 오늘 남조선의 모든 학교에는 거개가 친일파, 미제의 주구들이 교장으로 되어 노예교육 실시에 광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체 교육 문화기관을 독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것을 단지 모리의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기관을 통하여 남조선에 각종 악독한 독소들을 류포하고 있다。

미체국주의자들이 실어들이는 영화가 전부 향박적, 렵기적, 색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리배에 의하여 운영되는 극단들의 연극, 가극이라는 것이 또한 전부「三十만원의 정조문답」,「돈이 죄냐」,「사랑이 죄냐」등의 퇴폐적인 것들이다。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은 이와 같이 부패 타락하고 경박한 미국식 짜스문화를 범람시키며, 소위「미국식 자유주의」의 간판아래 일체 밥종하고 무질서한 사회현상을 조작함으로써 인민의 건설적 의욕을 마비시키고, 고상한 애국사상과 민족적 자각성을 거세하며,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투쟁적 의식을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 타락한 기풍은 교육방면에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는바 진정으로 향학열에 불타며 애국심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방된 대신 학업보다 향락과 타락에 부쳤는 모리배 친일파등의 자제들만이 학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시하여 오는 교육의 목적을 선명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

셋째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은 그들의 노예 교육정책과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광범한 근로인민층을 교육 문화부면에서 격리시키며 혹독한 우민정책을 실시하는바 그 실정은 어떠한가?

우선 교육분야에 있어서 남조선 근로인민의 자제는 거의 완전히 학교문 가까이 가 보지도 못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망국적 교육정책으로 다수의 학교가 폐쇄되고 극도의 학교부족이 조성된 위에 물가고와 생활난 및 학교에서 강요하는 각종 기부금등으로 웬만한 재산이 있지 않고는 중학은 고사하고 소학교에도 자제를 보내기 힘든 형편이다。

一九四九년 신학년도에 소학교를 졸업할 학생은 三十四만八천여명인데 각종, 중등학교의 입학년 수용능력은 불과 七만명이다。그 위에 학교가 도시에만 집중하여 있고 농촌에는 중학교라고는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지방학생은 도시에 나와 하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근로인민의 자제는 입학시험을 처보겠다는 념도 내지 못하며 설사 입학지원을 한다하여도 五대一이니 十대一이니 하는 입학난관을 돌파함에는 최초부터 능력과 학력보다도 금력과 권력다툼에 이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七월 十七일 련합신문 사설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여도 서울시내 중등학교 입학금은 시당국이 결정한 금액으로도 二만원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五만원이라 한다。입학금 외에도 후원회 입회금, 후국대 입대금, 시설비, 후원회비, 자축비(自祝費), 교재비, 학습비, 용지대 등등을 물고, 교복 교과서대를 지불하려면 최하 十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七월 十三일부 여론신문에 의하면 남조선에 있어서 중학생 한사람 一개월간의 학비는 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내에만 하여도 三、四〇〇여명의 고학생이 있고(六월 二十五일「련합신문」) 고학마저 못하여 퇴학하는 학생이 一九四八년 一년간에 서울시내에서만 五、〇一七명이었다。(三월 十五일「서울신문」) 이것은 실로 입학당시에 비하면 三三%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이다。전라북도에, 있어서도 一九四八년 一년간에 二、〇三〇명의 학생이 학비곤난으로 중퇴했으며(三월 十五일「서울신문」)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一九四八년 一년간에 三一九四명의 학생이 학비곤난으로 중퇴하였는바

이것은 최초 입학생 七, 七一八명에 비하여 약 반수에 해당하는 것이다。(四월 九일「대동신문」)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괴뢰정부의 소위 문교부장관 안호상은「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후원회비가 없으면 학교운영은 불가능하니 기부금 전폐는 불가능하다」(六월 三일「경향신문」)고 말하고 있으며 대전의 어느 국민학교 교장 같은 자는 후원회비를 안낸다 하여 나어린 아동들을 구타하여 학교에 못오게 하고 백주에 수업을 폐지한 후 교원들을 기부금 징수에 출자시키고 있으며 (六월 二十六일「련합신문」) 대구농업에 있어서는 한학급에서 四명내지 五명정도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업료 미납학생을 전부 등교를 거부하여 집으로 돌려 보냈다。(五월 六일「련합신문」)

이와 같이 배워주는 것보다 돈을 달라는 것이 위주인 교육제도의 결과로 서울시내에서는 불과 十一세의 나어린 소녀가 학교기부금 성화에 음독한 사실까지 있었던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며 (六월 一일「련합신문」), 一九四八년 一월부터 三월중순까지 부산 소년심리원에 감금된 소년 범죄자중의 四○%가 학생으로 재학도중 절도를 하고 잡혀온 학생인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一九四八년 三월 十七일「세계일보」)

그러면 대학·전문학교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가?

금년도 신학기 학생모집에 있어서 치과대학은 모집인원 一○○명에 대하여 응모자 十五명, 리화녀대는 六○○명에 대하여 二八五명등으로 많은 전문대학에서 모집인원의 절반도 응모자가 없다。(八월 二十一일「련합신문」)

남조선교육계의 이와 같은 현상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제를 교육에서 절연시키려는 흉악한 의식적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에 있어서만 하여도 교실부족이 七六四개로서 이 신설을 위한 비용은 十五억원이 필요한데 (四월 十五일「조선중앙일보」) 매국도당이 五월 四일 망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一九四九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문교비는 十九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인민학살을 위한 경찰비는 一五一억원이나 된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남조선매국도당의 망국적 교육 문화정책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 매국도당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제를 교육분야에서 제외하려는 사실은 소위 문교부장관 안호상이가「직업을 가진 학생은 학원내에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구실하에, 고학하며 공부하려는 학생을 전부 출학시키기로 언명한 사실과 각종

야간학교들을 폐쇄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근로인민이 각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광범한 인민들의 문화향상을 고의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결과 남조선에는 매국노 자신들의 발표에 의하여도 현재 五六六만의 문맹자가 있으며 정확히 조사하면 근 천만에 달하리라고 한다。(五월 四일「서울신문」)

초보적 문맹 퇴치 사업까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여 있는 남조선에서 일반 근로인민이 一회 一백원내지 二백원씩 하는 연극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농촌에 문화시설을 단 하나라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리승만 매국도당은 이와 같이 하여 남조선 인민을 교육문화에서 유리시키고 자기들의 모든 망국적 책동에 순순히 기만되도록 하려는 극도의 우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교육의「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서도 미제와 매국도당이 진리와 과학을 가르치지 않고 다만 무내용한 일반「상식」이나 이야기꺼리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볼 수 있지만 일찌기 一九四七년에 미군정당국이 발표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다。

「미국학생들은 정치서적보다도 오락에 관한 것, 기타 소설을 즐겨 읽는다。그러나 조선인 학생들은,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다。정치 사회문제는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학생들이 정치 사회문제를 론하는 것은 조선독립에 방해가 될 것이다。이러한 견지에서 미군정에서는 오락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온 것이다」(一九四七년 七월 十六일「합동통신」)

이와 같은 소위「미국식 민주주의 교육방식」즉 노예화 교육방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는 미국에서 각종 허무한 영웅전, 출세술, 바둑, 장기, 스포츠에 관한 서적과 탐정소설, 미국식 생활양식을 례찬하는 서적들을 실어 들이고 있으며 직접 미군정의 손에 의하여「아메리카」라는 월간 잡지를 발행하였고「문화 풍속」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의 독서 의욕을 이러한 오락등에로 돌리게 하여 진정한 계급적 민족적 각성에 싹트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실시되는 우민정책의 표본은 소위 남조선「국군」내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소위 남조선「국군」내에서는 일반 병사들에게 놈들 자신의 신문 잡지조차 한권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라디오를 못듣게 하며 남조선 청년들을 오직 무지한 살인도구로 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국군」내에 있는 병사들은

병사(兵舍)밖에서 전개되는 사실에 대하여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포로된 소위「국군」병사 가운데는 심지어 남조선 매국노들이 조작한「五·十」망국단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자가 있었다.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의 우민정책은 이러하다.

× × ×

넷째로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이 인민의 계급적 의식의 제고와 민족적 자각성의 앙양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상 리론방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동 부르죠아 사상들을 류포하고 있는가를 보자.

남조선 매국도당이 류포하고 있는 반동사상 리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나치스도당들과 같은 허구한「피」의 전설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소위「배달의 후예」니,「단군 성손」이니,「백의민족」이니 하는 문구들을 사용하며 자기들이 가장 애국자인듯이 떠들고 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하는 바는 명백하다. 즉 그들이 이와 같이 국수주의적 내지 신화적 문구들을 떠드는 것은 이러한 허황한 술어들로써 인민들의 애국심을 리용하여 그들의 매국정책에 순종케 하며, 인민이 계급적 의식으로 각성되고 진정한 민족적 자각성에 눈뜨는 것을 거세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학생들의 애국심을 리용하여 소위 다 같은 한민족인 이상「로동과 자본은 협조」하여야 한다고 려설하며「농민과 지주의 호상리익」을 떠들며 사회발전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핵심적 역활을 거부하고 막연한 추상적「인간 평등론」을 떠들어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엄폐하며, 착취계급으로서의 그들의 정책을 엄폐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한동안「덮어놓고 뭉쳐라」를 떠들며 친일파를 옹호하고 나서던 매국노 리승만이가 지난 四월二十일 서울방송국을 통하여 떠든 소위「일민주의(一民主義)」라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흉책에 불과한 것이다.

즉 매국노 리승만은 소위 그의「일민주의」를 떠들면서「一은 문벌을 타파해서 반상(班常)의 구별을 없이 함으로 등급이나 계급을 물론하고 동등의 복리와 동등의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것이며 二는 빈부(貧富)가 동등으로 구별 없이 복리를 누리자는 것이니……자본과 로동이 합작해서 서로 평균적 리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라고 하였다.(四월 二十三일「련합신문」)

이제 새삼스러이 량반 상놈의 구별 타파를 무슨 큰 정책같이 소위「四대정강」의 하나로 내세우는 리승만의 간악한 매국적 흉책은 고사하고 그렇게「로동과 자본의 합작」을 떠드는 리승만이가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남반부 로동자들을 일제시대 이상의 가혹한 착취와 빈궁속에 쓸어 넣고 그 대신 모리배들에게는 수억이라는 재산을 축적케 하고 있는가?

리승만도당은 막연한「민족」이니,「배달의 후예」니,「단군 한배의 성손」이니 하는 신화적 문구를 류포하여 결국 민족을 팔고 광범한 근로대중을 계속 착취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위「민족의 신성」,「피의 신성」등으로써 결국 진정한 애국사상을 의곡하고 역리용하려 하는 한편 남조선 교육 문화방면에는 일제시대나 조금도 다름 없이 각종 반동 부르죠아 리론이 범람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매국도당이 류포하는 각종 반동 부르죠아사상 리론은 결국 인민의 계급적 의식을 거세하며 민족적 자각성을 억제하여 리승만매국도당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려는 한가지 목적에서 나온 매국도당들의 흉악한 매국리론에 불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북반부의 민주건설을 비방악선동하며 인민적 민주주의국가들을 비방하고 새계인류의 선두에서 찬란한 인류사회를 건설하여 나아가고 있는 쏘련을 비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여기에 일일이 렬거하지 않아도 주지하는 바이다.

단지 한가지 지적할 것은 최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과 함께 그들 매국도당은 어느때 보다도 북반부 민주건설을 비방하며 북반부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민주성과를 엄폐 말살하려고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리승만 매국노들이 남반부에서 실시하여온 노예교육과 식민지 문화정책은 간단히 이러하다.

우리는 그들의 이와 같은 책동과 그 책동에 의하여 조성되는 남반부 교육 문화의 이러한 참담한 파괴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제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을 타도 분쇄하고 급속한 시일내에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며 정치 경제분야에 있어서와 같이 교육 문화분야에 있어서도 남반부에 우리 공화국 헌법과 정강을 실천하며 북반부의 민주성과를 확대 발전시키어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괴된 교육문화를 부흥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교육분야에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의무교육 실시 준비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각종 교과서의 완전한 준비와 선진적 교육방법의 연구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며, 우수한

교원의 양성, 교수와 결 향상등을 위한 투쟁을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 예술방면에 있어서는 八·一五해방후 四주년간의 노력에서 얻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며 민족고전을 계승 발전시키며 북반부의 찬란한 민주성과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을 인민속에서 더욱 풍부히 창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상 리론 방면에 있어서는 맑쓰-레닌주의적 서진 사상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반동들이 류포하는 소위 「코스모폴리티즘」을 비롯하여 편협한 「민족주의」등 일체 반인민적 반동 부르죠아 사상 리론의 표현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여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목전에 조국통일을 앞두고 우리 전체 당원은 정치 경제방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문화방면에 있어서도 우리 북반부에서 쟁취한 성과만이 우리 조국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우리당원의 주동적, 핵심적 역활에 의하여 쟁취한 북반부 민주건설의 제 성과를 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레닌과 과학

그·프·알렉싼드로브

一、프로레타리아트의 천재적 수령이며 사상가이며 학자인 레닌의 심원한 사상성, 전투적 당성

우라지밀·일리츠·레닌은 사회 생활과 과학의 매개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한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레닌은 자기의 위대한 전우 이·브·쓰딸린과 더부러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의 당을 창건할 데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위업을 계속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활동의 결과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당, 즉 계급적 전투에서 단련되고, 철석같이 통일되고, 성숙되고, 먼 앞을 내다볼줄 아는 새 형태의 당이 창건되었다。 이 당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데로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을 인도하여 로씨야에서 부르죠아제도를 분쇄하였다。 이 당의 지도 하에 로씨야에서는 사회주의가 건설되어 쏘베트동맹의 제 인민은 공산주의의 문앞에 들어섰다。

레닌과 쓰딸린은 독자적인 계급 의식적 혁명적 로동운동을 조직할 데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레닌과 쓰딸린과 또한 이들이 창건한, 위대한 볼쉐위끼당의 활동의 결과 세계 로동운동과 우선 로씨야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혁명운동은 조직성과 정치적 자각성의 새로운 계단에 올라섰으며 로동계급은 오늘날까지 보지 못한 큰 력량을 획득하였다。 객관적인 력사 행정과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혁명적 투쟁으로 말미암아 로쇠한 자본주의는 파멸의 지경에 달하였고 지구의 六분의 一에서는 완전히 타도 분쇄되고 말았다。

레닌과 쓰딸린은 로동계급을 부르죠아지에 대한 승리에로 인도하고 새 제도의 위대한 창조자로서, 또는 혁명의 류례없는 천재로서 로동계급의 새

국가, 즉 쏘베트 국가를 길러 냈으며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계급투쟁의 세계적 정치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사회 지식의 분야는 우리 수령들의 천재에 의하여 하나 하나씩 혁명적으로 개조되어 새로운 계단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운동에 복무하게 되었다。 철학, 경제리론, 력사과학에서, 법과, 국가,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도덕과 사회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현상 사실들이 일반화되어 새로운 합법칙성들이 발견되었으며 사회과학의 매개 분야는 보다 더 완전한 새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매개의 지식 부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의 위대한 수령이며 새 세계의 천재적 창조자이다。 레닌은 부르죠아지에 대한 로동계급의 승리에 새 사회제도인 공산주의의 창건에 효과적으로 소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을 실지적인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레닌이 과학의 여하한 부문을 고찰하였던 간에 과학에 대한 그의 태도는 바로 이상과 같은 규범(規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인류는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였고 과학의 모든 전취물은 새로이 평가되어야 하였으며 긍정적이며 가치있는 모든 것은 혁명적 계급에 소용이 되어야 하였고 이 축적될 지식들 가운데는 본질적이 아닌 것이 수다히 있었으며 실 생활에 소용 없게 되고 새로운 선진적 과학건설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레닌은 인류 지식의 모든 축적물을 재 검토하는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비판사업을 수행하고 결정물(結晶物)을 만들어 내었으며 세계 프로레타리아 운동을 그 앞에 나선 제 과업에 대한 명확한 리해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의 성공적 수행의 제 법칙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시키고서 모든 과학의 자료들을 새로운 시야에서 일반화하였다。

十九세기에 맑쓰와 엥겔쓰는 새로운——프로레타리아적——세계관을 창설하고서 또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기본 명제들을 전복, 분쇄하고서 과학에서 일대 전변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레닌은 맑쓰가 창설한 혁명적 과학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당신은 공산주의의 리론, 즉 주로 맑쓰에 의하여 창설된 공산주의 과학이, 다시 말하면 이 맑쓰주의 학설이 어째서 十九세기의 천재적 사회주의자 단 한사람만의 저작으로 되지 않았으며 이 학설이 어째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이 학설을 적용한 전세계의 수백만 또는 수천만의 프로레타리아들의 학설로 되었는가 함을 읽고 들었다。 그리하여 만약

당신이 어째서 맑쓰의 학설은 가장 혁명적인 계급의 수백만 또는 수천만의 심장을 장악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맑쓰가 인류사회의 발전 법칙들을 연구하고서 자본주의 시대에 전취된 인류의 지식의 확고한 기초에 립각하였기 때문에 생기였다는 한가지 답변만을 당신은 얻게 될 것이다。맑쓰는 공산주의로 하여가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피성을 리해하였으며 그리고 주요한 것은 그는 이것을 오직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하며 가장 세밀하며 가장 심각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가지고 또 종전의 과학이 준 모든 것을 완전히 섭취하여 가지고 증명하였다。그는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하나도 등한시하지 않고 개작하였다。그는 인류 사상이 창건한 모든 것을 로동운동에서 검열하고서 개작 비판하였고 부르죠아적 범위에 국한되었거나 혹은 부르죠아적 편견들로 구속된 사람들이 지울 수 없었던 그러한 결론들을 내리었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五권 三八七페지)

레닌은 모든 방향에 걸쳐 사회 과학에서의 혁명적 전변을 계속 심오화하였다。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제 과업과 선진적 과학과의 력사적 련결을 가일층 론증하고서 레닌은 심원한 맑쓰주의적 사상성、전투적인 볼쉐위끼적 당성에 관한 문제를 프로레타리아 당의 활동、과학과 문화의 발달을 지도 조직하는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혁명적 투쟁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토대에 관한 문제로써 제기하고 규명하였다。

맑쓰도 레닌도 피압박 계급의 투쟁을 방조할 것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제기하지 않으며 계급투쟁의 진정한 구호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과학을 진정한 과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과학의 직접 임무는 레닌이 맑쓰의 유명한 명제들을 발전시키면서 투차 말한 바와 같이 투쟁의 진정한 구호를 주는것 즉 생산관계의 일정한 체계의 산물로서 계급투쟁을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계급투쟁의 필연성 그 내용 행정 및 발전 조건들을 리해할 수 있는 것인 것이다。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은 매 순간의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임무들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항상 투쟁의 일반적 성격、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일반적 목적、즉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온갖 착취와 온갖 압박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근절하는」 일반적 목적에서 출발한다。(레닌전집 제四판 제一권 三〇九페지)

레닌은 인민 대중들을 계몽시키며 그들을 자본의 압박 착취로부터 해방시키는 위대한 무기로

되어 있는 진정한 혁명적 과학을 속인(俗人)들의 론의(論議)로 애매하게 바꾸려고 시도한 그러한 인민대중의 거짓—벗들을 무자비하게 조소하였다。벌써 一八九四년에 이와 같은 어용학자들을 공격하고서 레닌은 대중들을 우매화하며 계급들의 적대적 모순을 엄폐하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에게 필요한 혁명적 과학을 엄연히 대립시키었다。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자기의 독자적 투쟁을 기다릴 것을 프로레타리아들에게 호소한 로동자들의 원쑤들이 혁명적 과학을 공격하였을 때에 레닌은 격노하여 속인적「과학」을 조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즉「새푼의 가치도 없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 버리는 보잘것 없는 사회민주주의적 소책자도 과학이란 사실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과학이 피착취자들에게 자기의 해방을 위한 독자적 투쟁을 가르치는 한에 있어서만 또는 계급들의 적대적 모순을 호도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말고자 하는 모든「인민의 벗들」과 떨어질 것을 가르치는 한에 있어서만 과학을 존중히 하며 따라서 그렇게도 속물들에게 충동을 주는 렴가판(廉價版)에서 이 과학을 서술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당(當)치 않게 자기를 파신하고 있는가가 명백한 것이다。만일 로동자들이 자기의 운명을「인민의 벗들」에게 위탁하며 그들이 로동자들에게 참된 수만권의 책으로 된 대학식(大學式)의 속물적 학문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된 사회조직을 상세하게 소개한다면 또 만일……로동자들이 기다리는 데 동의하고 이러한 당치 않은 자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스스로 시작하지 않기만 한다면 퍽 좋을 것이다」(레닌전집 제一권 제一분책 로동당출판사판 二四一페지)

레닌은 과학이 그 결론들에 있어서 철저하면 철저할쑤록 과학이 제 사실과 총체와 또한 사회 발전의 경향들에서 또는 계급들의 투쟁에서 나오는 자기의 리론적 총화를 대담하게 하면 할쑤록 과학은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리익과 즉 공산주의의 리익과 보다 더 많이 일치하게 된다는 맑쓰주의의 원칙을 백방으로 론증하였으며 또 이것을 항상 적용하였다。력사적 발전 행정에 대한 옳은 리해는 다시 말하면 잠재(潛在)력에 대한 지식、사회발전의 제 법칙에 대한 지식은 (이것의 표현과 발현은 제 사건의 표면에 나타나는 제 사실이다) 항상 레닌적 분석의 특색을 인식시키었다。

레닌의 연설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고리끼는 쓰기를「그의 말은 항상 론박할 수 없는 진실의 감촉(感觸)을 일으키게 하였다」(므·고리끼「브·

이•레닌」一九三二년판 二九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레닌적 진실, 즉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정확하고 가장 철저한 지식, 이러한 지식에 기초한 대담하고 과학적인 혁명적 결론들—이것은 제 력사행정, 제 사실 및 사건들의 감각없는 촬영(撮影)이 아니며, 제 사건의 기술은 아니다。 레닌적 진실, 이것은 유물론적 견해의 철저한 실천이다。 레닌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어떠한 행정의 필연성에 대한 지시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사회 경제적 기구가 이 행정에 내용을 주며 어떠한 계급이 이 필연성을 규정하는가 함을 설명한다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물론자는 여하한 객관주의자보다 더욱 철저하게, 더욱 심각하게, 또 더욱 완전하게 자기의 객관주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제 세력의 력사적 상태와 선진계급의 제 과업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의 립장에 공공연하게 서며, 그의 리익을 열렬히 옹호하며, 그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것은 또한 과학에서 유물론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며 또 정객(政客), 학자, 시민의, 전투적 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유물론은 말하자면 제 사건에 대한 온갖 평가에 있어서 직접 그리고 공공연하게 일정한 사회적 그루빠의 견해에 서게 하는 당성을 자체내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레닌전집 제一권 三八〇—三八一페지)

오직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만이 사회적 제 사건의 합법칙적 발전에 대한 가장 옳은 지식을 주며 불가피적으로 승리할 그러한 력사적 행정의 기본 경향을 명시하며 백방으로 그 승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레닌은 이렇게 썼던 것이다。 즉 「맑쓰의 리론의 길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객관적 진리에 더욱 더 접근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객관적 진리가 파악되고 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온갖 다른 길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착란(錯亂)과 허위 이외에 다른 데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레닌전집 제一四권 一三〇페지) 그러므로 현재 부르죠아 사상가들과 그들의 거짓 사회주의적 충복들이 과학에 있어서의 소위 객관주의를 주장하며 사회 생활을 연구함에 있어 계급과 당의 리해로부터 리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언행(言行)이란 것은 허위와 기만을 부식하며, 혁명가들을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며, 혁명가들을 무력하게 만들며,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그들의 정열과 열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왜냐 하면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어느 한 산 사람도 어느 계급의 편에서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가 그들의 호상 관계를 리해한 이상) 그 계급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계급의 불성공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계급을 적대시하는 자들과 이 계급의 발전을 락후한 견해들의, 보급으로서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이기……」때문이다。(레닌전집 제二권 三三五—三三六페지)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과학이 초 계급적인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죠아적 객관주의라는 것은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허위와 기만인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적 이데올로기에 관해서나 혹은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중간이란 것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문제는 오직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이냐 혹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이냐 이렇게 제기된다。 중간이란 것은 여기에 없다。(왜냐 하면 인류는 어떠한「제三의」이데올로기도 만들어 내지 않았으며 또 대체로 계급적 재 모순으로 분렬된 사회에 있어서는 계급 외(外) 혹은 초 계급적 이데올로기란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온갖 비방, 그것에 대한 온갖 거부는 이것으로서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레닌전집 제五권 四九八—四九九페지)라고 레닌은 썼던 것이다。

레닌은 이 사상을 항상 강조하면서 임금노예의 사회에는 공평(公平)한 과학이 없다는 유명한 맑쓰주의 자상을 고수 발전시키었다。 공평한 과학을 기대한다는 것은「자본의 리윤을 적게 하고서 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는 안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장주들의 공평」(레닌전집 제一九권 三페지)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부르죠아 대변가들이 객관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로동자들을 자기의 영향하에 종속시키려고 애쓰는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리익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생산수단, 정치적 권력, 출판물, 문학—대중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이 모든 기본적인 가능성이 대 금융가들과 산업가들과 로지소유자들의 수중에 있고 또 이것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 억압, 정신적 타락의 수단으로 전환되어 있는 부르죠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의 당적—계급적 립장을 마치 전체 사회의 리익을 목적하고 있다는 객관적 초(超)당파적 립장으로 가장한다는 것은, 지배계급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객관주의를 옹호 론증하면서 또는 과학의 당성, 온갖 이데올로기의 당성의 원칙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부르죠아 고수들은

레닌의 말대로「자본가 계급의 앞잡이 학자로서……」(레닌전집 제一四권 三二八페지) 행동하는 것이다。

레닌은 이데올로기에서 철학에서 당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것이 사회 자연 및 인류사상의 발전연구에 대한 유물론적 태도를 완강히 실현 옹호함을 의미하며 각종 각색의 온갖 관념론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치었다。 맑쓰주의적 견해들의 철저한 실천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의식(自意識)을 낳게 한다。 왜냐 하면 맑쓰주의적 유물론만이 모든 사회현상들의 근원을 밝히기 때문이다。 만약 로동자들이 구체적인 그리고 더우기 확실히 정확한 정치적 제 사실과 사건들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회계급들 중에서 매 계급의 생활을 그 모든 표현에서 관찰할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또는 계급 층 및 집단들의 생활과 활동의 각방면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과 유물론적 평가를 실지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로동자 대중들의 의식은 결정으로 계급적인 의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레닌은 지적하였다。(레닌전집 제五권 三八三페지를 참조하라)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이 계급적인 깨우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대중들로 하여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의의를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리해케 하는 것을 방해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레닌이 한것처럼 무자비하게 폭로 배격되어야 한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당의 당원이 열정한 설교의 특별한 오유와 해독을 확신하게 될 때에는 그는 이것을 반대해서 나설 책임을 진다고 혁명가들에게 가르치었다。—

맑쓰는 물론, 레닌은 과학에 있어서 또는 로동계급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자가의 투쟁에 있어서 끝까지 원칙적이었다。 맑쓰와 엥겔쓰에 있어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그들의 원칙적인 무자비한 투쟁은 항상 레닌을 감탄시키었다。 一八七七년의 서문을 가진 엥겔쓰의 로작「주택문제에 대하여」를 一九一七년 一월에 재차 읽으면서 레닌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즉「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더욱더 맑쓰와 엥겔쓰에「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여하한 비방도 태연하게 참을 수는 없다。 이들에야말로 진정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지반(地盤)에서 우리는 떠나서는 아니된다」(「볼쉐위끄」지 一九四九년 제二호 五二페지)

이렇듯 심원한 사상성, 가장 **철저하게 실시된 전투적 당성, 유물론의 옹호와 론증, 혁명적 계급의 리익에 대한 용맹하고 열렬한 그리고 력사 발전 법칙의 깊은 지식에 기초한 옹호, 그의 승리의 백방의 촉진, 공산주의 사업에 대한 헌신적 복무— 이러한 것이 가장 위대한 혁명가이며, 천재적 사상가이며, 학자로서의 레닌의 뛰어난 특성인 것**이다。

二、 과학과 생활의 결합,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의 실현은 선진적 과학의 주요과업

맑쓰주의를 로동운동의 중대한 제 과업으로부터 유리된 추상적 사변(思辨)으로 전화시키려고 서도한 사람들을 레닌이 폭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게는 누구도 폭로 공격하지 못하였다。 과학에 대한 레닌적 태도의 특수성은 그가 맑쓰주의적 과학을 더욱 연구하면서 로동운동의 긴급한 혁명적 제 과업으로부터, 사회주의 승리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로부터 항상 출발하였다는 점에도 있었다。 레닌의 로작은 어느 것이나 모두 혁명적 투쟁과 과학발전의 일상적 문제 즉 실생활이 제기하였으며 또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투쟁을 강화하며 가일층 제고하는 관점에서 또한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할 의무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전투적 대답이었다。

레닌은 맑쓰처럼, 쓰딸린은 레닌처럼 공산주의를 위한 금일과 명일의 투쟁의 가장 긴요한 문제들과의 직접적 련결속에서 맑쓰주의 과학과 철학리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로씨야 로동운동의 려명기(黎明期)에 벌써 로씨야의 장래 발전 방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씨야의 발전은 어떠한 길을 향하여 어떠한 방향에서 앞으로 갈 것인가? 이것과 관련하여 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의 혁명적 투쟁의 과업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전투적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이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 여하에 혁명투쟁의 미래, 쏘베트 조국의 장래가 달리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레닌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론증되고 명확한 혁명적인 대답을 주기 위하여 참으로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레닌은 그 유명한 저작「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술하였다。 레닌의 이 가장 중요한, 과학적 로작은 인민파에 대한 사상적 분쇄를 완성한 것이었다。 맑쓰주의적 사회과학은 이 로작의 결과에 새로운 총결·결론, 사실들로 풍부하 되었다。 프로레타리아

로의 당은 자기의 정책을 더욱 심각하게 과학적으로 론증하게 되였다。

로씨야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 교양, 정치적 조직성의 제고에 대한 볼쉐위끼당의 활동이 더욱 광범히 전개될수록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은 증대되고 그의 의식은 성숙 장성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죠아 이데올로기 영향하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며 당의 전체력량, 선진적이며 자각적인 모든 로동자들을 전투적 유물론의 기치하에 결속시키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였다。 이 과업을 해결함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 부르죠아 철학 이데올로기와 또한 사회민주당 대렬내에 잠입한 그의 충복들을 분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혁명적 과업이였으며 이 과업의 해결 여하에 당 력량의 가일층의 장성과 또한 따라서 전체 혁명운동의 성공도 달려 있었다。 맑쓰—레닌주의당 정책의 리론적 기초를 가일층 강구할 데 대한 절박한 요구가 생기였던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거대한 로작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력사 발전 행정에 의하여 로동운동 앞에 맑쓰주의적 이데올로기 앞에 제기된 새로운 과업들은 위대한 솜씨를 가지고 해결하였다。 레닌은 그 위대한 저서「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을 저술하였으며 쓰딸린동지는 로작「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를 썼다。 볼쉐위끼당 수령들의 이 로력의 결과에 맑쓰주의의 철학과학은 전체로 새로운 계단에 올라섰으며 엥겔쓰의 서거후 축적된 정치적 발전, 계급투쟁, 과학적 발전등의 모든 자료들은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맑쓰주의의 철학은 가일층 론증되었고 발전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이 이러한 로력을 수행한 것은 맑쓰주의 철학의 위대한 대 승리를 의미한 것이었으며 맑쓰주의의 창조적 발전에 있어서 혁혁한 새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은 앞으로의 전(全) 력사적 시대에 있어서의 자기의 정책을 더욱 더 천재적으로 리론적으로 론증하게 되었다。

一九一四—一九一八년의 세계 제국주의 전쟁은 교전국들에서의 모든 사회적 계급적 모순들을 비상히 첨예화하였다。 제국주의 전쟁의 원인들에 관한, 제국주의 시대의 부르죠아 국가들의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합법칙성에 관한, 계급투쟁의 전망에 관한, 로동운동의 력사적 당면 과업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이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현실이 제기한 새 문제들에 대답을 주기 위하여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 발전의 새 계단, 즉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제 법칙을 가장 면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연구하였다。 레닌은 이 문제에 대한 세계의 모든 경제방면의 문헌들을 구라파의 주되는 각국어로 통독(通讀)하고 각국 정부의 공시, 보고, 잡지, 및 신문지상의 자료들을 연구하였다。 이 대 사업의 총화는 레닌의 천재적 저작「자본주의의 최고계단인 제국주의」에서 서술되였다。 이 시기에 쓰딸린동지는 민족적 관계를 검토하고 이 문제에 관련되는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유명한 저서「맑쓰주의와 민족문제」는 이 사업의 완결이였던 것이다。

볼쉐위끼당 수령들이 이 로력의 결과에 맑쓰주의 과학은 제국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회 발전법칙의 발견으로 또한 새로운 총결과 결론들로 풍부히 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위한 금후 투쟁의 방도에 관한 문제에 가장 철저한 과학적인 대답을 주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은 전체 볼쉐위끼들을 격동시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었으며 자기의 전투 능력을 보다 더 높이었다。

세계 력사상의 새로운 기원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으로부터 사작되었다。 로동계급의 독재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로 향하여 가는 제 인민의 운동의 로정은 아직 력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였다。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법칙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소유하면서 공산주의에로 전진하기 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그와 같이 믿을 수 없을 만치 곤난하고 리론적으로 복잡하고 알려지지 않은 문제의 해결 앞에 맑쓰주의 과학이 서게 된 때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새로운 쏘베트국가를 창전하면서 또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새 생활 건설의 경험 수백만 인민 대중들의 경험을 주시하며, 새 행정과 현상들을 주목하며, 그것을 일반화하며, 새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 발전의 로정과 계단들을 지적하며, 사회 발전의 새 방법과 동력을 발전하며, 위대한 계획들을 실현하는 기간을 결정하면서 방대한 리론적 사업을 수행하였다。

볼쉐위끼당 수령들의 이 거대한 로력의 결과에 맑쓰주의는 자기 발전에 있어서 일대 전진을 보았다。 즉 쏘베트사회의 리론이, 수립되고 공산주의의 건설과 승리의 제 법칙에 관한 과학이 확립되였던 것이다。 볼쉐위끼당은 지금 명확한 목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론증되고 수백만 인민대중들의 투쟁 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 계획을 가졌다。

맑쓰주의 발전의 이 위대한 경험은, 맑쓰주의의 리론

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실현은, 새 문제 해결에 창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항상 맑쓰주의 과학을 앞으로 발전 전진시킬 줄 아는 것, 오직 우리의 수령들이, 규명한 모든 리론적 문제들은 새 사회주의 생활 건설 부문에 있어서의 수백만 인민대중들의 생활과의, 혁명운동의 발견과의, 계급투쟁의 실천과의, 창발성의 일반화와의, 산 깊은 련결에 의하여서 만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확신있게 말하여 주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과학 발전에 있어서의 레닌의 위대한 역할을 가장 철저하게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즉 「과학은 그 발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장애물일찌언정 모든것을 박차고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아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과학자로서는 깔리레이와 다윈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나는 그러한 과학의 대가의 한사람이며 동시에 현세의 위대한 인간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나는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를 키워준 사람인 레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一九一七년을 회고(回顧)하여 보십시오。로씨야의 사회발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토대 위에서, 또한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토대 위에서 레닌은 그 당시 이러한 정세로부터의 유일한 출로는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이것은 그 당시의 많은 과학인들로서는 너무도 상상외의 결론이였던 것입니다。,탁월한 과학인의 한 사람인 쁠레하노브는 그 당시에 레닌이 「환각(幻覺)」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레닌을 멸시하여 말하였습니다。이보다 못하지 않게 다른 유명한 과학인들도 「레닌이 밤광하였다」고 하여 그를 어떠한 먼곳에 가두어버려야 하겠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그 당시에 가지 각색의 과학인들은 모두가 레닌은 과학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를 반대하여 짖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리나 레닌은 그러한 조류를 반대하여 그러한 침체적 군세(軍勢)를 반대하여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레닌은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낡아빠진 과학을 반대하여 대담하게 싸우며 새 과학의 길을 개척하여 주는 과학인의 모범을 볼 것입니다」(레닌저작선집 제一권 제一분책 로동당출판사판 九一—九二페지)

레닌은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있어서의 맑쓰주의적 사회과학과 선진적 자연과학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규명하였다。이 점에 있어 레닌는 우리조국의 근로자들이 이제까지 력사상에서 보지 못한 새 세계 건설에 착수하였다는 그

러한 가장 중요한 원칙에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조건하에서 문제를 제멋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확실히 사회주의 혁명의 제반 성과와 장래를 파멸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였다。사회주의는 그 건설방도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리론적 론증이 없이는 또한 그、승리의 법칙들을 발견함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으며 또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동시에 레닌은 사회주의에 관한 맑쓰주의 과학의 자료들이 가장 광범하게 인민대중들의 살과 피속에 들어 가야만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레닌은 「우리의 과학이 죽은 글자로 혹은 류행문구(이러한 것은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특히 항상 있는 일이지만)로 되어있지 않기 위하여 과학이 실제로 살과 피속에 들어가며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생활의 구성요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배우며 또 그 후에는 그것을 검열할 것」(레닌전집 제三판 제二七권 四〇七페지)을 항상 호소하였다。

레닌는 인간의 리성、그의 천재가 모두 이전에는 기술과 문화의 모든 재부를 소수를 위하여서만 창조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것、즉 교육과 발전을 박탈하였다는 사실을 루차 강조하였다。또 레닌은 쏘베트국가의 조건하에서는 탁월한 모든 기술、문화의 모든 전취물들이 전 인민적 재산으로 되며 인간의 리성과 천재가 착취의 수단으로 결코 되자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그리하여 이 가장 위대한 과업을 위하여 과연 일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힘을 바칠 필요가 없단 말인가?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 거대한 력사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그들속에 혁명 부흥 및 개조의 잠자고 있는 위대한 력량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二권 二二五페지) 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맑쓰에 대해서나 레닌에 대해서나 과학은 당이 결정한 목적에로 력사의 운동을 추진시키는 혁명적 력량이였다。레닌은 온갖 진정으로 과학적인 발견을 환희로써 환영하였으며 또 그 발견의 리용과 발전의 장차의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하였던 것이다。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레닌이 연구한 것은 사회발전을 혁명화하였으며 쏘베트공화국의 립장을 강화하였던 그런 발견들이었다。레닌은 위대한 쏘베트 애국자이다。그는 부르죠아적 서방(西方)에 대한 아첨의 온갖 출현을 공격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영광을 높인 쏘베트 학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주었으며 쏘베트 학자들을 더욱 새로운 발견과 발명에로 고무시키었다。

레닌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주시하면서 그 제반 성과를 가지고 가장 철저하고 가장 혁명적인 결론을 내리었다。「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레닌이 엥겔쓰 서거 후의 자연과학 발전의 총화를 천재적으로 분석하였고 또 자연에 관한 과학의 발전 전망을 분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지막 시기에 있어 레닌의 자연과학 발전에 대한 주의는 부단히 커지었다。 쏘베트 국가를 지도하면서 레닌은 과학 발전에서 나타난 모든 새로운 현상들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상 발명과 개선을 리용할 데 대하여 즉시에 결론을 내리었다。 레닌은 유물론을 론증하는 데 있어서 빠블로브의 연구 사업의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지적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또 찌미랴제브와 미추린과 같은 과학계에서의 혁명가들을 백방으로 지지하였으며 수십명의 학자、기사、건축가、농학자들을 몸소 알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활동을 고무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어느곳에서든지 레닌은 과학상 제 발견이 쏘베트 공화국의 장래 발전에 대해서、인민에 대해서、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를 명확하게、고찰하였다。 레닌의 지시、또는 그에 의한 쏘베트 시대에 있어서의 과학의 제과업의 연구는 전체 쏘베트 과학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추린 사업의 탁월한 계승자인 한림학자 뜨·리쎈코 동지가 령도하는 쏘베트 생물학자들이 생물학에 있어서의 관념론을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매이스만주의를 분쇄하며 생물학을 쏘베트 인민에게 봉사케 하였을 때 그들은 레닌의 유언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였던 것이다。 아주 귀중한 과학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위대한 학자로서의 또는 새로운 선진적 쏘베트 과학의 스승이며 조직자로서의 레닌의 활동을 밝히어주는 레닌의 문헌들은 보존되었다。

레닌은 「공산주의는 쏘베트 정권 프라스(+) 전국 전기화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고서 인민경제의 전기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六권 四六페지)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최초의 과학적인 전기화 계획 즉 고엘로(전로(全露) 전화 위원회)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레닌은 당의 강령이 현대 기술의 수준에 까지 인민 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사업의 계획으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전기화 계획 없이는 우리는 실제적 건설에로 이행할 수 없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六권 四五페지)고 레닌은 제八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 말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로씨야를 공산주의에 필요한 진정한 경제적 기지에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과업을 제기하였다。「매개의 공장、매개의 발전소가 교육의 근원지로 전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로씨야가 발전소와 강대한 기술상 설비의 조밀한 망(網)으로 덮인다면、우리의 공산주의적 경제 건설은 장차의 사회주의적 구라파와 아세아에 대해서 모범으로 될 것이다。」(동서 四八페지)

선진적 기술과 과학의 발달을 목적한 모든 실제 사업을 고무 지지하면서 또는 과학을 평가、하는 것을 배울 것을 호소하면서 레닌은 동시에 온갖 작가적 및 관료주의적 번쇄철학 또는 「실제 사업에 대한 관리(官吏)의 살인」(동서 一七二페지)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였다。

一九二一년 四월 八일에 레닌은 체신 인민위원부 부원의 한사람으로부터 니제고로드 라디오 실험실의 사업에서 달성된 주목할만한 새 성과를 전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 안에서 레닌은 「강광(强光) 람프와 합치면 어떤 거리에서 (二〇一三〇메터) 라디오 「부정(不定)」 에네르기의 방출(放出)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새로운 변광저항 변경기(變光抵抗變更器)의 제조에 주의를 돌리었다。 이 기구(器具)가 완성되는 때에는 발신자의 말에 의한다면 一、무선전화를 할때에 말하는 사람의 동작이 영사막(映寫幕)에 보여는 것、二、수백리(里)의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적함대가 영사막에 비치는 것과 같은 성과들이 달성될 수 있었다는 점이 특히 레닌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쏘베트 기술 발전의 수년 앞을 내다보면서 레닌은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쏘베트 기사들을 백방으로 방조하였다。 레닌은 그 당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다。「더 완전하게 만들 것을 도와주시오。 그리고 완수하는 날에는 나에게 말하시오」(레닌전집 제二〇권 三一七페지) 레닌은 니제고로드 쏘베트 기관에게 수통의 전보를 쳤으며 또 현(縣) 식량부에 「라디오실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식량공급에 지장없도록 부탁함」이라고 써 보냈으며 「사업이 시급하며 중대하다」(레닌전집 제三五권 三八페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라디오 실험소가 필요한 건설 자재들을 받도록 추진시킬 것을 니제고로드 인민경제위원회에게 부탁하였다。 이 발견이 장래에 얼마나 큰 역할을 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레닌의 예언이 참으로 놀랄만한 정확성을 가지고 명중하였다 함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一九四九년 一월 二十一일 「프라우다」지에 발표된 이 문제에 대한 레닌의 새로운 문헌은 거대한 과학적 리론적 흥미를 주는 것이다。

레닌은 과학에 대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또

는 공산주의의 수령으로서의 태도를 취하였다. 당시의 인민경제최고위원회가 일련의 과학상 및 기술상 발견들을 무시하였을 때에 레닌은 분노를 금치 못해 다음과 같이 썼던 것이다. 「인민경제 최고위원회 과학 기술부는 아주 잠들어버린 것 같다. 이 과학 기술부를 깨치게 하거나 혹은 이 전달군 학자들을 추방할 데 대한 사업을 옳게 추진시키며 또 누가 우리들에게 구라파와 미국의 기술을 명확하게 제때에 관청식으로가 아니라 실지로 소개할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쓰크바는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최신의 기계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를 모두 한대씩 가져야 한다.」

「기계의 압력만으로 촌길을 근대식 대도(大道)로 전변시키는 그러한 기계」로 도로를 전석한다는 보도에 레닌은 큰 의의를 부여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었다!」(레닌 전집 제八권 三八—三九페지)라고 말하였다.

새 기술을 쏘베트 공업에 받아들이는 것을 백방으로 추진시키면서 또는 사회주의 승리에 필요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레닌은 과학적 제 발견을 리용함에 있어서의 또한 기술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온갖 지연을 「최고의 추태와 파렴치」라고 칭하였다. 어느 경우에는 그는 새 기술의 실시, 특히 새 타빈을 써치하는 것을 지연시킨 사람들을 발견해 가지고 엄벌에 처할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였다.

> 이렇듯 천재적 학자로서의 레닌의 가장 뛰어난 특성의 하나는 맑쓰주의 리론과 실생활과의 철저한 그리고 그에 의하여 꾸준히 실시된 혁명적 통일이며, 과학상 제문제의 해결에 대한 창조적 혁신적 혁명적 태도이며, 모든 지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발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방조이며, 매개의 과학상 발견에 대한 심각한 평가이며, 이 발견의 장래 기술상 및 과학상 의의의 인식이며, 과학상 제반 달성의 즉시의 리용이며, 이것을 사회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쏘베트 공화국의 공고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三、프로레타리아트는 사회발전의 제 법칙을 인식하며 자기투쟁에 있어서 이 법칙들에 의하여 지도된다

지적한 바와 같이 맑쓰—레닌주의자들은 자기 학설의 성격 자체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자기 앞에 제기하는 제 과업에 의하여 맹목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자연 발생적인 사회 발전의 뒤를

따라다닐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력사 행정의 적극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표시자들인 것이다. 바로 이것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은 레닌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학 철학을 파악하는 것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제반 지식이 아니며 단순히 제 사실 보도 자료들의 총화가 아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사회 생활의 발전 법칙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 법칙들을 알고 이 지식을 기초로 하여 혁명 투쟁을 조직함으로써만이 그가 력사의 모든 급전(急轉)과 곡절(曲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제기된 목적을 항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며 계급 투쟁의 모든 폭풍우와 뢰명(雷鳴)을 뚫고 자기의 혁명적 기치를 사수하여 결국 승리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부르죠아 과학에 있어서는 력사 행정의 제 법칙에 대한 지식이 배제되는가는 리해하기 쉬운 일이다. 부르죠아지의 대변인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사회 발전의 력사적 기본 행로를 밝히는 사회 법칙들을 리해하는 것을 항상 거부하여 왔다. 전체 부르죠아 사회 과학이 력사상 제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부인하려고 시도하면서 력사상에서의 소위 「막다른 골목」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랠일이 아니다. 례하면 현대의 반동적 부르죠아 철학과 사회학의 대가(大家)의 한사람, 즉 자기의 론문 「나는 믿는다」에서 「아마도 막다른 골목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 순간 이전에 원래(原來)의 목적에 도달할 것이며 또 그것은 어디로나 이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리성(理性)의 적용을 지속하고 있는 자들은 파멸에로의 달음질을 고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성명한 영국 귀족 럿살이 체험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공포는 재미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 사회학은 력사 발전의 결정적 지향과 전망을 거부할 것을 다시말하면 「막다른 골목」에로 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럿살은 력사의 달음질이 부르죠아지의 리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달음질의 속도를 격려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달음질은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서 럿살은 력사의 달음질이 누구의 파멸, 어느 계급, 어느 사회 제도의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만은 말하지 않는다. 맑쓰—레닌주의는 부르죠아 대변인들이 그렇게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력사의 제 법칙에 대한 부르죠아적 부인

을 전면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비판하고 부르죠아 사회학자들이「막다른 골목」에로 도피하는 계급적 및 인식론적 근원을 폭로하였으며 제 법칙이 과학으로부터 추방되고 있는 곳에서는 불가피적으로 신비설과 신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과학으로부터의 제 법칙의 추방은 실지에 있어서 종교의 법칙들을 끌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레닌전집 /제二〇권 一八二폐지) 라고 레닌은 썼던 것이다.

사회과학을 반대하는 부르죠아 사상가들의 횡포한 투쟁, 그리고 사회 현상의 합법칙적 성격을 부인하면서 과학을 파탄시키려는 그들의 최후 발악적 시도들은 미래 인류에 대한 그들의 가장 애매한「예언」들과 합류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죠아 철학가의 어떤 자들은 인간 감정의 허위성에 관하여「연구」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자들은 한때 부르죠아 철학가들에 의하여 권위를 차지하였던「리성의 힘」을 페기하고 있으며 또 어떤 자들은「무서운 심판」의 급속한 도래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어떤 자들은 세계가 불원간 혼란 속에 침몰할 것이며, 인류는 절망 속에 침몰할 것이라고 독자들을 설복하고 있으며, 또 어떤 자는 우주의「멸열(滅熱)」로 인한「세계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자들은 제三차 세계 전쟁을 원자탄에 의한 우리 유성(遊星)의 황폐를「인류멸망」의 도래라고「예견」한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르죠아지의 대변인들이 그리고 있고 캄캄한 전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합치게 하는 공통점인 것이다. 즉 이 공통점은 현하의 부르죠아 제도의 위기에 기인하는 숙명성, 암흑성(暗黑性), 무출구성(無出口性)의 동기(動機)인 것이다.

염세관(厭世觀), 숙명, 절망의 경향과 사상들의 우세는 현대 부르죠아 철학에 있어서 어떠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현상은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결정적 특징의 하나인 것이다. 부르죠아 이데올로기가 부르죠아 사회 자체의 운명, 그 멸망이 준엄하게 가까이 오고 있는 착취계급들의 운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가장「류행하고 있는」반동적 부르죠아 철학사조들에서는 사회 또는 인간에 대한 인식의 캄캄한 전망에 관해서 운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다. 불란서 관념론자 살틀은「유물론과 혁명」이라는 자기의 최근의 론문 중의 하나에서 인간을 모두「비법적이며 우연한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발견」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통속론(通俗

論)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며 팟쇼적인 독일 철학가 야스펠스이다. 이 야스펠스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발 밑에 있는「지반이 무너지고 있는」그러한 시대를 걷고 있다는듯이 말하고 있다.「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형세는 최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지금은 목전에 특유한 무력감(無力感)이 존재하고 있다」「세계의 현실을 뛰어 넘어가지 말 것이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는 절망을 부식하며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믿게 하는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체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통속론은 마치 인간은「무(無)」의 허공(虛空)에서만이」자유로 될 수 있으며「자기의 대상체(對象体)」속에 근거없이 체재하는 것이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되어야 하며「어떠한 결과에도 이르게 하지 않는」지향이 그의 활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설교하고 있다. 인간은 미래를 인식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시도는 미리 벌써 파멸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부르죠아 철학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사상」들은 이상과 같다.

레닌의 표현에 의한다면 부르죠아 사회학자들어 온갖 과학적 연구를 포기한 리유는 (레닌전집 제二〇권 一八六폐지를 보라) 그들이 력사상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며 또한 따라서 사회과학을 반대 공격하는 리면에는 계급적 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레닌은 이 모든 가련한 술책과 가련한 작난들은 하나의 목적 즉 과학적 사회주의가 명백 정확하게 제기한 문제들을 회피하고 사회주의는「불가능하다」는 고함소리로 자기의 독자와 청강자들을 당황케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동서 一八五폐지를 보라) 레닌은 현대 류행의 부르죠아적 회의론(懷疑論) 즉 부르죠아·사회학자들의 죽은, 또는 죽어가는 스코라 철학의 계급적 의미를 그들이 현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는 데서, 그들이 과학을 거부하는 데서, 그들이 온갖 일반화를 멸시하며 온갖 과학으로부터 피하여「산림을 나무라고 속이려고……」시도하는 데서 보았다(동서·一七九폐지)

「자연과학 부문에서 자연계의 현상들에 대한 재 법칙어 환상이라고 말하는 자는 정신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혹은 다만 조소를 받을 것이다. 경재 과학 부문에서 그렇게도 대담하게……철면피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진해서 교수로 엄명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실지로 부르죠아 자식들을 멍텅구리로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동서 一八一폐지) 라고 레닌은 썼다.

다음으로 과학을 반대하는 또는 사회의 합법칙성의 인식 가능을 반대하는 부르죠아 사회학의 최신의 공격의 계급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레닌은 부르죠아 사회에 있어서의 부르죠아 교수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상과 같은 것이라고 교시하였으며 또 「자본의 리익을 위하여 과학을 파는 그런 자만이 사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가장 광포한 허언과 가장 비량심적인 황당 무계한 언사들을 말할 것에 동의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그러한 자리에 등용되는 것이다. 부르죠아지는 교수들이 사회주의를 「박멸한데 종사만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용할 것이다」(동서 一二九페지)라고 교시하였다.

더구나 례외없이 모든 부르죠아 사회학적 문헌들이 오늘날 맑쓰주의를 반대하며 레닌주의를 반대하여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고서 마치 사회에는 여하한 진보도 존재하지 않으며 「진보의 법칙」에 대한 레닌주의자들의 신념은 「헤겔의 세계륜리학의 적용」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놀랠 일이 아니다. (휠립프 스프라트 「맑쓰주의와 륜리학」)

실지에 있어 어떻게 인류 사회가 발전하였으며 또 발전하고 있으며 어떠한 힘이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동계급의 당만이 맑쓰주의로 지도되면서 사회 발전의 근본을 대담하게 간파하고 력사 행정의 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로 위대한 레닌은 제사건의 현재 변동에 의하여 지도될 것이 아니라 국제 로동운동의 전체 경험에 의하여 그의 합법칙적 발전에 의하여 지도될 것을 당에 가르친다. 실로 레닌은 과학에 있어서는 개별적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적 현상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력사적 과정의 행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례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수 사건들이 아니라, 자료들의 총체를 그 합법칙적 련결 속에서 취하여야 한다는 천재적 사상은 실로 레닌에 속하는 것이다. 맑쓰의 변증법은 과학적 혁명적 방법의 최신의 원리이며, 레닌의 말과 같이 대상을, 고립시켜 즉 일면적으로 또는 곡해해서 고찰하는 것을 금한다. 레닌이 맑쓰주의 리론의 이러한 가장 곤난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연구한 것은 맑쓰주의에 대한, 세계 로동운동에 대한 그의 전세계사적 공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듯 레닌의 위대한 공헌은 과학의 혁명적 과업을 전면적으로 론증한 것이며 다양 다종의 모든 현상을 통하여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발전

법칙들을 발견하는 편으로 과학의 발전을 돌린 그것이며, 「력사의 막다른 골목」에로 피해가며, 사실을 날조하며, 제 법칙을 과학으로부터 추방하는 부르죠아 「과학」의 계급적 성격과 인식론적 원천을 폭로한 그것이다.

四、레닌주의는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위대한 레닌은 맑쓰주의 리론의 제반 성과를 지적하면서 미래는 더욱 큰 개선(凱旋)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지금 그러한 때는 도래하였다. 쏘베트 인민들은 새로운 력사적 시대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을 실현하는 시대에서 三十여년을 살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국가는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쏘베트 인민들은 이 시련에서 승리하였고 레닌주의의 기치 하에서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면에 걸쳐 수행하였다.

제八차 당대회에서 레닌은 어데서나 어느 다른 나라에서나 쏘베트공화국에 있어서와 같이 그렇게 근로하는 인민들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다고 가르치었다. 「이점에 대하여 쏘베트동맹에서는 어느 다른 나라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 과연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이 공산주의적 혁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레닌선집 제三판 제二六권 一四九페지)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그리하여 볼쉐위끼당과 그의 수령 레닌과 쓰딸린은 그렇게도 인민 대중들을 격동시킨 문제들, 즉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건설의 방도, 수단, 력사적 기간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과학적으로 론증된 대답을 주었다.

사회주의는 벌써 레닌과 쓰딸린이 자기들의 로작에 교시한 바와 같이 자본가들 없는 로동을 예산하며 근로자들의 선진적 부분이 실행하는 가장 엄격한 계산, 감독, 및 관리의 조건 하에서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차의 사회적 유익 로동을 예상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국가는 이 사회 공민들의 로동의 분량과 그에게 주는 보수의 분량을 정한다. 바로 사회주의 시대에 사회는 로동의 소매(小賣)를 극복하며 수세기에 걸쳐 조성된 사회, 경제에 대한 그 불신임을 근절하며 소규모적 경영자의 구습을 청산한다. 이러한 잔재를 극복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수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전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왜나 하면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잔재들은 「실지로 공산주의적 경제를 방해」(동서 六五一페지)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건설은 자본주의에 비해서 높은 로동생산성의 찬건 현대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강력한 그리고 자본주의의 포위로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공업 발달、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 수 있는 그의 능력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사회주의는 농촌에서의 위대한 혁명의 실현、즉 협동조합 제도 꼴호즈 경제의 승리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르죠아 계급—토호들을 청산하는 것도 또한 의미한다。

쏘베트국가의 천재적 창건자 브•이•레닌의 서거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레닌의 진정한 벗이며 전우인 쓰딸린 동지가 지도하는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의 제인민을 레닌주의의 가장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고 갔다。사회주의는 건설되었다。국내의 원쑤들은 분쇄 박멸되었다。레닌—쓰딸린의 사상은 실현되었다。쏘베트동맹은 사회주의 국가로 되었다。

쓰딸린동지는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집단화에 대한 체계있는 리론을 창설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로서의 중공업과 농촌에서의 협동 조합제도에 관한 레닌의 교시를 백방으로 연구 발전시키었다。당은 레닌—쓰딸린적 계획의 실현에로 인민을 동원하였다。쏘베트동맹 제인민의 긴장된 로력의 결과에 쏘베트동맹은 강대한 공업 국가로 /꼴호즈 강국으로 되었다。

사회생활의 위대한 개변자이며 당과 인민의 천재적 수령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과학의 창설자인 레닌은 그가 예시(豫示)한 사회주의 시대까지는 생존하지 못하였다。그러나 그후 쓰딸린동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사회는 레닌주의의 승리적 거치 하에 앞으로 전진하며 레닌과、쓰딸린이 교시한 그 방향에서 또 그 길로 향하여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레닌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맑쓰주의 과학을 가장 철저하게 연구 발전시키었다。오늘날 볼쉐위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맑쓰주의자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수령인 레닌은 사회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선 이후부터의 력사 과정의 총로선을 예견하였던 것이다。이 점에 있어 레닌는 맑쓰주의 과학이 정확하게 설정한 명제、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이며 사회주의제도에 있어서나 공산주의제도에 있어서나 사회관계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다른 점은 사회발전의 수준 그、성숙의 정도에 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다。이로부터 또한 레닌의 천재적인 결론 즉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공고히 될 조건 하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시작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레닌은 쓰기를 공산주의는 「사회의 보다 높은 형태이며 그것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공고히 될 그대에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레닌전집 제二三권 六五一페지)라고 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 생활의 건설 부문에서의 대중들의 창조적 경험을 신중히 연구하고 로동자와 농민들의 매개의 공산주의적 발기(發起)를 주시하며 맑쓰주의적으로 그것을 평가하였으며 열렬히 지지하였다。레닌은 공산주의적 토요일 시간 외 로동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것은 「거대한 가치」를 가지고、있다。왜냐 하면 「이것이 실지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동 행복을 위한 미래의 로동의 표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나라를 통치할 데 대한 자기의 혁명적 임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 또는 쏘베트 기관에 들어간 선진적 로동자들의 창발성을 백방으로 지지하였다。레닌은 로씨야 전기화 계획의 작성을 주시하였으며 선진 기술의 즉시의 적용과 또한 공업에 있어서의 로동의 높은 조직이 전기화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레닌은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위대한 미래를 최초의 농촌 협동조합、알쩰리 및 꼼무나들에서 보았다。레닌은 대중들이 실생활을 자료로 하여 또한 새로운 제도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투쟁하였다。지금 「가장 광범한 층들은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손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기초는 이미 건설되었다는 것、그리고 국내의 어떠한 힘도 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레닌선집 제三판 제二三권 二五二페지)라고 레닌은 썼다。

볼쉐위끼당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서 변함없이 레닌적 사상으로 지도되어 왔다。볼쉐위끼당의 위대한 수령이며 레닌의 사업과 학설의 가장 위대한 계승자인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 사회에 대한 리론 맑쓰—레닌주의 과학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레닌적 사상을 백방으로 발전시키었다。사회주의의 건설의 완성、쏘베트 인민들이 실현하는 공산주의에로의 점

차적 이행등은 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레닌—쓰딸린의 학설은 쏘련의 전체 발전에 의하여 빛나게 전면적으로 확증된 학설로서 모든 나라의 로동계급이 철저히 자각하게 되였다。당은 공산주의의 원쑤들、즉 쏘베트 동맹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쏘베트 동맹을 레닌적 길에서 리탈시키려고 시도하였던 뜨로쯔끼 도배、부하린 도배 및 기타 그들의 조력자들을 분쇄하였다。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시대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 발전 법칙들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 립각하여 레닌과 쓰딸린은 공산주의의 첫 계단은 물론 최고 계단도 쏘련에서 실지로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하였던 것이다。인류는 자본주의로부터 오직 사회주의에로만、즉 착취 계급들의 완전 청산、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및 각자의 로동에 의한 생산물의 분배에로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레닌은 가르친다。사회주의의 건설의 가능성、이것은 지금 단지 맑쓰—레닌주의 과학의 리론적 명제만이 아니다。이 가능성은 쏘베트 동맹의 전체 발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검열되어 실생활로 전변되었다。그리고 또 레닌은 우리당의 앞을 멀리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사회주의는 불피코「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요구에 따라」라는 원칙이 그 기치로 되어 있는 공산주의에로 첨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三권 二五二페지)

이 레닌의 견해와의 완전한 일치 하에서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 동맹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학설을 발전시키었다。한나라에서 공산주의는 가능한가 하는 어떤 통신원의 질문에 대해서 쓰딸린동지는「한나라에서 공산주의는 특히 쏘베트 동맹과 같은 나라에서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공산주의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불쉐위끼당과 전체 쏘베트 인민은 완전히 현실적이며、과학적이며、현실로써 검열된 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레닌과 쓰딸린이 제기하고 론증한 몇개의 결정적 제 조건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의 최고 계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건설을 전개시키는 제 조건과 지반으로 되는 사회제도가 자본주의의 모든 병질로부터 다시 말하면、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의 무정부성、공황、실업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쏘련에서 건설될 사회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의、불상용적 제 모순이 없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근절되어、있는 것이다。쏘베트 제도는 사회적 생산의 또는 인민경제의 대장성의 급속한 계획적 그리고 의식적으로 지도되는 전개의 무진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쏘베트 제도는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을 보장하였으며 쏘베트의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그들의 창조적 활동에서 사상적으로 집결시키었다。

자본주의의 포위의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나라는 큰 자연 부원 즉 이 자연 부원을 백방으로 급속히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리용할 때에는 그 나라를 자본주의적 시장에 예속되지 않은 완전히 자주적이며 보장될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의 무한한 장성과 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큰 자연 부원을 소유하여야 한다。그 나라의 생산력 발전의 자연적 기초로서의 그러한 자연 부원 없이는 생산력을 공산주의에 특유한 수준에까지 강력하게 제고시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며 생산품의 공산주의적 분배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쏘베트 동맹의 자연 부원이 실지로 무진장하다는 것을 오늘날 누가 모른단 말인가! 이 자연 부원의 채굴과 리용은 쏘베트 동맹의 경제발전의 위대한 전망을 열어 놓고 있다。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철광석의 매장량은 전 세계 총 매장량의 五三%를 초과하고 있다。석유의 매장량에 있어 쏘베트동맹은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로출된 석탄층만 하여도 쏘베트동맹에는 一六、五四〇억톤에 달한다。수력자원과 방대한 산림부원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을 릉가할 나라는 없다。

새 사회를 성공리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연 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레닌주의는 가르친다。쓰딸린 동지는 말하기를 또 필요한 것은「인민에게 유리하게 이 거대한 자연 부원을 리용하려는 소원(所願)과 력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권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다。우리나라에는 그와 같은 주권이 있는가? 있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로동당출판사판 제二권 四七五페지)라고 하였다。오직 쏘베트정권의 제 조건 하에서만이 쏘베트동맹의 전체 자연 부원에 대한 광범한 연구가 조직되었으며 철광、석탄、석유의 새로운 방대한 산지들이 발견되어 자연 부원의 채굴이 급속도로 개시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이 건설되어 새로운 항공로와 지상

교통로가 부설되며, 수로(水路)가 변경되며, 수량(水量) 많은 운하들이 개통되었다。 자연은 사회주의 사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밀과 자기의 부원을 아낌없이 내어 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능성은 맑쓰주의당 즉 그 활동에 있어서 맑쓰주의 리론으로 확고 부동하게 지도되는 당이 전체 사회 발전을 또한 공산주의를 위한 근로자들의 전체 투쟁을 령도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며 실현된다는 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공산주의로 향하여 가는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발전 경험은 이를 확증하고 있다. 볼쉐위끼당이야말로 「로동계급의 모든 우수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 목표에로 인도하기에」 레닌적으로 결속되고 통일된 강유력하고 성숙된 또 완전히 단련된, 그리고 「난관에 당면하여 겁을 내지 않으며 또는 옳은 혁명적 볼쉐위끼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충분히 경험을 가진 당인 것이다。」(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판 제二권 四七八폐지)

레닌과 쓰딸린은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능에 관한 맑쓰주의 학설을 연구 발전시키었다。 볼쉐위끼당은 레닌과 쓰딸린이 가르친 길로 쏘베트동맹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노력과 투쟁을 돌리었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지도되며 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결속된 쏘베트인민은 거대한 혁명적 열성을 가지고 위대한 레닌—쓰딸린적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쏘베트동맹에서는 사회주의가 건설되어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기 수령의 천재로써 인도되는 쏘베트 제 인민은 금후의 전진을 위한 투쟁 즉 공산주의로 향하여 전진하기 위한 투쟁을 자신있게 전개하였다。

레닌—쓰딸린의 학설에 의하면 쏘베토사회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정치적 기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또는 쏘베트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나,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체 사회적 경제를 가일층 제고시키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의, 지도력이며 확고한 혁명적 주권이다。 레닌은 「쏘베트 없이는 이 과업은 적어도 로써야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쏘베토는 전세계사적 중요성을 가진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레닌전집 제二판 제二一권 二五九—二六〇폐지)라고 썼다。 一九一八년 一월에 쏘베트 제三차 대회의 석상에서 레닌은 볼쉐위끼당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국가를 건설할 력사적 필요성을 계속 론증하고 「이 점에 공산주의의 본질이 있다」(동서 제二二권 二二〇폐지)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공고화와 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의 일반적 로정을 작성하였다。 레닌은 「제 민족의 자원적 동맹」, 제 민족의 호상신임, 형제적 협조에 기초한 쏘베트국가의 건설에 관하여 결정적 지시들을 주었다。 쓰딸린동지는 이 레닌적 사상을 발전시켜 가지고 쏘베트동맹에서는 공산주의의 첫째 계단이나, 둘째 계단이나, 자본주의적 포위의 조건하에서 건설되는 만큼 쏘베트국가는 쏘베트사회의 각종 발전 단계에서의 자기의 기능과 과업을 변경하면서 공산주의의 창건의 전체 시기를 통하여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공고히 되며 강유력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었다。 현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임무에 관해서 말하면서 쓰딸린동지는 교시하기를 지금 「국내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적 임무는 평화로운 경제——조직적 및 문화——교양적 사업에 있다」(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로동당출판사판 제三권 四八六폐지)고 하였다。

쏘베트동맹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산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이며 생산도구와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레닌은 로동계급의 투쟁 목적으로 공산주의를 선포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루차 지적하였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그것이 경제적으로 창설될 그 때에만이 평가한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四권 一五一폐지)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의 시대에 있어서나 공산주의의 시대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생산관계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가 없는 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때에서, 압박이 없는 때에서 건설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산관계의 성격에는 원칙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이는 다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제적 기초의 발전 계단 성숙정도에만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건설의 레닌적 리론에 립각하여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쏘베트동맹의 이행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 시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발전의 제 법칙과 특수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 발전시키었으며 쏘베트동맹에서의 공산주의 최고계단의 방도와 기간을 교시하였다。

일찍 제十八차 당대회에서 쓰딸린동지는 쏘베트동맹이 생산을 최신기계로 장비한 점에 있어서

또는 산업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주요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섰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당시 쓰딸린 동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었다。즉「우리는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앞서는 경우에라야 우리나라가 소비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생산물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공산주의의 첫 계단으로부터 그의 둘째 계단에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로동당출판사판 제三권 四四一—四四二페지)

이와 같이 쓰딸린 동지는 공산주의의 둘째 계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을 앞서는 그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였다。이 천재적 리론적 맑쓰주의적 규정에 따라 쓰딸린동지는 위대한 새 과업의 실현 강령도 작성하였다。쓰딸린동지는 이 강령의 기초를,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모쓰크바 쓰딸린 구역 선거자들 앞에서의 력사적 연설에서 제출하였다。당은 쏘베트공업이 매년 주철은 五천만톤까지, 강철은 六천만톤까지, 석탄은 五억톤까지, 석유는 六천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인민경제의 새로운 강력한 앙양을 조직할 작정이다。이 앙양은 우리의 공업수준을, 례하면 전전 수준에 비하여 三배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전체 인민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위대한 쓰딸린적 계획의 실현은 공업생산고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이 공업관계에 있어서 가장 앞선 자본주의 나라들을 멀리 뒤 떨어뜨리게 할 것이며 일련의 공업부문에서 미국의 공업생산고를 릉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이 우리 조국은 온갖 우연성으로부터 보장될 것이다。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새 五개년계획이 세번은 지나갈 것이다。그러나 이 사업은 할 수 있다。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여야만 된다。」(쓰딸린「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모쓰크바시 쓰딸린 선거구 선거자들의 집회석상에서의 연설」)、一九四八년 계획의 완수와 초과 완수의 결과에 달성된 공업과 농촌경리의 새로운 앙양사업에서의 쏘베트동맹의 거대한 제반 성과는 쏘베트 경제 발전의 쓰딸린적 강령이 모든 방면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여 준다。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생산품의 높은 질을 위한, 계획 초과 축적을 위한, 높은 수확고를 위한, 광범히 전개된 사회주의 경쟁은 혁혁한 성과들을 주었다。전후 五개년 계획의 첫 三년은 계획을 一〇三%、一九四八년의 계획은 一〇

六%로 초과 수행하였다。쏘베트동맹의 인민경제 발전 속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一九四八년의 쏘베트동맹의 총공업 생산고는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二七%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자신있게 말하여 준다。

쏘베트 인민은 레닌이 인민경제 협의회 제一차대회석상에서 표명한 그의 위대한 사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레닌은 그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오직 사회주의만이 어떻게 전체 근로자의 생활을 가장 자유스럽고 그들에게 행복의 가능성을 주는 생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판단에 따라 사회적 생산과 생산품 분배를 광범히 확장하며 또 그것을 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사회주의만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가 이것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진리를 리해하는 것에 맑쓰주의의 전체 곤난과 그의 전체 력량이 있는 것이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三권 四一페지)

쓰딸린 동지와 우리당이 작성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 강령은 전적으로 레닌주의에 립각하고 있는 것이며 레닌적 사상을 실현하는 천재적 계획인 것이다。더우기 레닌은 사회의 생산력이 장성함에 따라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이 공산주의적 분배 원칙으로 점차 바뀌어지며, 전자가 후자로 발전할 수 있다는, 또 그렇게 되어야 할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이 개인들에 의하여 강탈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의(不正義)만큼 최초에 근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는 맑쓰의 사상에 립각하면서 레닌은 지적하기를 이 사회는 요구에 의하지 않고「로동에 의하여」소비품의 분배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이것을 지적하면서 레닌은 동시에 사회주의만이 사회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또는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이「불공평」도 없애버리기 위한 실재(實在)적 조건을 조성한다는 유명한 맑쓰주의 사상을 발전시키었다。

레닌은 공산주의 사회를 그 부단한 발전 속에서, 상승 운동 속에서 고찰하였다。레닌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그 경제적 기초가 동일한 것인것만큼, 또는 공산주의의 첫 계단에 있어서나, 둘째 계단에 있어서나 생산수단이 근로자들에 속하고 있는 것 만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의 사회 전원(全員)의 평등이 실현되는 즉시로 인류 앞에는 필연적으로 더、앞으로 나아갈, 즉「각인은 능력에 따라、각자에게는 요구에 따라」라는 원칙 실현에로 나아갈 필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강해 가르치었다。이 점에

있어 레닌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또는 어떠한 실지적 방책으로서 인류가 이 최고 목적을 향하여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며 또 알수도 없다。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오직 사회주의로부터만이 급격한 진정한 실제로 대중적인 그리고 다수 주민의 참가 하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주민의 참가 하에서 발생하는 전진(前進) 운동이 사회적, 및 개인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시작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주의는 죽은, 굳어버린, 영원히 그대로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흔히 있는 부르죠아적 관념이 얼마나 허위적인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동서 제二一권 四三九페지)

쓰딸린 동지와 볼쉐위끼당이 「지도하는 쏘베트 사회가 바로 레닌이 말한 그 방향에서 발전하였으며 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어렵지 않다。오늘날 전세계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의 쏘베트 사회의 급격한 강력한 앙양과 상승(上昇) 운동을 보고 있다。레닌은 三十년전에 지적하기를 그 당시 공산주의 자들에게는 어떠한 단계를 통하여 어떠한 실지적 방책들로서, 인류가 공산주의를 향하여 갈 것이라는 것은 알수 없었다고 하였다。쏘베트국가와 인민이 쓰딸린 동지의 지도하에서 공산주의 첫 계단 건설의 위대한 길을 통과하였고 그 둘째 계단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전개된 금일에 있어 인류는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완전 무결하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의 리론을 가지게 되었다。쏘베트 사회에 대한 이 쓰딸린적 리론 즉 위대한 쏘베트 인민의 경험을 표현한 이 리론은 새 세계 건설의 기본 단계들을 인류에 밝히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실지적 방책들도 밝히어 주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맑쓰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로친다。혁명적 맑쓰주의적 세계관의 최고 발전 계단으로서의 레닌주의는, 공산주의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볼쉐위끼당의 전체 사업의 기초인 것이다。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 교양,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잔재의 완전 청산, 쏘베트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정신으로 쏘베트 사람들을 교양하는것, 외국 것에 대한 온갖 아첨의 근절, 코스모폴리티즘 또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온갖 출현의 완전 분쇄등을 목적한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국가의 활동은 쏘베트 사회의 사상적 정신적 생활의 부문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당의 투쟁이다。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볼쉐위끼당은 국내의 전체 과학계의 사상수준을 제고시킬데 대하여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제고에 대하여 전투적인 볼쉐위끼적 당성의 정신으로 또는 부패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의 정신으로 쏘베트 인테리겐챠를 교양할데 대하여 훌륭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이 대책들은 벌써 현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제 지시와 볼쉐위끼당의 제 결정의 완전 실현을 위한 투쟁은 쏘련에서의 과학적 및 문화적 생활의 새로운 대 앙양을, 공산주의 시대에 일치하여야 할 쏘베트사회의 사상적 및 문화적 발전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달성을 가져오고 있다。

쏘베트 인민은 레닌주의의 기치 밑에서 공산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다。공산주의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사상 또는 새 세계 건설에 대한 쏘련 제 인민의 위대한 경험의 국제적 의의는 크다。이미 레닌은 쏘베트사회의 건설로서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국제적 전 세계적 형태를 찾아냈다」(레닌전집 제三판 제二四권 一一五페지)는 것을 지적하였다。레닌의 이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쓰딸린 동지는 말하기를 쏘베트동맹은 「미래의 세계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표본이다」(쓰딸린전집 제五권 一五八페지) 라고 하였다。

쏘베트동맹의 제, 인민은, 자본주의를 분쇄하고 공산주의 건설을 전개하고서 세계력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위대한 레닌의 사상이 그렇게도 완결하게 실현되고 이 사상이 매일과 같이, 새로운 개가(凱歌)를 올리고 있는 오늘날 자본에 대한 승리는,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는 모든 인민들에 대해서 아주 용이한 것으로 되었다。전 세계 근로자들은 쏘베트 인민들의 위대한 성공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보고 있다。사회주의에 관한 레닌의 학설은 사회의 발전을 자본주의의 붕괴와 공산주의의 승리에로 촉진시키는 위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주의 과학, 맑쓰주의 철학의 발전에 있어서 새 시대를 창전하였다。볼쉐위끼당과 인민의 수령들은, 즉 쏘베트 국가의 창전자들은 서로 긴밀한 혁명적 협력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창전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 발전, 공산주의의 최초의 싹으로부터 완전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합법칙적 발전, 경제적 기초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적 상층 구조(上層構造)에 이르기까지의 공산주의 건설의 방도등에 대한 완전 무결한 리론을 작성하였다。十九세기에 맑쓰와 엥겔쓰가 자본주의 발전과 멸망의 법칙에 대한 지식

으로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二十세기에 있어서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방법에 대한, 공산주의 건설과 그 완전승리의 법칙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지식으로 세계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키었다。 맑쓰와, 엥겔쓰는 호상 협력 하에서 새로운 프로레타리아적 사회 과학을 창설하였다。 레닌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운명이 칼・맑쓰를 프리드리흐・엥겔쓰와 만나게한 때로부터는 두 친우의 중요할 로작은 그들의 공동 사업으로 되었다……고대의 전설들은 우정(友情)의 여러 감명 깊은 례(例)들을 전해 주고 있다。 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과학이 두 사람의 학자와 투사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이들의 관계는 인간 우정에 관한 고대의 모든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다」(레닌전집 제二권 五, 十一—十二페지)

오늘 전세계의 프로레타리아들은 위대한 혁명적 과학(맑쓰주의)이 현 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며,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수령들이며, 천재적 사상가들이며, 학자들이며, 위대한 혁명가들인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방향에서 일대 전진을 하였으며 이들의 감명깊은 우정은 세계 문학에서, 건설에서, 또는 인민들의 이야기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칭찬받고 고상한 례(例)들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대는 갈대와 같이 지나가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의 서대는 벌써 머나먼 력사로 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世代)들은 공산주의의 시대를 창조할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훌륭하게 읊은 것처럼

「레닌의 심장 영원히
끓어 오르리
혁명의 품안에서」
(마야꼽쓰끼)

쓰딸린 동지는 레닌주의를, 볼쉐위즘의 사상적 재산을 당의 주요한 재물(財物)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상적 재산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이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레닌의 유언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투쟁하라。 레닌주의의 성과는 많아진다。 그의 영광스러운 기치 밑에 새로운 수억만의 근로자들이 통일한다。 세계 모든 인민들을 위한 레닌주의의 완전 승리의 때는 벌써 가깝다。 레닌—쓰딸린의 위대한 군대에 속함을 자랑하며 위대한 레닌의 사상을 파악한 쏘베트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완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쁨을 가지고 레닌의 위대한 벗이며 계승자인 친애하는 쓰딸린동지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쏘련 아까데미 회보」 一九四九년 제一호에서)

사회주의적 로동규률

느・그・알렉싼드로브

로동규률은 일체 공동로동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사람들이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로동하는 곳에서는 어데서나 로동하는 사람들이 공동사업지도자의 지령과 일정한 로동규률에 복종함이 없이는 로동과정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많은 개인들이 서로 협조하고 있는 일체 사업에 있어서 로동과정의 통일과 공통적 련결은「악단(樂團) 지휘자의 활동과같이 개인적 사업이 아니라 공장의 전체 활동에 관계되는 일종의 관리의사로 되어야하며 또한 기능」(맑쓰 자본론 제三권 三四四페지)으로 되어야한다。

그러나 로동규률의 성격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해당한 생산관계의 형태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될수 있는것이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지배하고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데서나 로동규률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로동규률은 개인적 로동이 아닌 일체 로동의 일반적 본성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생산수단소유자와 로동자사이의 관계의 착취적 본질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노예소유자에게 있어서, 노예의 규률은, 또 지주에게 있어서 농노의 규률은, 그리고 자본가에게 있어서 임금로동자의 규률은 우선 타인의 로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며 잉여상품을 획득하는 수단인 것이다。

노예소유제도 및 봉건제도하에 있어서나 또 자본주의제도하에 있어서 로동규률의 주요 사명은 근로자들로하여금 생산수단 소유자를 위하여 자기 로동으로써 물질적 부(物質的富)를 창조하도록 강제하며 또 반기아적 상태에 만족하도록 강제하는데 있다。

자본주의 제도하의 임금로동자들은 봉건제도하의 농노 및 노예소유제적 생산방법하의 노예와 꼭 마찬가지로 로동규률이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제정

된것이 아니라 착취자들의 부유를 위하여 그들에게서 피땀을 짜아내기 위한것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성행하고있는 사회에서는 로동규률이 그 사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리익에 적대되며 항상 강제적 성격을 띠고있다。

일종의 착취적 생산방법하에서의 로동규률과 타종의 착취적 생산방법하에서의 로동규률의 차이는 오직 강제의 방식에만 있는것이다。

노예소유제도 및 봉건제도하에서 로동규률은 공개적인 육체적 강제에 근거하였었다。 레닌의 정의(定義)에 의하면 이것은 곤봉(棍棒)의 규률이였다。(브·이·레닌전집 二十四권 三三六폐지)

자본주의제도하의 로동규률도 역시 이러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있으며 오직 차이(差異)라는 것은 감독자의 채쭉이 감독자의 벌금등록장부로 교체된것이다。 노예소유제도 및 봉건제도하에서 로동자들을 곤봉으로 구타하였으며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자본가가 자기 기업소에서 제정하는 내부규칙을 로동자가 위반한데 대하여 벌금을 부과시킴으로써 돈으로 로동자에게 타격을 주고있다。 더우기 자본가에게는 해고 또는 로동자에게 있어서 기아와 관련된 실업등과 같이 자본가 자신이 제정한 로동규률을 유지할 강권도 수많이 있는것이다。

실업자들이 있는 조건하에서의 해고는 실로, 고용로동자에 대항하는 자본가의 무서운 수단이다。 노예소유자 및 봉건령주들도 피착취자에 대한 그와같은 협박수단은 가지지 않았다。

엥겔쓰는 일찌기 다음과같이 썼다。「노예의 생존은 그 소유자의 개인적 리익에 의하여 보장되었다。 농노에게는 최소한 그가 살수있는 적은 토지가 있다。 이들 량자는 적어도 아사를 면할것만은 보장받고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 자유대로 할수 있으나 그와동시에 그가 의뢰하여 기대할수 있는 부가물을 자기힘으로써 구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맑쓰 엥겔쓰 전집 제三권 四〇八폐지)

실업—이것은 각개 취업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로동규률에 복종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의 멍에를 메도록 강제하면서 각개 취업로동자의 머리위에 떠돌고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인것이다。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같이 「실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있는것은 오직 실업자들뿐만 아니다。 직업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도 또한 실업으미암아 고통을 받고있다。 다수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는것은 직업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에게 대하여 생산에서의 불안정한 상태와 래일에 대한 위구(危懼)를 조성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것이다」。

(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三八六폐지)

조금이라도 로동자가 자본가 및 그 앞잡이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자본가가 제정한 내부규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한다면 로동자는 해고의 위협을 받는것이다。

즉 례를 들면 얼마전(一九四八년 六월) 런던항구에서 영국 부두로동자들의 강력한 분개를 일으킨 다음과같은 에피쏘드가 생겼다。 十一명의 부두로동자들이 보통임금으로써 그들의 의복을 오손시키는 화물(酸化亞鉛)의 운반을 거절하였으며 보충임금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리유로써 그들은 관리당국에 의하여 즉시 해고당하였다。 부두로동자들은 해고당한 로동자들을 복직시킬것을 요구하면서 동맹파업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운수로동자직업동맹에 속하여있는 직맹관료들은 그 파업을 직업동맹 상층지도부의 승인이 없는「란포한」파업이라고 선언하였다。로동자들은 파업을 계속하였다。 그때 영국로동당정부는 파업로동자들을 반대하여 소위 정부의 비상권한에 관한 一九二〇년의 반동법령을 적용할것을 성명하였다。 그 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명령서없이 체포할수 있으며, 집회를 금지할수 있으며, 또 군대의 보호하에 파업 파괴자들을 작업시킬수 있다。 파업로동자들은 로동당정부와 직업동맹관료들의 통일전선을 눈앞에 두고 해고당한 로동자들을 복직시키지 못한채 부득이 파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사실은 부르죠아지가 규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배반자인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원조를 받으면서 로동자들을 반대하여 정치테로를 어떻게 리용하고 있는가하는것을 표시하여주는 특징적 실례로 될수 있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고용로동자에 대한 자본가와 그 앞잡이들의 경영당국의 착취자적 본질을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은폐하려고 기도하고있다。 그들은 마치 자본주의적 기업소에서의 규률이 오직 대규모생산의 기술적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있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기업소의「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하여 생산관계의 량측(兩側)이 다같이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질서」는 마치「생산의 모든 참가자들」—주인이나 또한 로동자들의「공통적」리익을 위하여 제정된것처럼 확신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실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로동규률은 기업주 수중으로의 부원(富源)의 축적을 보장하여주고 있으며 로동자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적 로동규률은 수명의 축소와 신경계통의 파괴를 의미하며 또 기계의 자동적 부속물로의 전환, 육체적 및 정신적

발전 가능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오늘날 대다수의 미국기업가들이 로동자들을, 채용할때에 四十세 또는 三十五세이상의 로동자들을 거절하고 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로동규률은 九시간내지 十시간의 로동시간내에 「로동자에게서, 二배나 더 많은 로동을 착취하여내며 로동자의 모든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하여 아침 일찍부터 임금노예의 신경과 근육의 정력의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아내는」(과학적) 로동조직체계를 실시하는 과업을 추구하고있다。(브·이·레닌 전집 十八권 五五六폐지)

× × ×

로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수단으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적 로동규률과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은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와 함께 「착취자들에게 강요당한 규률로부터 자각적 자원적 규률에로의 위대한 력사적 이행이 진행되였다」(브·이·레닌 전집 二十二권 四六三폐지)

브·이·레닌은 사회주의적 로동조직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다음과같이 썼다。「사회적 로동의 공산주의적 조직은 (거기로 향하는 첫걸음은 사회주의이다) 지주와 자본가들의 압제를 전복시킨 로동자 자신들의 자유로운 또 자각적 규률에 의거하면 의거할수록 앞으로 더욱 준수될 것이다」(브·이·레닌전집 二十四권 三三六폐지)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은 무엇보다도 근로자 자신들의 규률이며 착취계급의 대변인들이 근로자들에게 강요한 규률이 아니다。쏘베트국가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다。사회주의적 로동관계는 착취에서 해방된 로동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호상원조의 관계이다。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 자신이 로동규률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다。왜 그러냐하면 사회주의 제도하에 있어서 로동규률은 착취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가장 유익한 협조를 보장하는 목적에 복무하기 때문이다。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은 집단적 로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이 기초위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로동에있어서 필요한 조화(調和)를 설정한다。

사회주의적、로동규률은 근로자들 자신이 그 필요성과 유익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각적 규률이다。이·쓰딸린은 제一차 미국로동자대표단과의 회견석상에서 다음과같이 강조한바 있다。「로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국가를 위하여 자기계급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데 대한 자각은 우리공업 발전과 그를 개선함에 있어서 거대한 추진력으로된다。」(이·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一八五폐지)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로동규률을 준수할 의무를 사회에 대한 고상한, 도덕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은 자발적 규률인것이다。

「현 쏘베트사람들의 정신적 면모는 우선 사회적 중요성을 띤 사업으로서 또 쏘베트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로서 자기의 로동에 대하고 있는 자각적 태도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브·므·몰로또브「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三十주년 기념보고」二十七폐지)

「절대다수의 로동자 농민 꼴호즈농민들은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을 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있다。

쏘베트법률은 기업소당국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위시하여 장기간의 무사고 로동에 대한 또 훌륭한 로동결과에 대한 정부의 고상한 시상(施賞)에 이르기까지 로동규률준수를 장려하는 여러가지 대책을 규정하고있다。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쏘베트인민들의 헌신적인 대중적 로동의 조건하에 있어서 조국의 복리를 위하여 정직한 로동과 훌륭한 로동결과를 장려하는 여러가지 대책을 조직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더욱 크나큰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이 방면에서의 쏘베트법률의 발전은 구체적 지표(指標)를 제정하는 규준에따라서 진전되고있는데 로동자가 그 구체적 지표를 달성하면 해당한 상을 받을 절대적 권리를 얻는것이다。즉 례를 들면 一九四七년 九월十일부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항내에서 五년간 무사고로 일한 로동자 및 광부들은 「탁월한 로동에 대한」메달을 상여받으며、十년간 일한 사람은 「용감한 로동에 대한」메달을 상여받으며、十五년간 일한 사람은 로동붉은기훈장、二十년간 일한 사람은 레닌훈장을 상여받기로 제정되였다。一九四七년 三월二十九일부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의 정령에 의하여 꼴호즈농민、농기뜨락또르지정소 종업원、쏩호즈원이 사회주의로동영웅의 칭호와 쏘베트동맹의 훈장 및 메달을 받을 절대적 권리를 획득할수 있는 정확한 수확지표(收穫指標)—소맥(小麥)、옥수수、라맥(裸麥)、사탕무(甜菜)、면화—가 규정되였다。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의 거대한 우월성은 「사회주의국가의 부단의 공고화와 사회주의국가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의 향상과 모든 국가기관사업의 개선이 개별적 쏘베트사람들의 복리를 더욱 향상시키며 쏘베트사람들의 리지적 및 도덕적 향상을 가져온다」(므·이·깔리닌、레닌그라드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것을 깨닫고있는 수

천만 쏘베트사람들의 용감한 로동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기업소의 로동자들 속에는 로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견해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그러한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애쓰고있다。그들은「많은 루블리」의 뒤를따라, 한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자기 의사대로 이전하여 다니는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태공하고 제정된 책임량도 실행하지 않는것을 두려워 하지않는다。자본주의 제도하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되는것을 두려워서 규률을 지켰을것이다。그러나 쏘베트사회에 있어서 실업은 영원히 근절되어 버렸오며 그리고 모든 정직한 로력자들을 보다 열성적인 로동에 고무하고있는 이 사태는 비량심적인 일부 사람들에게 의하여 공동적 사업에 해를 끼치도록 리용되고 있다。로동규률의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쏘베트법령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모든 정직한 로동자들과 사무원들과 꼴호즈농민들은 로동규률 위반자들과의 단호한 투쟁에 절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다。왜그러냐하면 비량심적인 일부 사람들의 비규률적 행동은 공동적 사업에 전체적으로 해를 끼치며 사회주의 사회의 정직한 로력자들의 헌신적 로동의 효과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의 위반자들과의 투쟁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일치한 지지를 받고있는것이다。

우수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규정이 로동규률에 관한 쏘베트법률의 첫째 주되는 부분으로 된다면 쏘베트법률의 둘째번의 필수적 부분은 로동규률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다。

정직한 로동이 반드시 전면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면 다른편으로 규률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처벌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을수는 없는것이다。

쏘베트로동법령은 정직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여러가지 시책과 로동규률 위반자들에게 대해서는 처벌하는 시책들을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교양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있다。

쏘베트법률은 기업소(기관 경제단체)의 매개 일군들의 로동적 의무가 정확히 규정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이것은 튼튼한 로동규률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의 공동적 의무는 로동내규(內規)에 의하여 규정된다。개별적 직원에게 그의 직책 또는 사업장소에따라 부과되는 특별 의무는 직무상 및 기술상 지령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것이다。

몰로또브는 이미 一九三七년에「생산적 생활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어야되며, 각분공장(分工場)에는 기술적 규정과 지령이 있어야되며, 해당한 일군들은 그 규정과 지령을 잘알아야되며, 기사는 매일 매일의 작업에서 그들을 지도하여야되며, 그 모든 사업은 지배인과 부지배인에 의하여 검열되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던것이다。

쏘베트동맹헌법 제 백三十조에 규정된 로동규률준수의 의무는 사회주의적 로동과정의 참가자로서의 쏘베트공민에게 부과되는 모든 로동적 의무의 종합적 표현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규률준수의 의무는 근로자들이 종업원 성원에 들어있는 기업소(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로동내규를 준수하여 로동할 의무로서 규정될수 있는것이다。

로동내규에 의하여 로동할 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요소로 형성된다。

첫째로 각개 근로자들은 공동적 집단로동에 있어서 그에게 부과된 로동 의무를 정직하게 집행하여야된다。로동 의무는 그 근로자가 기업소(기관 경제단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책 또는 사업장소에 의하여 규정된다。근로자들은 기업소(기관 경제단체) 공동적 과업에 기초한 관리당국의 지시와 또한 자기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그의 로동 의무에 속하여있는 구체적인 모든 사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그다음에 일체 기업소(기관 경제단체)는 매개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소(기관 경제단체) 내의 기술적 분업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임무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복합체적(複合体的) 공동 로동력으로 된다는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본주의적 로력조직하에 있어서는 고급 기술직원들과 일부 사무원들만이 일정한 창의를 말할수 있다는것을 지적하는것이 중요하다。기계기술의 자본주의적 적용은 공업로동자들을 기계의 부속물로 만드는것이다。

이와반대로 사회주의적 로력조직 하에서는 일체 로동은 창조적 성질을 가지고있다。쏘베트국가에 있어서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의 모순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으며 매개 종업원은 로동을 통하여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둘째로 생산적 필요성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기의 로동 의무에 속하지 않은 일도 림시적으로 집행하여야된다。이것은 한편으로 작업중지로 말미암아 종업원이 자기의 일상적인 임무를 집행할수 없는 때에 있을수 있으며 또한 다른편으로 어떠한 순간에 보다 중요한 다른 작업장소에서 필요한 로동력이 없는때에 있을

이 규정된다。정확한 로동시간표의 제정은 로동규률의 기본적 요소의 하나를 이루는것이다。로동시간의 옳은 활당은 기업소 종업원들의 일치된 로동을 보장하여준다。그와함께 로동시간 준수에 대한 감독은 규정된 일정한 로동량의 실행에 대한 감독도 용이하게한다。끝으로 지적하여야 할것은 제정된 로동시간표를 준수할 의무는 보통 출근 및 퇴근규정을 준수할 의무에 의하여 보충된다。이 보충적 의무는 로동시간표를 준수할 기본적 의무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여섯째로 로동규률을 준수할 의무는 종업원이 기업소내의 정상적 환경을 보장하여주는 일반적 행동규정에 복종하는데 있는것이다。이 규정은 첫째로 매개 종업원이 일반적인 기술적 안전규정을 준수하는것을 요구하며, 둘째로 위생규정을 준수하는것을 요구하며, 셋째로 방화규정을 준수하는것을 요구하며, 넷째로 로동적 의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할것을 요구하며, 다섯째로 종업원과 관리측간의 또 개별적 종업원 간의 호상친선을 요구한다。

일곱째로 로동규률은 기업소의 재산에 대한 애호적 태도를 요구한다。

쏘베트동맹헌법 제一三一조에 의하면 전체 공민들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애호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종업원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소재산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의무는 이중으로 증가된다。사회주의적 로동에 참가함으로써 생산수단에 자기의 로동력을 경주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기업소에서 부여한것이며 또 자기로동의 도구로서 그 생산수단을 리용할 로동자의 특별한 권리는 그에게 생산수단을 애호할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여준다。

로동규률을 준수할 의무를 형성하고있는 기본적 요소들은 이러한것이다。

로동 의무를 실행하지못하면 두가지 보충적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밑에서 로동규률을 위반하는것으로 될것이다。(그러고 따라서 해당한 규률상 처벌을 받아야할것이다)

첫째로 상당한 리유없이 로동 의무를 집행하지 못하는것은 규률위반으로된다。그러나 례를 들면 종업원이 병으로 인하여 작업에 나오지못한 경우에 이것은 규률위반으로 되지않을것이다。왜그러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로동 의무는 확실한 리유에 의하여 집행되지 못한것으로 되기때문이다。법령에 의하여 그 경우에 종업원은 작업에 나가지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때에 로동 의무를 집행하지 못한것은 부정당한것으로, 되지않는다。

수있다。사회주의적 기업소의 종업원은 계획실행과정에 있어서 린접 작업장의 락후상태를 그대로 방임할수는 없는것이다。

브·이·레닌은 이미 一九二〇년에 다음과같이 썼다。「우리는「매개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한개의 신(神)은 전체를 위하여」라는 저주할 규정을 일소하기 위하여 일할것이며 우리는「전체는 한사람을 위하여, 또 한사람은 전체를 위하여」라는 규정을 대중의 매일 매일 생활에 보급시키고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일할것이다。」(브·이·레닌전집 二十五권 二五六페지)

셋째로 사회주의적 기업소(기관 경제단체)의 매개 종업원은 제정된 로동의 표준량을 반드시 실행하여야되며 또한 그것을 초과실행하여야 될것이다。로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높은 로동생산성을 위하여 제정된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할 의무를 의미하는것이며 또한 그밖에 책임표준량이 제정되어있는 작업에 있어서 그 표준량을 절대적으로 실행하고 또 초과실행하는 의무를 의미하는것이다。꼴호즈농민에게 있어서 그 의무는 해당 농업년도기간내에 제정된 최소한도의 로동일을 실행하며 또 가급적으로 초과실행하는데 있는것이다。

브·이·레닌이 로동량과 소비량에 대한 통제에 어떠한 의의를 부여하였는가는 주지된 바이다。브·이·레닌은「공산주의사회의 첫계단의 정당한 기능을 위하여」모든 공민은「작업량을 정당히 준수하면서」일하여야 된다고 인정하였던것이다。(브·이·레닌전집 二十一권 四四〇페지)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및 초과실행은 결국 매개 로동자 사무원 및 꼴호즈농민들이 로동 의무를 실행하며 또 초과실행하는것으로부터 형성된다。

넷째로 매개 근로자들은 집행하는 작업의 일정한 질(質)을 보장하여야 될것이다。로동의 질적지표(質的指標)는 제조되는 생산품의 질과 생산품의 원가저하와 정당한 작업방법의 준수에서 나타난다。이와같은 의무를 집행함으로써 종업원의 잘못으로 인한 불합격품을 없이할수 있는것이다。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개 근로자들은 자기의 로동기능을 향상시켜야된다。

다섯째로 매개 근로자들은 제정된 로동시간표를 엄수하여야된다。일정한 기업소 기관에 망라된 공민들의 공동적 로동은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시간에 위한 분업에 있어서 통일을 요구한다。이러한 통일은 기업소 전체의 종업원들에 대하여, 또는 어떤 부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로동시간표를 제정함으로써 달성된다。이러한 시간표에 의하여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및 휴게시간

둘째로 종업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로동 의무를 집행하지 못한것은 규률위반으로 되는것이다。 종업원이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부정당한 행동을 감행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종업원의 잘못을 말한다。 고의적 죄타하는것은 공민이 로동 의무를 집행하려고 하지않았던가 또는 의식적으로 집행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죄타하는것은 공민이 적어도 그가 로동 의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것을 반드시 예견하거나 또는 예견할수 있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례를 들면 만약 경험이 적은 로동자에게 그가 알지못하는 기구를 주고 그 취급방법을 가르쳐 주지않고 그 결과 로동자가 그, 기구를 파손하였다면 이와같은 사태하에서 기업소의 재산을 애호할 의무를 집행하지못한것은 로동자의 죄로 될수 없는것이냐。

로동 의무를 집행하지못한 온갖 부정당하고 죄를 지은 행동은 로동규률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유해정도에 따라 모든 종류의 로동규률 위반은 두가지 부류로 분류된다。

로동규률위반의 첫째부류—이것은 규률상 과실(規律上過失)이라고 칭하는 보다 적은 위반이다。 그러한 과실에 대하여 종업원은 기업소(기관) 당국에서 주는 규률상 책벌(주의, 경고, 三개월 이내기간 임금이 낮은 작업으로의 이전등)을 받는다。 끌호즈에 있어서 규률상 과실을 수행한데 대하여 끌호즈관리당국에서 책벌(경고, 五로동일에 해당하는 벌금, 작업이동, 질이 나쁜 작업을 로동일계산에 넣지않은 의무의 부과등)을 준다。

만약 종업원이 계속적으로 규률상 과실을 범하고 그에게 주는 규률상 책벌이 적당한 호과를 주지않을 때에는 로동자 또는 사무원에게 대하여 로동법령 四七조「라」항에 의하여 (상당한 리유없이 로동 의무를 계속적으로 집행하지못한데 대하여) 해고를 적용할수 있으며 끌호즈농민에 대해서는 농업알쩰리 규약 八 및 十七항에 의하여 끌호즈총회앞에서 끌호즈에서 제외할데 관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로동규률 위반의 둘째부류로 되는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며 법률에 의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는 위반들이다。 즉 례를 들면 로동자 및 사무원은 결근(태공)및 제멋대로 작업을 떠나는데 대하여 一九四○년 六월 二十六일부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재판에 의한 책임을 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성인끌호즈원이 상당한 리유없이 농업작업기간내에 제정된 최소한도의 로동일을 실행하지않은데 대하

여 一九四二년四월十五일부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재판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같은 로동규률에 대한 일체 위반은 그 위반의 사회적 유해정도에 따라 규률상 책벌을 받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하는것이다。

그밖에 만일 로동규률에 대한 위반으로 말미암아 기업소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물질적 책임을 진다。 로동자 및 사무원의 물질적 책임은「로동법령」과 이 법전을 보충한 결정에 의하여 예견된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며 끌호즈원의 물질적 책임은 민법 법전에서 예견된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다。

자기의 로동 의무를 실행하지못한 종업원이 부정당한 규률상 책벌의 부과 또는 무근거한 재판회부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서면상 또는 구두상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종업원이 물질적 손실을 끼쳤을 때에도 설명이 요구된다。

규률상 책벌을 해제함에 관한 쏘베트법률의 규정은 커다란 교양적 의의를 가지고있다。 즉 례를 들면「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내규」제二十四조에 의하면 책벌을 준 후(주의, 경고 또는 엄중경고) 로동자 또는 사무원이 새로 로동규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기업소 지배인(기관책임자)은 그에게 준 책벌을 해제한다。 만약 로동자 또는 사무원이 로동규률을 새로 위반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또한 충실하고 우수한 종업원으로서 복무하였다면 지배인(책임자)은 一년이 지나는것을 기다리지 않고 책벌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만약 공민이 그가 받은 규률상 책벌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는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로동자 및 보통 사무원은 P.K.K (紛爭評價委員會)에 의견을 말할수 있으며 또는 규률상 책벌해제를 인민재판소에 고소할수 있다。 취직 및 사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있는 일군들, 선출되는 일군들 및 특별목록에 지적된 기타 부류의 책임적 일군들은 책벌을 준 책임자가 복종하고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규률상 책벌에 대한 의견을 상신할수 있다。 규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로동부문에서는(례를 들면 운수에서) 규률상 복종의 질서에 의하여서만(상급책임자에게) 불평을 말할수 있다。 끌호즈원은 알쩰리총회에 알쩰리관리당국의 부정당한 규률상 책벌에 대하여 상신할수 있다。

만일 로동규률에 대한 한가지의 실제적 위반도 책벌을 받지않은채 남아 있을수 없다면 그와 아울러 근거없는 규률상 책벌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널리 적용되는 우수한 일군에 대한 표창과 또한 다른편으로는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로동규률

위반들 대한 책벌과 아울러 종업원이 소비하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임금제도의 정당한 조직은 사회주의적 기업소내의 로동규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적 기업소에 있어서 로동자의 로동의 량적 및 질적 성과의 향상에 대한 로동자의 직접적 물질적 리해관계는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자극으로 되는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제외하는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특징적인것은 로동규률을 준수할 의무는 비단 법적 기준으로 될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근로자들 자신 쏘베트사회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데서부터 나오는 륜리적 기준이기도 한것이다。

자기의 사회적 로동 의무에 대한 쏘베트근로자들의 자각은 사회적 로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을 특징지어 주는 기본적 법칙의 하나인 대중적 사회주의적 경쟁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경쟁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것은 그것이 로동에 대한 인간의 견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데 있는것이다。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로동을 이전에 생각하였던 바와같은 천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영예로운일로, 영광스러운일로, 또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 천변시키기 때문이다。」(이·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三九三페지)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또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 전변된 로동—이것은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규률—자원적이고 자각적인 규률에 기초한 로동인것이다。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후방에서의 쏘베트인민들의 용감한 로동은 쏘베트군대가 적을 파멸시키는것을 원조하였다。전후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은 인민경제의 부흥 및 장차 발전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성공적으로 로동하고있다。

쏘베트인민들은 새로 양양된 로력적 열성을 가지고 전후 五개년계획의 결정적 해인 제四년도에 들어섰다。五개년계획의 기한전 실행은 쏘베트국가에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어서 커다란 일보전진을 의미할것이다。

(소책자에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二十五)

一九一七년 二월혁명에 대하여

박 정 호

一九一七년 二월—三월 혁명전까지는 로씨야에서 국가주권은 한개의 낡은 계급 즉 니꼴라이 로마노브를 수위로한 농노주—귀족—지주계급의 수중에 있었다。로씨야에 있은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은 볼쉐위끼당의 지도 밑에 로동계급이 령도적 지위에 서서 농민(및 병사) 대중과 혁명적 동맹을 굳게 맺음으로써 짜리즘을 전복하는 투쟁에 있어서 승리하였다。

二월혁명의 소식을 서서(瑞西)에서 들은 레닌은 전세계적 제국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촉성(促成)된 혁명의 동력에 관하여 귀국하기 전에 볼쉐위끼당과 로씨야 로동계급에게 보낸「먼곳으로부터의 편지」(편지는 다섯번 보냈는데 그의 첫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해부하였다。「여러 세기를 내려오며 유지되었고 또한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의 가장 위대한 전 민중적、계급적 싸움의 三년간에 어떠한 것에나 불구하고 창애로 되었던 그 군주제제가 통히 八일동안에—밀류꼬브 므찌가 되축에 있는 모든 로씨야의 대표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자랑스러운 전보에 지적한 기간——넘어진 이와 같은 기적은 어떻게 생길수 있었던가?」(레닌선집 조선어판 제十권 一페지) 라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기적인 것이 아니라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위대한 계급적 투쟁 경험과 혁명적 청혁이 없었더라면、또는 쓰톨리핀 반동시기와 그후 주년간의 새 혁명의 앙양기에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경험이 없었더라면、여 승리는 있을수 없었다는 것과 세계대

전은 아 승리—|전제제도 전복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二월혁명의 촉진자는 전세계적 제국주의 전쟁이였으며 二월혁명은 제국주의 전쟁을 공민전쟁에로 전환시키는 첫 시기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一九一四년 여름에 시작된 제一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모순의 첨예화로 말미암아 강대한 자본주의 두 그루빠 사이에 세계 재분할과 세력범위를 위한 투쟁, 타민족을 노예화하며 식민지 략탈을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폭발된 것이다. 이것은 량편이 모두 침략적 및 략탈적 제국주의의 전쟁을 진행한 것이다.

발발된 제국주의의 전쟁은 로동운동의 제 사조를 엄격하게 검열하였다.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기회주의로써 부패된 서구라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을 배반하고 부르죠아 「조국옹호」라는 구호 밑에서 각 교전국(交戰國)의 로동자 농민이 서로 전쟁하도록 사수하여 자본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제二국제당의 수령들과 지도자들과 다수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정부를 옹호하는 진지에 가담하였다.

이 엄중한 모멘트에서 사회주의당의 심각한 공황과 로동운동의 수령들이 배반하며 변절하는 환경속에서 오직 레닌과 볼쉐위크들만이 국제주의적 전투적 기치에 성실하게 남아있고 오직 볼쉐위크들만이 동요없이 즉시에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레닌은 즉시로 전쟁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평가를 나리었으며 세계의 살륙장에서 유일한 출로는 자기의 제국주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로동자 농민에게 교시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三—四년 계속되었다.

전쟁은 교전국의 량편 진영을 동시에 피폐케 하였다. 전쟁 행정에서 이들의 자원과 군사적 능력이 완전히 판정되었으며 군대와 함대의 력량은 거의 소모되었다. 교전국들에 있어서 원료와 식량이 몹씨 부족되었으며 부르죠아들은 앞으로 이 전쟁을 더 계속하기 곤난하게 되었다. 대중의 분노와 불만의 장성, 로동자들의 혁명적 투쟁의 앙양, 전선에서의 군인들의 도주, 이 모든것은 구라파에 혁명적 정세가 성숙되었다는 것을 발하여 주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와 같은 혁명적 위기의 렴박을 오랫동안 지연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위기는 독일을 위시하여 영국 불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불피의 세력으로 장성되었다. 혁명적 위기는 로씨야에서 보다 먼저 발발되었다. 짜리로씨야는 전선에서 후방에서 가장 심각한 마비상태에 빠졌으며 로동자와 농민은 갈쑤록 중

대하는 곤궁과 결핍에 시달렸다. 또한 가장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트(一九〇五년의 혁명적 정치교양을 받은)를 가진 짜리로씨야에서 혁명적 위기는 어디에서보다 가장 첨예하였다. 이 혁명적 위기는 로씨야 및 그의, 동맹국들이 당한 여러번의 가장 참혹한 패배에 의하여 더욱 촉전되였다. 그 패배들은 짜리정부의 모든 기구와 모든 낡은 제도를 흔들어 놓았으며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들속에서 짜리정부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환기시켰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전쟁은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이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지에 반대하는 계급적 투쟁을 비상히 촉진시키며 또한 미증유하게 첨예화시킬 것이었고 그 전쟁은 반드시 적대적 계급들 사이의 국내 전쟁으로 전변되어야 할 것이었다.

만일 전쟁에서의 패배가 혁명을 촉진시킨 동인의 역활을 하였다면 다른 편으로 로씨야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 간에 펴지기 시작한 불만이 또한 혁명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되었다. 이는 독일과의 단독강화 체결을 중심으로한 짜리정부의 「연극」이 그들을 더욱 격분케 하였다. 독일정부와 로씨야정부가 단독강화를 하려는 시도는 一九一五년부터 시작되었으며 一九一七년에 와서는 황후(皇后) 알렉싼드르가 직접 수행하였다.

물론 이 단독강화 문제는 독일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벌써 로씨야를 무력하게 만들었음으로부터 생긴 짜리정부의 지망이었다. 그러나 독일과의 단독강화를 체결한다는 것은 전선에서 영 불이 직접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 불 금융자본가와 련결을 맺고 있는 로씨야 부르죠아지들은 짜리정부가 자기의 처지를 구하기 위하여 독일과의 단독강화를 체결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씨야 부르죠아지는 궁내 정변(宮內政變)을 일으켜 니꼴라이 二세를 퇴위시키고 미하일 로마노브(니꼴라이 二세의 아우이며 부르죠아지와 관계가 깊은)를 즉위(郞位)시키려고 결의하였다. 이 계책은 영 불 대사관원들의 맹렬한 활동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이것은 전선에서의 로씨야군대의 패배와 단독강화에 대한 짜리정부의 지망으로 인하여 그 정부에 대하여 분노한 부르죠아지들의, 또한 닥쳐오는 혁명의 앞에서 겁이난 부르죠아지들의 궁내 정변으로써 혁명을 바꾸려고 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세는 자유주의적 음모자들이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는 되지 못하였다. 궁내 정변 대신에 二월혁명이 시작되었으니 짜리제는 분명히 치명적 위기에 당면하였다.

× × ×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은 一

九一七년 一월 九일 뻬뜨로그라드와 모쓰크바등에서 일어난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二월 十八일 뻬뜨로그라드의 쁘찔로브공장 로동자들의 파업에서 더욱 격화되었으며 二월 二十五일에 와서는 정치적 총파업으로 변하였다.

혁명에는 불쉐위끼당 중앙위원회의 호소에 의하여 수많은 부녀 로동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군대내의 볼쉐위크들의 활동에 의하여 많은 짜리군대가 로동자편에 서게 되었다. 二월 二十七일에 와서 짜리제도를 타도하고 二월의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은 승리를 고하였다.

혁명의 급속한 승리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혁명이 이처럼 속하게 또한 이처럼 외형상 번득 보는 관찰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승리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극히 특이한 력사적 정세로 말미암아 전혀 서로 다른 지류(支流)들과 전혀 각이한 계급적 리해관계와 전혀 적대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경향이 함께 합류되었으되 거기에다 훌륭하게 「사이좋게」 합류되었던 까닭이다. 즉 한편으로는 구츠꼬브들이 곤쓰딴치노쁠을……불란서의 자본가들이 씨리야를…… 영국의 자본가들이 메쏘뽀따미야를……언기 위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계속할 목적으로, 그 전쟁을 더욱더 녕악하게 완강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밀류꼬브와 구츠꼬브와 및 그 도당으로 하여금 주권을 장악케 하였던 영국 불란서의 제국주의자들의 공모가 그것이었고, 다른편으로는 빵을 위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자유를 위한 혁명적 성질을 띤 심각한 프로레타리아적 및 대중적 민중적(도시 및 농촌의 모든 극빈한 주민)운동이 그것이다」。(레닌선집 조선어판 一○권 八페지)

혁명이 고조에 달한 二월 二十六일—二十七일 이 시기에 있어서 뻬뜨로그라드의 거리거리에서는 로동자들과 병사들은 전 로씨야의 로동자 및 병사들과 함께 짜리군주 정체를 반대하고 자유를 위하여, 농민들에게 줄 토지를 위하여, 제국주의적 살륙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자 및 병사대표 쏘베트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볼쉐위끼당의 실제적 활동에 대한 지도는 몰로또브를 수반으로 한 당중앙위원회 사무국이 실천하였다. 당의 지시에 의하여 우선 각 공장 기업소내에서 쏘베트의 대표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군대내에 있어서도 쏘베트를 조직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쏘베트에 대한 로동자들의 사상은 이미 一九○五년—一九○七년의 제一차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생긴 것으로서 그후 혁명의 퇴조와 함께 쏘베트는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쏘베트에 대한 사상은 로동자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 초기에 벌써 쏘베트는 로동자들에 의하여 출현하였으며 봉기한 로동자와 병사들은 쏘베트에 집결하였다.

병사쏘베트라는 것은 곧 농민의 대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이 시기의 군대의 절대다수가 농민출신이라는 데서 설명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직된 쏘베트는 一九○五년—一九○七년 혁명 시기의 그것보다 한걸음 더 발전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쏘베트에는 맨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이 많은 대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뻬뜨로그라드 쏘베트와 그 집행위원회 수위에는 타협적 정당의 대표자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들이 있었으며 모쓰크바와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사태는 이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데서 그 리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로동자 및 병사쏘베트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아직 진실한 혁명적 선진 로동자들과 볼쉐위크 지도자들은 가두에서 적들과의 치렬한 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기회만 엿보고 다니다가 쏘베트 선거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 들어 한자리 차지하기에 분주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혁명 당시에 볼쉐위끼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망명 또는 류형지에 있었다. (이때 레닌은 서서에 망명하여 있었고 쓰딸린, 스웨르드로브는 시비리야에 류형중이었다)

셋째로 선거 절차가 잘되지 못한 데 대한 원인이 있었으니 큰 공장에서는 로동자 一、○○○명에 대표 一명씩을 선거하였으며 一、○○○명 미만되는 작은 공장들에서는 一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볼쉐위크들은 주로 대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혁명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들은 주로 작은 공장들에서 암약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이 비교적 많이 침투된 작은 공장들에서 더 많은 대표들이 나오게 되었다.

무장한 인민—로동자와 병사들은 쏘베트에 자기 대표를 보내면서 쏘베트를 진정한 인민정권 기관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로동자 및 병사 쏘베트가 혁명적 인민의 모든 요구를 실현하며 무엇보다 먼저 전쟁을 그만두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은 전쟁을 종결시키고 강화를 체결할 데 대한 문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쏘베트를 구성함으로써 혁명은 끝났다고 떠들면서 당면임무는 부르죠아지와 손을 잡고 렬헌

제의 림시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권을 부르죠아지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온갖 기도를 다하였으며 영국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영 불 제국주의적 자본은 제국주의전쟁을 계속하며 또한 더 맹렬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였으며 구츠꼬브, 밀류꼬브 등을 교사하여 새 정부를 만들었다.

로동계급이 병사(군복을 입은 농민)들과 동맹하여 무장적으로 짜리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四차국회 대의원(대다수는 립헌민주당, 十월당)들이었던 부르죠아들은 「국회림시위원회」를 조직함에 분주하였다. 로씨야 지주와 자본가들은 조직한 「국회림시위원회」의 반(反)혁명적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두 「사회주의자」 즉 멘쉐위크인 츠헤이드제와 사회혁명당원인 께렌스끼의 협력을 얻었다. 「국회림시위원회」가 조직한 군사위원회는 뻬뜨로그라드 수비대 병사들에게 병영(兵營)에 돌아가라는 명령서를 줌으로써 진행되는 혁명을 중단코자 하였다.

三월 一일 「국회림시위원회」 위원들은 소위 쏘베트측 대표라는 멘쉐위크 츠헤이드제, 쓰꼬로브, 수하노브, 쎄크로브들을 청하여 협의회를 가졌으며 이 협의회에서는 소위 「사회주의자」들과 림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림시정부의 기본적 과업으로서 뻬뜨로그라드 내의 「질서유지」라는 것도 그들은 접수하였다. 모든 혁명력사가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혁명시에 부르죠아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언사는 부르죠아의 반혁명적 동작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림시정부의 수반에는 혁명전에 짜리 니꼴라이二세가 총리대신으로 임명하려던 대지주인 르보브를 지명하였으며, 외무대신에는 밀류꼬브(자유부르죠아 정당인 립헌민주당 당수), 륙해군대신에는 구츠꼬브(十월당 당수이며 대지주 대은행가), 상업 및 산업대신에는 꼬보바노브(대직조공장 주인), 재정대신에는 뜨레쩬꼬(대자본가인 사탕공장주), 사법대신에는 소위 「민주주의」의 대표자로 께렌스끼(사회혁명당 당수)가 들어갔다.

이와 같이 날조된 림시정부의 구성 인물들은 결코 우연한 집합체는 아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지주 및 부르죠아계급으로서 벌써 경제적으로 로씨야를 통치하고 있은지 오래고 또한 一九○五년—一九○七년 혁명의 시기와 一九○七년—一九一四년의 반혁명 시기와 나중에는—이에 있어서는 특히 급속하게—一九一四년—一九一七년 전쟁시기를 통하여…… 비상히 급속하게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로씨야에서의 정치생활로 대두한 새 계급의 대표들인 것이다.」 (레닌선집 조선어판 十권 一○

폐지)

림시정부는 모두 十一명의 대신으로 조직되었는바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정부가 「부르죠아지와 부르죠아화한 지주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로씨야의 국가주권이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을 알게 된 볼쉐위크들은 그 정부를 반대하여 강경히 나섰으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동자 병사쏘베트 집행위원회는 다수가결로 이 정부를 법적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림시정부의 형식을 취한 부르죠아지의 독재정부와 로동자 병사쏘베트 형식을 취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정부가 발생하였다. 즉 二월혁명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二중주권이 수립되었다.

× × ×

최초에 쏘베트내에서 멘쉐위크와 에쓰·엘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승리한 로동자와 농민이 자발적으로 부르죠아지의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 준 그 타협의, 계급적 지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十년동안이나 정치적으로 잠잤으며 짜리정체의 압박과 지주 및 공장주들을 위한 고역적 로동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눌려 있던 수백만 수천만이 각성하였으며 그리하여 정치에 쓸려 들어왔다. 이 수백만 수천만을 차지한 것은 다부분이 소경영자 소부르죠아 즉 자본가들과 임금로동자들과의 사이에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로씨야는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소부르죠아적인 나라였다. 크나큰 소부르죠아적 파도는 모든 것을 휩쌌으며 자체의 수량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사상적으로도 의식있는 프로레타리아트를 압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치에 대한 소부르죠아적 견해로서 심히 광범한 로동자층을 감염(感染)시켰으며 포괄(包括)하였다.

소부르죠아지는 자체가 프로레타리아적으로가 아니라 경영자적으로 살면서 그 생활에 있어서 부르죠아지에게 매어 있으며 또한 사유(思惟) 방법에 있어서 그는 부르죠아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소부르죠아적 자연생장와 물결이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과 같은 소부르죠아적 당을 표면에 나서게 하였다.

둘째로 전시중에 일어난 프로레타리아트의 구성성분의 변화와 혁명초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과 조직이 불충분한 때 기이된다. 전시중에는 순 로동자의 약 四○%가 군대에 징모되었다. 전시중에 징병을 피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외 심리를 가지지 아니한 소경영자, 수공업자, 소상인들이 공장으로 들어갔다. 로동자중의 이러한

소부르죠아층이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의 소부르죠아 정치가를 배양하는 토양(土壤)으로 되었다。이것은 짜리가、로동운동을 두려워서 우수한 선진적 로동자를 고외적으로 전선에 뽑아 보낸 데 원인이 있겠다。

二월혁명에 의하여 전국가적 기구(군대、경찰、관료제도)를 지휘하는 농노주적 지주들이 소수 무리만을 대표하였던 낡은 짜리주권은 분쇄되었고 물리치어졌으나 그러나 끝까지 파멸되지는 않았다。로마노브의 무리들은 군주정체적 음모를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로씨야에서 국가적 주권은 새 계급 즉 부르죠아지나 부르죠아지화한 지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주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는 쓰똘리삔시대의 군주정체분자들과 동맹을 맺었다。리보브와 및 그 도당들의 새 부르죠아정부는· 로씨야에서의 군주정체의 복구에 대하여 로마노브들과 협상하기를 시도하였고 또 그것을 시작하였다。이 정부는 혁명적 언사를 짓거려 가면서 낡은 제도의 지지자들을 지배적 지위에 임명하였다。그뿐만 아니라 림시정부는 영국과 불란서의 수十억 자본을 가진 「상회」의 단순한 사환군 노릇을 하였다。

다른 편으로 로동자 및 병사들의 대표 쏘베트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도시 및 농민의 모든 주민의 극빈한 대중 즉 주민의 十분지九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였으며「평화、자유、빵」을 얻으려고 힘쓰는 정식적이 아니요、발달되지 못한 비교적 약한 태아상태의 로농독재정부가 병립하고 있었다。

二중주권에 대하여 一九一七년 四월 九일에 발표한 론문(一九一七년 쁘라우다에 발표된 「二중주권에 대하여」)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온갖 혁명의 근본적 문제는 곧 국가주권에 대한 문제이다。이 문제를 해명함이 없이는 혁명을 지도하는 데 대하여는 그만 말치 않고라도 그 혁명에 있어서의 어떠한 의식적 참가에 대하여 든지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二중주권이란 무엇인가? 부르죠아지의 정부인 림시정부와 병립하여 아직 연약하고 발단적인 것이나 여하튼 외짐할 것 없이 · 사실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 장성하고 있는 다른 정부인 로동자 및 병사들의 대표쏘베트가 성립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다른 정부의 계급적 성분은 어떠한 것인가?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군복을 입은)이다。이 정부의 정치적 성질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곧 혁명적 독재이니 즉 중앙집권적 국가 당국에서 발표한 법률에가 아니라 바로 혁명적 인민대중의 직접 창발에 의거하는 주권이다。이것은 결코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선진적 다른 나라들에서 보통오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형태인 외회적 부르

죠아 민주주의공화국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여 있는 그러한 종류의 주권이 아닌 것이다。」(레닌선집 조선어판 十권 三十七폐지)

림시정부는 전쟁을「끝까지」수행하려는 十월당—에쓰·엘들의 부르죠아 정부이므로 평화도 빵도 자—유도 줄 수 없는 정부였다。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전쟁의 정부이요、아직까지도 아르메니아 갈리치아 토이기를 점령하며 하며、끈쓰딴치노뿔을 빼앗으려 하며、파란 꾸를란지아 리트바 변강 및 기타를 새로 강탈하려는 짜리적 정책을 말로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강짐의 정부인 까닭이다。

림시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혁명운동을 진압하는 데도 어떠한 결정적 대책이든지 다 채용하였다。병사와 로동자대중은 평화체결을 강경히 요구하였다。이 서기 멘쉐위크와 에쓰·엘들로서 지배되고 있던 뻬뜨로그라드 쏘베트 집행위원회가 대중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방책으로든지 지배계급의 전쟁 수행정책을 방해하겠다는 것과 구라파 인민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나서라는 호소를 발표하였다。그러나 이 성명에는 구체적 방책이 지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부르죠아주권을 그냥 두고도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듯이 보여줌으로써 림시정부의 정책에 방조를 주었다。

림시정부가 빵을 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부르죠아지의 정부인 까닭이다。

짜리주권이 전복되자 농민들의 지주에 대한 공격이 일시에 격화되었다。림시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토벌대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진압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진압하지 못할 것을 타산한 림시정부는 왕족의 토지는 국가재정에 충당할 것이며 기타 토지에 대하여서는 립헌제정회의의 해결을 기다리라는 광포(廣布)로서 농민을 기만하였다。이렇게 부르죠아들은 인민을 방맹이로서만은 지배할 수 없음을 알고 기만과 회유로서 지배할 것을 시도하였다。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저고리에 붉은표를 박고「우리는 혁명적 민주주의자이므로 당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 줄터이니까 참으십시오」라는 격(格)이었다。

림시정부의、모든 방책은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보존함에 있었다。「농작물 보호를 위하여」「토지위원회에 대한 규정」등 림시정부의 법령은 농난들을 기만하여 지주와 타협시키려는 것이며 지주에게 토지를 남겨주기 위한 시도였다。

림시정부는 다른 모든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정책을 썼다。식량형편을 개선할 때대한 방책을 취하지 못하였다。지주들은 곡물을 감추고 고가로 밀매하고 있었다。이렇게「교모하

계 조직된 기근」은 대중들로 하여금 빵을 얻기 위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달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로씨야에 있어서 수다한 민족들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림시정부는 낡은 짜리적 대로씨야 민족주의정책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불가분(不可分)」의 통일된 로씨야」라는 구호 밑에 어떠한 민족자결권도 부인하였다。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운수사업에 있어서도 림시정부는 아무러한 방책도 세우지 못하였다。원로 자재의 궁핍으로 많은 공장들은 휴업하게 되었다。

이렇게 림시정부는 존재한 첫날부터 그가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멘쉐위크나 에쓰・엘들의 방조 밑에 진행되는 기본적 문제들에 대한 정책들――토지、평화、빵、민족문제에 대한 정책은 낡은 짜리정책의 답습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불철저한 정책도 물론 알려졌다。

이렇게 부르죠아들의 림시정부가 멘쉐위크와 에쓰・엘들의 방조를 받아 혁명을 부르죠아들이 요구하는 범위에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시기에 로동자――병사대의원 쏘베트는 그가 비록 많은 멘쉐위크 에쓰・엘의 지도층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대중의 압력으로서 혁명적 문헌인 명령 제一호를 발표하였다。이 명령에서 병사와 해군들에게 일반공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할 것을 선포하였다。쏘베트의 지도층의 다수를 차지한 멘쉐위크와 에쓰・엘들은 이 명령서의 민주주의적 성질을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종결된 혁명」이라고 외치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할 데 대한 환상을 일으켰다。

멘쉐위크와 에쓰・엘들은 혁명의 수위에 설 예정어었던만큼、또 혁명을 기어코 중지시킬 심산(心算)이었던만큼 온갖 반혁명적 방책들을 방조하여 주었다。타협적 당들의 이러한 「창발력」과 방조는 결국 까제트――十월당 정부를 조성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 × ×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二월혁명의 가장 주되는 특징은 혁명이 승리한 후 며칠동안에 二중주권、이 수립된 데 있다。二월혁명은 짜리 군수정체를 소탕하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을 부르죠아에게 넘겨 주었으며 또한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 독재에까지 바싹 다가선 거기에 있다。

二월혁명의 극히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 쏘베트들의 다수의 실

임을 받고 있는 뻬뜨로그라드의 쏘베트가 자진하여 국가주권을 부르죠아지와 그의 림시정부에 넘겨주며 그 림시정부를 지지한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개의 독재가 한데 교차된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한 국가에 두개의 주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그중의 하나는 없어져야 할 것은 명백한 사실로 되었다。전(全)로씨야 부르죠아지는 벌써 각처에서 온갖 수단으로써 쏘베트를 페지시키며 무력하게 하고 부르죠아지의 단일주권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그러나 『자각있는 로동자들은、농촌고용군 농민 병사들의 대표 쏘베트、의 단일주권을――즉 음모로써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적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과 그 의식을 부르죠아지의 영향하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써 준비된 단일주권』(레닌선집 조선어판 十권 四一페지)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림시정부를 즉시에 전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一、그 정부를 전복하여야 할 것이다。왜 그러나하면 그 정부는 과두 정치적인 것이요、부르죠아의 것이요、일반 민중의 것은 아니며 그것은 평화도、빵도、완전한 자유도 줄 수 없는 까닭이다。

二、그것을 지금에는 전복하지 못한다。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로동자들의 대표쏘베트、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주되는 뻬뜨로그라드의 쏘베트와 직접 및 간접、형식적 및 사실적 타협을 취하고 있는 까닭이다。

三、그것을 일반적으로 보통방법으로는 「전복」하지 못한다。왜 그러나하면 그것은 제二정부인 로동자들의 대표쏘베트가 부르죠아지를 「지지」하는 데 의거하여 있는바 이 제二정부는 즉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다수의 의식과 의사를 직접으로 표현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혁명정부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볼쉐위크들의 당면한 임무는 대중속에서 끊임없는 해설사업으로써 림시정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하며 에쓰・엘들과 멘쉐위크들의 배반행위를 폭로하며 림시정부가 쏘베트정부로 바뀌지 않는 한 인민은 진정한 평화、빵、자유、로지는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혁명의 최초의 성과에 도취한 광범한 대중들은 림시정부를 신뢰했으며 그것을 지지하였다。볼쉐위크들은 최초의 승리에 도취한 로동자 병사대중들에게 대해서 혁명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전도가 멀며 정권이 아직 부르죠아 림시정부의 수중에 있는 한、또 쏘베트가 멘쉐위크와 에쓰・엘들과 같은 타협주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한、인민은 평화도、빵도、토지도 얻을 수 없다고 하

였다。

二월혁명이 승리하고 二중주권이 수립된 후의 시기의 특색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의 제一단계에서 제二단계에로 넘어가는 데 있었다。 레닌은「로동자 여러분! 여러분은 짜리츰 타도의 국민전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적 인민적 영웅주의의 기적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은 혁명의 제二단계에 있어서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레타리아적 및 전인민적 조직의 기적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첫째의「먼곳으로부터의 편지」에 지적하였다。

레닌은 두번째 편지에서 그 시기 두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동맹자는 수백만으로 되는 광범한 반(半)프로레타리아적 부분으로 되는 소농민인 로씨야 인민이다。 이 대중들에게는 불피코「평화·빵、로지、자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대중들은 불피코 부르죠아혁명 하에서 특히 소부르죠아 영향에 잠기어 있다。 자본주의는 자기 생활조건으로 말미암아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트 간에서 동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에 대하여서는 교육하며 조직하며 혁명진영에 넘어 오게 하여야 한다。

두번째 동맹자로서는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이다。 이 프로레타리아트들은 전쟁으로 위축(萎縮)되었으며 많은 부분은 사회—배외주의적 기만에 포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배외주의로부터의 그들의 해방은 날로 확대되었으며 로씨야 혁명은 이것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두번째 편지에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림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설정하면서 멘쉐위크와 에쓰·엘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을 루이·부란※과 같은 모양으로 평가하였다。

※ —력사적으로 보아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로동계급이 거대한 역할을 담당한 례는 한두번만 아니었다。 그러나 이 혁명들에서 항상 로동계급들보다 더 조직된 부르죠아들이 승리의 결실을 횡취하여 버렸다。 이런 경우에 로동계급의 조직에 가까이 섰던 어떤 자들은 항상 부르죠아들에게 방조를 주었다。 례를 들면 一八四八년 불란서 부르죠아혁명에서 로동계급은 큰 역활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부르죠아들에게 리용되고 말았으며 이 시기 로동계급에게 가까이 서 있었던 루이·부란은 부르죠아들과 협력하고 말았다。 이때부터「루이·부란쉬나」라는 어귀(語句)는 로동계급에게 가까이하여 대중의 신임을 얻으면서 다른 편으로는 이것을 혁명의 성과를 소멸시키는 데 리용한다는 대명사(代名詞)로 되었다。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은 로씨야의 二월혁명 시기에도 있었다。 즉 께렌스끼 기타 멘쉬위크、에쓰·엘들이 그렇다。 레닌은 이들을 칭하여『로씨야의 루이·부란』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로씨야 부르죠아에게 방조를 주면서 부르죠아주권을 수립하고 견고히 하였다。

로씨야의 루이·부란인 께렌스끼의 림시정부를 받들라는 호소는 十九세기에 여러 혁명을 변전한 자들에게서『모범』을 받은 것이다。

레닌은 지적하기를 프로레타리아트는 어떠한 방조든지 림시정부에 주지말라고 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자기 조직을 견고히 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강화시켜야 하며 인민을 무장시켜야 함을 레닌은 력설하였다。 이 근본적 주요한 방침이 없이는 전제제도 회복과 사회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한 강력한 방위는 불가능하며『평화、빵、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세번째 편지에서 레닌은 로씨야 혁명진영에 혁명적 주권—국가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맑쓰주의 원쑤들은 사회주의 혁명은 어떠한 국가든지 청산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혁명적 맑쓰주의와 무정부주의 간의 차이는 전자(맑쓰주의자)가 집중된 대규모적 공산주의적 생산을 주장하였으며 후자(무정부주의자)가 분산된 소규모적 생산을 주장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주권—국가와 문제에 있어서도 있다。 혁명적 맑쓰주의자들은 국가의 혁명적 형태를 혁명적으로 리용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연구하는 것이며、반맑쓰주의자들은 그와 반대인 것이다。 혁명적 맑쓰주의자들에는 부르죠아가 어때서든지 제멋대로 조직하는 그러한 국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내용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네번째 편지에서 레닌은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주권이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넘어가는 그 문제와 련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진정한 평화(병탐이 없는 민주주의적 평화)를 달성하려면 국가주권을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로동자와 빈농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계속하여 레닌는 국가주권이 로동자、병사、농민 대의원쏘베트에 넘어간 후에는 전로 쏘베트대회가 평화의 계획을 실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화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놓았다。 이 계획은 十월사회주의 혁명후에 실천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완성되어 있는 다섯번째 편지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적 조직에 대한 문제를 아주자세히 발전시키려고 예산하였다。

레닌은 이렇게「먼곳으로부터의 편지」에 부르죠

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이행을 위한 투쟁의 과업을 명시하였다。

二월혁명 직후에 쓴 이 모든 레닌의 론문들은 레닌적 선견력과 그가 어떻게 맑쓰주의적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를 력력히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론문들은 그 당시 계급들의 호상력량 비중을 정확하고 심중하게 오유없이 분석하면서 장래 사변들의 발전행정을 규정하였다。

× × ×

짜리정부가 전복된 후 지하로부터 나온 볼쉐위끼 당 앞에는 거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었다。그러나 첫시기 아직 정리못된 당 단체들은 이 과업들을 충분히 실행 못하였다。그러므로 지방 당단체들을 회복시키며、기업소、군대、농촌에 당단체를 급속히 조직할 필요가 나섰다。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은 당시 지어지고 있었다。二월혁명 전까지는 볼쉐위끼당이 이와 같이 광범하게 사업을 전개할 조건이 지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二월혁명 직후 당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당단체들을 회복시키는 사업에서 큰 지장으로 되었다。개별적 위원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가지지 못하였다。레닌은 서서에 있었고 쓰딸린、수웨르드로브、드제르씬스끼는 류형지에서 급속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二월혁명의 첫날부터 당의 정치적 조직적 과업을 해결한 중앙으로서는 몰로또브가 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 로씨야국(局)이였다。몰로또브의 지도하에 지하에서 나온 볼쉐위끼 당단체들은 거대한 선전선동사업、조직적 공작을 전개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림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거기에는 림시정부가 대부르죠아 귀족들로서 조직된 반혁명적 내용을 가진 것이므로 어떠한 타협이든지 맺을 수 없다고 하면서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과업은 민주주의적 성질을 가진 혁명적 정부(로농독재)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림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당 중앙의 견지가 당시 어떤 볼쉐위크들에게는 명확히 파악못되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당이 이러한 경향과의 투쟁에로 또한 맹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례를 들면 모쓰크바、당위원회는 처음 자기 결정서에 림시정부에 다만 압력만 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몰로또브를 수위로한 당 중앙국은 三월 五일(十八일) 림시정부에 대한 정당한 결정을 접수하였을 때에 뻬뜨로그라드 당 위원회는 당 중앙의 의사에 불복하고 옳지 못한 결정을 채택하였다。림시정부의 활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대중의 리해에 적응하기 때문에 림시정부에 대한 반

대행위는 금물(禁物)이라고 하면서 다만 림시정부가 전제형태를 회복하는 그러한 경우에만 사정없이 투쟁하라는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볼쉐위끼당은 혁명의 첫날부터 직업동맹사업을 조직하는데서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뻬뜨로그라드 당위원회는 온갖 제한과 장애를 물리치면서、자발적으로 직업동맹을 형성하라고 호소하였다。이렇게 하여 혁명의 첫날부터 로씨야에서 로동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데서든지 직업동맹이 형성되었다。볼쉐위크들의 창발력은 많은 기업소들에서 八시간로동을 실시케 하였다。

볼쉐위크들의 기관지들인『쁘라우다』(뻬뜨로그라드 당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三월 五일 볼쉐위끼신문『쁘라우다』첫호가 발행되었다。이것은 당 중앙위원회와 뻬뜨로그라드 당위원회의 기관지로 되었다)『사회민주주의자』(모쓰크바)、『별』(하리꼬브)、『우랄의 로동자들』、기타의 첫호들은 이 시기의 로동자 병사들의 거대한 활동을 력력히 보여 주었다。볼쉐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들의 무장적 위병(勞動民警)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당 중앙국의 지시에 의하여 뻬뜨로그라드위원회는 一九一七년 三월 三일(十六일) 로씨야 사회민주주의 단체들이 즉시로 필란지야 및 기타 외국 사회민주주의 단체들과 련결을 설정할 데 대한 결정을 접수하였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에 쓰딸린이 류형지에서 돌아오고 레닌이 망명으로부터 귀국하게 되었다。혁명의 수령들이 돌아 온 후부터 당내에서 혼돈은 없어지기 시작하였다。三월 十二일(二十五일) 쓰딸린이 수도에 돌아 왔다。아직 비교적 약한 당단체들은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곤난하였다。

모든 간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당은 레닌과 쓰딸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였다。三월 十四일(二十七일)『쁘라우다』八호에『로동자 병사 대의원 쏘베트에 대하여』라는 쓰딸린의 론문이 게재되었다。이 론문에서 쓰딸린은 첫 투쟁에서 달성한 주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어떻게 혁명을 더 발전시키겠는가、어떻게 혁명의 제一계단으로부터 제二계단에로의 이행을 보장하겠는가、하는 문제들을 세우면서 이 문제들의 해결은 로동자와 농민의 전투적 동맹을 조성하는데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로동자 농민 병사대의원 쏘베트는 이 동맹의 기관으로 된다고 론증하였다。

『쁘라우다』十二호(三월·十八일)에서는『로씨야 혁명의 승리의 조건에 대하여』라는 쓰딸린의 론문이 게재되었다。이 론문에 쓰딸린은 부르죠아 지주

적 반동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바꾸어 가지고 공개적 반동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이 반동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대중을 혁명적으로 준비시킬 것이며 쏘베트를 혁명적 주권의 중앙으로 또 반혁명과 사정없이 투쟁할만한 전투적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면서 그는 즉시로 로동계급을 무장시킬 데 대하여 력설하였다。

쓰딸린은 민족문제와 농민문제에 대하여서는 심중한 주의를 돌리었다。 짜리즘의 압박에서 벗어난 모든 민족들이 민족적 자유와 민족자결권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억압 철폐에 대하여』(一九一七년 三월 二十五일『쁘라우다』十七호)라는 론문은 큰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민주주의적 후비들을 불쉐위끼들의 기치하에 급속히 결속시키는 데 큰, 역활을 놀았다。

『쁘라우다』三十二호에 게재된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쓰딸린의 론문에는 혁명적으로 토지를 점령하라는 불쉐위크적 로선을 명확히 내세웠다。 그 시기에 있어서 토지문제는 가장 날카롭게 나선 문제들 중의 하나이어서 지어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었다。 쓰딸린은 쓰기를 농민들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며 지주의 토지를 농민들 마음대로 몰수하며 그것을 조직적 절차로서 경작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정적 활동을 기만적인 헌법 제정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진행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쓰딸린의 귀환을 맞아들인 당은 혁명에서 제원칙적 문제들을 명확히 하면서 한편 당내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한시각이라도 지완시키지 않았다。 림시정부를 받들며 방위적 기풍을 가진 웨이쩬쓰끼、 세부류크 등 그루빠들이 있는 것을 알자마자 당은 그들을 추출하였다。 쓰딸린의 지도밑에 당은 림시정부를 지지하는 데로 끌려가는 기회주의적 견지 특히 까메네브의 견지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벌써 레닌이 돌아오기 전에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쓰딸린은 불쉐위크적 명확성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 투쟁의 기본적 당면문제들을 내세웠다。 즉 쏘베트주권을 견고케 할 문제、 로동자들을 무장화하는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토지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二월혁명의 전야에 레닌은 서서에 있었다。 二월혁명의 승리에 대한 소식은 三월초에 레닌에게 전달되었다。 레닌은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하여 로씨야로 가려고 열망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시기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라고 그는 썼다。

그러나 서서에서 레닌이 빠져 나아가기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교전 련합국을 통과하기 불가능하였다。 왜냐 하면 영국 및 불란서는 제국주의전쟁의 반대자들을 로씨야로 보낼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레닌은 제국주의 진영의 모순을 리용하면서 독일을 통과하여 로씨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서서의 국제주의자 ―(프르・뿔랏텐)를 경유하여 독일정부와 교섭한 결과 특별조건부로 기차로써 독일을 통과할 것이 허가되었다。 그 특별조건들이란 즉 레닌과 다른 정치적 망명자들이 앉아 가는 기차에는 치외법권이 보장되었으며、 신분증과 물품들을 검열하지 못하며、 승객들의 허가없이는 그 객차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으며、 망명가들이 귀국하여 그 숫자만큼 로씨야에 억류되어 있는 독일 오지리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조건이었다。

一九一七년 四월 三일(四월 九일) 레닌은 망명자들과 함께 로씨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의 망명생활로부터 레닌의 귀국은 당과 혁명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에 대한 당과 대중의 열렬한 충애는 당내에 부동하고 있던 수많은 대중을 견고히 결속시키고 十월의 진격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당생활경험

당원들과 지도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사업 강화를 위한 투쟁

북조선로동당 함남도당부
위원장 박 영

당원들과 지도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적 선진 리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우리당의 제반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당은 창립이래 三년동안에 조국의 통일과 부강한 민주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인민들을 승리에로 정확히 인도함으로써 위신 있고 강대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 강화되였다。 이러한 승리는 우리당의 가장 선진적 리론인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지도되는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二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당원들을 맑쓰—레닌주의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우리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 유력한 무기중의 하나』이라고 지적하였다。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당단체는 당 창립 이래 당 중앙위원회의 일상적인 정확한 지도를 받들어 이 사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심각한 당적 주의를 경주함으로써 기본적인 성과들을 보장하였다。

당 창립 이후 제二차 전당 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서 도당단체의 당 정치 교양사업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 학습망을 수준별로 개편은 하였으나 그 사업이 정확하지 못하였으며 당 교양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각급 당 도서실들의 역활이 미약하였다。

또한 부분적 당단체들에 있어서는 당 유일제강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제목에 의하여 학습회를 진행하는 사실과 당교양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제二차 전당 대회에서 당선전사업과 당원들을 맑쓰—레닌주의로 무장시킬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된 이후에 있어서 당 정치 교양사업은 급속히 개선 강화되었다。

一九四八년 四월에 진행된 제二차 전당 대회 문헌 연구사업을 계기로 당원들의 학습 의욕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며 당원 교양에 대한 당단체들의 노력이 제고되였다。

이 시기에 도당단체는 당원들의 식정도를 더욱 정확히 검토하고 엄격한 수준별에 의하여 학습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기에 노력하는 동시에 학습

회 지도자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에 당적 주의를 돌리였다。

례를 들면 一九四八년 四월부터 七월까지의 사업에 도당부에서 시 군당 강사 강습을 四회에 걸쳐 十九일간 조직하였는바 여기에 망라된 三四四명의 강사들이 시 군에 돌아가서 二、二二三회에 걸쳐 五六、○六九명의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을 강습시켰다。

이와 동시에 도당단체는 지도 간부들의 정치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당 야간 당학교 사업의 질적 제고와 자습 당원들을 위한 당 도서실 사업들을 개선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一九四八년 四월부터 七월 사이에 각 시 군당 도서실 강연사업을 二四三회를 실시하였다면 一九四八년 四·四분기간에는 五三一회를 조직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제고되였다。 또한 도당부는 시 군당 간부들을 위하여 이동 강습반을 조직하여 각 시 군에 파견하여 수많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리론 강연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간부들의 학습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도당단체의 당 정치 교양사업은 제二차 전당 대회 이전에 비하여 어느 부문에 있어서든지 획기적인 발전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엄중한 부분적 결함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적지 않은 당 학습회가 사상적 내용이 빈약한 낮은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그것이다。 더우기 일부 지도 일군들은 당 정치 교양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의 회수나 참석률에 의거하려고 하였으며 또는 학습제강의 량적 진도에만 주의를 돌리는 부분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량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학습에 있어서 사상적 내용을 풍부히 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이 미약하였던 결과 부분적 세포 학습회들에서는『필기전달』정도에서 그치는 형식적 강의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당 학습회와 군중 학습회의 한계가 명확치 못함으로써 한 당원이 한달 동안에 수차씩 당과 사회단체 교양망에、참가하게끔 조직된 부분적 현상까지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당단체들에서 지도 간부들이 학습 정형에 무관심하였으며 학습을 지도 방조할 데 대한 대책들을 강구함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당 정치 교양사업에 대한 중요 방침을 제시한 당 중앙 상무위원회의 『황해도당단체내 책임 간부들의 학습 정형과 평남도당단체내 당 정치 교양사업 집행 정형』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당단체 사업에서의 부분적 결함들을 적지 않게 시정하였다。

특히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 회의 결정과 당 중앙 상무위원회의 『함남도당단체의 당내 사상 정치 교양사업 정형』에 대한 결정과 당 조직 강화를 위한 각급 당 회의들은 도당단체의 정치 교양사업을 한걸음 더 발전시킴에 커다란 계기로 되였다。

도당위원회는 당 중앙 상무위원회에서 취급된 함남도당단체의 사상 정치 교양사업 정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그를 구체화할 데 대한 방침들을 수립하고 전체 세포들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토의케 하였으며 도당 간부들이 각 시 군에 파견되여 이 사업을 지도하였다。 특히 이 사업이 당 조직 강화를 위한 당내 사상투쟁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토의되였던 까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두였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하여 오늘 도당

단체의 당 정치 교양사업은 어느 때보다 철저히 확립된 학습 체계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일 과거 다수의 세포학습회들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회 출석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돌리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학습회를 더욱 효과있게 사상적 내용을 풍부히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그의 중심적 과제를 돌리고 있다.

또한 과거 일부 당원들이 당 학습회에 참석하기를 태만하는 경향들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포 학습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그의 결함을 퇴치하고 있다.

도당단체는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의 교수안 작성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며 작성된 교수안은 반드시 세포 간부들의 심중한 검토 밑에 학습당원들의 인식정도와 부합되는 강의를 실시하도록 보장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각 시 군당 후비 간부 중견 간부들을 위한 야간 당학교 사업에 있어서도 당 유일제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출연하는 강사들을 문제별로 전문적으로 연구케 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더우기 과거 일부 지도간부들이 사업 지도상에 있어서 당 정치교양 사업을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존재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어떤 경향들이 시정되었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매개 지도일군들이 사상 정치 교양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법적 지도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세포 학습회와 야간 당학교의 교수사업들에 직접 참관하는 방법등으로 연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도당단체는 지도 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 중앙 상무위원회의 一월 결정이 있은 후 지도 간부들과 자습당원들과의 사업은 급속히 발전되었다. 특히 지도 간부들과 자습당원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도서실 리론 강연 사업이 도내 각 시 군당부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부 시 군당 간부들이 당 리론 강연에 출연하는 자역을 등한히 하며 또는 강사들의 리론 연구 사업을 충분히 방조하지 않기나 결원된 강사를 보충하지 않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시정되었다. 당원들의 학습을 방조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당 출판사업과 출판물 배포사업에 있어서도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 도당보의 매일 평균 출판부수는 一九四八년 三월에 비하여 현재(一九四九년 七월 말일)에 와서는 五,六七五부의 방적 증가로써 전체 세포에 이르고 있다.

당 출판물 배포에 있어서도 과거에 만일 일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늦어도 十五일 이내로 도내 전 지역에 배포할수 있게 되었다.

과거 일부 지도 간부들이 바쁘다는 리유로 맑쓰-레닌주의적 정치 교양사업을 등한히 함으로써 실무에 포로된 전망성 없는 사업들을 전개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았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이러한 착오된 인식은 시정되고 있다.

다음 당 중앙의 결정에 의하여 도당부와 각 시 군당부들에서 三개월에 一차씩 조직 실시하는 책임 간부들을 위한 단기 강습은 도당 및 시 군당 최고 간부들이 직접 출연하여 높은 수준에서 진행(二회 실시)되었으며 간

부들의 리론 수준 제고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도당단체가 당원들과 지도 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교양사업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성과들을 거두게 된 것은 당 중앙위원회의 일상적인 정확한 지도의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이 당 중앙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도에까지 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주되는 결함은 아직도 일부 당 학습회가 당원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과 맑쓰-레닌주의 사상 정치 교양사업이 당을 공고화하며 민주 건설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획득하는 실제적 투쟁과 긴밀히 련결되지 못한 데 있다. 물론 제반 민주 건설에서 우리 당단체와 당원들이 가장 핵심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원들 가운데서 우수한 모범일군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결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당 사상 정치 교양사업이 당원들을 강의한 투쟁적 정신으로 교양함이 부족하다. 앞으로 도당단체는 이러한 부분적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전체 당원들과 지도 간부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 세계관에 립각하여 조국에 조성된 현 정세를 정확히 인식한 기초 위에서 자체의 투쟁임무를 스스로 자각하는 선진적인 애국투사로 반드시 교양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당원들을 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 동지 주위에 더욱 강철같이 단결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놈들을 소탕하고 부강한 조국통일의 투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나서도록 보장할 것이다.

하고 또한 그를 착취하려고 하였다는 듯이 허언을 계속적으로 류포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리해할 수 있는것이다. 유고슬라비야의 반역자들은 유고슬라비야의 인민들에게 쏘베트동맹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가 마치 유고슬라비야에 대하여 적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주의와의 동맹이 보다 적은 해독이라는 것을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에게 불어넣기 위하여 그러한 허위적 주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최근 체코슬로바키야는 유고슬라비야정부가 그와의 무역조약을 련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과기하지않으면 아니되었을때 찌또도배는 체코슬로바키야에 달려들었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야는 그가 조약에 의하여 응당 공급하게 되였던 귀중한 원료를 체코슬로바키야에 공급하지 않은 대신 이를 자본주의국가에 매우 기빠하면서 팔아 먹었고 이 때문에 우리들에게 대하여 상품에 대한 부채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찌또도배는 체코슬로바키야가 오직 유고슬라비야를 착취하려고 하였고 또 그와의 무역은 자기들에게 손해만을 가져왔다고 확언하였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야의 제국주의자 종복들은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기만하고 자본주이적 서방에 중점을 두는 일과 그들과의 무역의 유익성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단언을 하였던것이다. 七월 十일 포라에서의 연설에서 찌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들은 우리들의 동(銅)、석(錫) 및 기타 광석을서방에 팔고 화폐、기계 및 기타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들은 차관을 구하고 있으며 또 받겠다(서부 자본가들로 부터ー필자)왜냐하면 이 차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관은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유리할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차관으로써 그들로부터 여러가지 상품、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찌또에 의하면 영 미 독점자본가들과의 무역이 유리하고 유익할 때에 쏘베트동맹 및 인민 민주주의국가、와의 무역은 유고슬라비야에 손해를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영 미 독점자본가들과의 두역은 영 미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노예적 차관에 의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익하고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 영 미 제국주의자들이 지지할 준비되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필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 복무하고 또 그의 방조 밑에 제국주의자들이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착취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샬화된 국가와 같이 유고슬라비야에 대하여 가장 적은 수량의 기계 및 기타 귀중품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피하지 않으면 아니될 박두하여 오는 위기를 고려하고 자기상품을 유고슬라비야에 범람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적 요구를 위하여 자기들이 지지한 가격으로 유고슬라비야의 동과석(錫)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실례는 백이의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백이의는 자기들의 공고산 광석을 미국에 판매하고 백이의의 공업을 파탄시키고 백이의 로동자들의 대중적 실업의 장성을 촉진시키는 미국제품을 구매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예적 조건에 의한 미국과의 무역 및 차관은 영국과 같이 공업관계에 있어서 발달된 나라까지도 벌써 곤난한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 사실 영국에 있어서도 미국 독점자본가들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느끼고 있지않는가! 찌또는 미국탕발장

국제보고

찌또도배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이다

체코슬로바키야공산당 총비서 루돌프·슬란스끼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사 도배는 제공산당과 관계를 끊은 이후 눈사태와 같이 급속히 자본주의의 구렁텅이 속에 전락하여 들어갔다. 一년전에는 쏘베트동맹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자기들의 증오감을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에게 감추려고 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제국주의 자들과의 완전한 동의하에서 반쏘적 연설을 모방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야에서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고 쏘베트동맹에 대한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의 애착심을 뿌리채 뽑아 없애기 위하여 그들은 영 미 제국주의 자들을 릉가할만큼 애쓰고 있는 것이다.

찌또도배는 인민들의 우수하고도 성실한 아들들을 박멸하면서 팟쇼적ー게스타포적 정체를 확립하였다. 유고슬라비야는 특별 감금소로 전화되었고 국내에서의 주권은 자기 상전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미친듯이 애쓰고 있는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장악하였다. 찌또도배는 끝 돈벌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중오감으로써 움직이고 있는 살인도배인 것이다. 찌또도배는 지금 제국주의 진영을 반대하여 아무것도 하지않고 도리어 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자기들의 전력량을 기울이고 있다. 찌또도배가 영 미 독점자본가들과 광대한 무역관계를 맺고 차관을 청하고 외국 자본의 진영에 탈주한 찌또도배가 어떻게 반 제국주의적 연설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영 미 독점자본가들의 침략적 군사적 계획을 폭로할 수 있겠는가、오늘날에 있어서는 대외무역의 중점을 자본주의 제국가에 두고、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서 차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적 착취자들의『호의』에 대하여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들을 넘겨주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제국주의적 재권자의 명령들을 수행하고 자기나라의 내정에 그들이 간섭하고 대내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마샬화된 모든 국가、즉 이태리、불란서、백이의、화란、영국의 근로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부르죠아ー민족주의자 도배가 강제로 정권을 장악한 유고슬라비야도 이러한 도정에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째서 유고슬라비야의 부르죠아 민족주의 도배의 모든 대표들이 쏘베트동맹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가 마치 유고슬라비야를 락후된(농업국가의) 수준에 억제

들—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야를 영국보다 더 잘 대하여 줄것이라고 말하면서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벌써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야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사람들의 의사대로 행동하게 되였다。 벌써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은 반쏘적 선동에 의하여 전쟁선동가들을 지지하고 있고 불가리야、항가리、알바니야 및 루마니야 인민들에 대한 민족주의적 악랄한 선전을 전개하고 있고 영웅적으로 싸우는 희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위하여 희랍의 왕당—파시스트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로골적으로 제국주의 진영에 넘어갔고 자국내의 성실한 혁명적 일꾼들을 사정없이 박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전선에 대한 배반의 시기부터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 과의 긴밀한 협조를 변명하기 위하여 마치 인민민주주의제국도 역시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는 듯한 구실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있어 특히 자주 체코슬로바키야를 지적하고 있는바 마치 자본주의 국가와 체코슬로바키야간의 대외무역이 증대되고 체코슬로바키야도 역시 서방으로부터 차관을 받았다는 듯이 지적하고 있으나 찌또도배는 이에 있어서도 실정을 외곡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 자본가들은 一九四八년 二월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야에 어떠한 차관도 제공하지 않을만큼 체코슬로바키야 인민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상시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야와의 무역을 제한할만큼 체코슬로바키야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체코슬로바키야에 대하여 여러가지 기계와 공업설비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는 그를 위하여 미리 一、六五〇만 딸라가 지불되어 있는 기계수출허가도 거부하였다。 례컨대 미국은 『슬라빙』 상회에서 一、四〇〇만 딸라로 구매한 금속가공(金屬加工) 공장의 기계설비품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고 있으나 그와 꼭같은 기계설비품을 유고슬라비야에 제공하고 있나。 서부 자본가들은 그들과 교섭을 수행할 준비를 표명하고 그들과 무역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유고슬라비야의 대외무역의 류통을 수배나 증가시킬만큼』 찌또、란코비츠、쥐라스 및 기타의 『사회주의』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는 최근 불란서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던바 이 협정에 의하면 매년 호상 상품교류는 一二〇억 프란에 이를 것이다。 뿐만아니라 총액 一、五〇억—二〇〇억 프란의 五개년 투자협정(投資協定)이 체결되였다。 一九四八년 十二월에는 또 영국—유고슬라비야의 무역 및 재정협정이 서명되였는바 이 협정에 의하여 량국간에 一、五〇〇만 폰드(英磅)의 상품교류가 있어야 되며 유고슬라비야는 동시에 국유화된 영국인 자본가들의 재산에 대하여 四五〇만 폰드를 지불하는 것이다。 트리소니야와의 협정이 체결되였는바、유고슬라비야는 一년동안에 트리소니야로부터 一、九〇〇만 딸라의 상품을 받고 자신은 一、五八〇만 딸라의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곡물과 함께 주로 황철광(黃鐵鑛)、동(銅)、안치모니、 철반토(鐵礬土) 롱고토광(菱苦土鑛) 즉 투르지방의 중공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원료가 공급되는 것이다。 一九四八년도에 있어서 서부독일로부터 유고슬라비야에로의 상품수입고는 백만딸라였다면 유고슬라비야의 수출고는 겨우 六천딸라였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고슬라비야는 이태리와 방대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신문 『뉴—욕•헤랄드•트리뷰ㄴ』은 三월말에 미국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야에로의 수출허가는 증대되고 있다는것을 지적한 보도를 발표하였었다。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자들은 동시에 미국에 동(銅)을 팔고 있다。 피티프•브리타—한 상회만도 동 및 석을 포함하여 총액 一、五〇〇만딸라의 금속을 수입하겠다는 것을 신청하였다。 최근에 있어서 차관에 관하여 유고슬라비야는 二、〇〇〇만딸라의 차관에 관하여 수출입은행(輸出入銀行)과 교섭을 하고 있고 또 二억五천만딸라의 차관에 관하여 부흥 및 발전문제 취급은행과 교섭을 하고 있는바 (뉴—욕•헤랄드•트리뷰ㄴ지에 의함) 이에 있어 벌써 미국측으로부터는 찌또도배의 요구를 지지할 준비가 표명되였었다。 미국의 부흥 및 발전 문제 취급은행 위원회 지도자 호라는 언명하기를 국제은행은 대체로 공산주의 국가에 차관을 주지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一九四七년에는 파란이 그리고 一九四八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야가 차관을 거부당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 은행은 유고슬라비야의 약간의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이 은행은 유고슬라비야 정부가 그에게서 받는 돈의 사용에 대하여 감독할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자본주의 동료들에 대한 사의(謝意)로써 유고슬라비야에서 국유화된 영국、미국、서서、백이의 및 서전 자본가들에게 속하였던 기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그들에게 지불할 책임을 졌고 총액이 기의 二〇억디나—르(유고슬라비야화폐단위)나 되는 전전 부채를 미국에 지불할 책임을 접수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찌또도배가 유고슬라비야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나。 찌또도배는 더욱 더 자기들의 경제의 중점을 자본주의 제국에 두고 더욱 더 그들에게 예속되며 더욱 깊이 유고슬라비야를 제국주의자들의 지배하에 끌어넣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정반대의 발전이 보이는 것이다。 쏘베트동맹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고는 상시적으로 장성하고 있나。 우리들은 오직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조하에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할수 있나는 것을 알고 있나。 쏘베트동맹의 방조가 없다면 우리들은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쏘베트동맹과의 경제관계가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있을수 없는 새로운 형(型)의 관계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바이나。 쏘베트동맹은 평등권원칙에 의거하여 우리들에게 사심없는 관대한 방조를 주고 있나。 이에 대한 증기는 쏘베트동맹이 이미 우리들에게 준 방조이다。 체코슬로바키야가 흉작이었을때 쏘베트동맹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굶주렸거나 또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투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쏘베트동맹은 자본주의 서방이 우리들에게 공급할 것을 기부하고 있는 귀중한 원료 및 기계들을 공급하고 더욱 자주 서방이 우리들에게서 구매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공업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방조를 주었고 또 주고 있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은 사심없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차별 대우적 조건이 없는 금(金) 차관을 주었던 것이다。 바로 쏘베트동맹 측으로부터의 이러한 방조에 의하여 체코슬로바키야의 경제는 자본주의 서방에 대한 예속성을 면할 수 있었고 자기의 상시적인 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유고슬라비야의 실례로서 쏘베트동맹의 믿을만한 원조를 상실한 국가가 견잡을 수 없이 제국주의의 지배하로 전락된다는 것을 누구나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이

다. 악독하고 흉악한 사회주의의 원수들이 인민들을 기만하고 또 인민들을 배반할 가능성을 얻기 위하여 사회주의자들로 가장하는 그러한 사실은 조금도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이다. 사실 히틀러와 히므러—도 역시 그들이 사회주의자이라고 주장하였고 자기들의 팟쇼정당을 사회주의적인 당이라고 불렀다. 찌또와 란꼬비츠는 히틀러와 히므러—와 같은 사회주의자인 것이다. 진정하고도 진보적인 사람마다 다음과 같이 묻는다. 유고슬라비야에서 쏘베트동맹과 국제 사회주의 전선에 대한 모든 지지자들이 자본주의국가에서 보다 더 가혹하게 처참한 박해를 받고 있음은 어찌된 셈인가? 유고슬라비야에서의 쏘베트공민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더한 비렬한 박해와 검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하여 있을 수 있는가? 유고슬라비야의 지배층이 가장 반동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들보다 더욱 더한 증오감을 가지고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와 가장 주요한 이 진보의 성색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하여 있을 수 있는가? 유고슬라비야 지배층의 대표들이 영웅적인 희랍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왕당—파시스트들의 투쟁을 방조하고 그들 자신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웅적인 희랍민주주의자들에 대하여 유고슬라비야국경을 닫고 이 국경을 걸쳐서 희랍왕당—파시스트도배를 민주주의 희랍 령토내에로 롱과시키고 있고 희랍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토이기의 실례와 꼭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실은 어찌하여 있을수 있는가? 이 모든 일은 제 공산당 및 제 로동당 보도국 결의가 예견한 바와 같이 그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전선에 배반한 이후에 유고슬라비야가 부르죠아 공화국으로 또 제국주의 국가의 예속국으로 전화된 결과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 문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잔재나마 남아있고 혁명서 로동운동이 가장 적은 합법적 가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르죠아 공화국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이 아니다. 유고슬라비야 민족주의자들은 흉악한 부르죠아 반동분자들이며 미제국주의의 반쏘적 침략적 정책을 수행하는 종복들이다. 오늘날 그들의 반역행위의 중앙은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야 파시스트들의 피의 테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고슬라비야 인민과 그의 로동계급은 찌또—란꼬비츠의 팟쇼적—게스타포적 정체를 소탕하고 로동계급의 국제적 력량에 의거하여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서기 위하여 충분한 힘을 자체내에 발견하고 있나?

찌또도배는 인민민주 희랍의 배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희랍공산당 총비서 니코·파하리아지스

희랍주민은 누구나 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전면적이고 로골적인 원조가 없이는 왕당파시즘이 몇달도 견딜수 없다는 것을 잘들 알고 있다. 우리의 근본적 곤난은 영 미제국주의가 희랍에 남아 있으려고 집요하게 애쓰고

있는 때문인 것이다.

이 나라는 영 미제국주의를 위하여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진지인바 영 미제국주의는 이 나라를 인민 민주주의국가들과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중요한 교두보(橋頭堡)로 전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례컨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처칠의 옛 계획들로써 아주 유명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도에 있어서의 그라므스비치 지방에서의 왕당파시스트들의 군사적 패배와 그의 전략적 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一九四八년도에 희랍에서의 외국 제국주의의 진지는 파탄되였다.

인민혁명운동과 민주군은 페로포네쓰군두멜리, 젯싸리야 및 사모스도(島)와 애브베야도(島)에서 자기들의 진지를 확충하고 강화하였다.

왕당—팟쇼정체는 위기일발의 정세에 처하여 있었다. 파파고스, 벤드리스, 짜카로트스 및 기타 장관(將官)들은 자기들의 보고에서 군대의 사상이 동요되였고 수백만명의 병사와 장교들이 총살되였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파벌왕 자신이 군대내의 사상적 위기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테네 도배의 경제상태는 곤난하였고 정치적 위기는 외국과 국내에서의 왕당파시스트의 기반을 더욱 더 파괴하였다. 결코 우리들의 벗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자들도 반동분자들을 위한 유일한 출구는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협정의 체결이라는 것을 리해하게 되었다.

찌또도배의 반역행위는 마침 왕당—파시즘의 위기가 정점(頂点)에 달했을 때 폭로되었다. 찌또의 반역행위는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곤난을 조성하였다. 왜냐 하면 바로 찌또도배를 완전히 리용함으로써 빨칸에서의 자기들의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희랍을 고수하겠다는 영 미제국주의자들의 결심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국주의 진영에도의 찌또도배의 이행은 눌리었던 왕당—파시즘의 의기(意氣)를 제고시켰던 것이다.

첫 점령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인민민주주의 운동에는 찌또도배와 같이 그렇게 간악하고도 비렬한 원쑤는 없었던 것이다.

찌또도배의 대세르비아 배타주의는 벌써 一九四三년도 희랍에서의 반항운동에 대하여서도 나타났었던 것이다. 이때 유고슬라비야공산당의 지도부는 유고슬라비야의 범위내에서만 에—게 마케도니야 인민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모든 마케도니야의 애국주의자들의 기본적 책무는 희랍공산당과 희랍민주군을 반대하는 투쟁이며 찌또앞잡이들과의 협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때부터 에—게 마케도니야에서의 찌또의 대리인 템포(부크만노비츠)는 바로 그러한 지명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령은 그들의 주요한 앞잡이인 고체가 실현하였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고체 케라미쥐에브 도배가 실시하고 있다.

이 동안에 희랍공산당과 희랍민주군의 대렬속에는 찌또도배인 수천명의 그 앞잡이가 들어왔던 것이다. 이들의 과업은 희랍공산당을 파괴하고 인민민주주의 운동의 통일을 분렬시키는 일이였다.

우리들은 희랍의 반동과 영 미제국주의자들이 찌또도배보다 더 훌륭한 동맹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여기에 아주 특징적인 상세한 사건들인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一九四四년 十월에 영국인들이 희랍에

상륙하였을때 희랍공산당을 반대하는 선동적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던 쩸포는 에—게 마케도니야공산당원들에게 언명하기를 자기가 사르니까를 점령할 목적하에 二개 사단을 찌또에게 청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 十二월전의 사건이였다。영국인들은 자기들이 희랍에 머물러있다고는 확신하지 않았고 사르니까가 찌또에게 의하여 점령되고 희랍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것을 더 낫다고 생각하고 호루피스트의 비행장에 무기를 무하하였는바 이 무기는 희랍인을 반대하여 리용하도록 이곳으로부터 쩸포、고체 및 피오스와 같은 바프쑤리에 있었던 찌또 앞잡이들에게 다시 수송되였던 것이다。

벌써 히틀러 점령시기에 있어서 고체와 피오스는 마케도니야인들로써 부대를 조직하였고 쩸포와 협력하였던 것이다。그후에 마케도니야 주재 영국 군사사절단의 전 대표자인 영국인 티•완스가 이러한 부대망(部隊網)의 확충을 특히 주장하였던바 고체、피오스 및 께라미쥐에브는 이러한 부대의 도움을 받고 희랍에서의 인민 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분렬행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실한 자실로써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一九四四년 十二월에 인민민주주의 희랍으로부터 사르니까를 떨어뜨리려고 꿈꾸고 있었던 찌또는 영국인을 반대하는 우리들의 투쟁을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을 다하였으나 아무일도 하지않았던 것이다。그는 첫째로 에—게 마케도니야 주민들사이에 희랍공산당을 반대하는 비방운동을 강화하였을 뿐이였다。찌또는 마케도니야자탐들의 유고슬라비야에로의 대중적 이민(移民)을 실시하였다。

이러하여 찌또는 일방으로는 에—게 마케도니야로부터 마케도니야주민들을 빼앗았던바 벌써 오랫동안이나 에—게 마케도니야의 성원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희랍 왕당—파시스트들은 이를 위하여 애를 썼던것이다。

찌또도배는 타방으로는 이러한 피난민들속에서 간첩들을 징모하려고 시도하고 이러한 간첩들에게 예비적교육을 준후에 희랍공산당과 희랍민주군과 우리들의 인민해방운동을 반대하여 행동할 목적밑에 희랍에 파견하는 것이다。

희랍공산당과 희랍에서의 혁명운동은 적어도 一九四三년부터 일방으로는 외국 제국주의자 및 왕당—파시스트들과、타방으로는 에—게 마케도니야에 수백명의 유고슬라비야 정탐들에게 둘러 싸여있었고 또 고체—께라미쥐에브도당과 같은 자기 집행기관을 가지고있는 찌또도배의 두 전화(戰火)속에 끼어있는 것이다。

一九四四년도에 고체는 스코플레로부터의 명령에 의하여 행동하면서 자기 부대와 함께 유고슬라비야로 넘어갔던 것이다。현재 고체와 께라미쥐에브의 기대(期待)는 스코플레에 있는것이다。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일찌기 구체적이고 확실한 문서에 의하여 이 앞잡이들의 반혁명적 행동을 폭로하고 그들의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고슬라비야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몇번이나 호소하였던 것이다。유고슬라비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 선동적 활동을 청산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一九四七년에 사르니까에서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얀니스•제브고스를 살해하였던 호리스로스•불라호스가 유고슬라비야 정보부의 앞잡이 였고 스코플레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확실히 증명되였다。그는 유고슬라비야 정보부의 명령에 의하여 사르니까에 왔었고 정보부의 앞잡이인 제트바스장군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제브고스의 살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인민의 형리를 포함한 五명의 왕당—팟쇼장교들은 란코비츠의 앞잡이들의 도움을 받아 포로 수용소로부터 도주하여 유고슬라비야에 피신하였다。유고슬라비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자기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언명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우리들은 왕당—팟쇼장교들이 국경을 넘는 장소와 년 월 일을 지적하였다。국경수비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이 왕당—파시스트들이 유고슬라비야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왔다。우리들은 수십명의 유고슬라비야정보부의 간첩들을 구속하였다。

一九四八년 十二월에 프레스파에서는 구나리스•메노시와 갈리오스•미트소스라는 두명의 유고슬라비야간첩이 구속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자기들을 파견한 유고슬라비야 정보부 장교들의 이름과 그들이 말은 구체적 과업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

희랍공산당은 희랍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한 찌또도배의 반역적이고 분활주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수많은 다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역적 유고슬라비야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도배들은 늘 희랍공산당과 희랍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쑤였다。최근의 제사건는 찌또도배가 희랍인민들을 반대하는 희랍 및 국제적 반동을 도와주었고 더욱 더 내놓고 도와주고 있다는데 대한 새로운 증거로 되고 있다。

一九四九년 七월 六일부의 민주군 총사령부 콤뮤니케에는 七월 五일 왕당—파시스트군대가 카이마크찰란 지방에서의 민주군부대를 뚫고 나아가기 위하여 유고슬라비야의 령토를 리용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였다。그날 자유 희랍통신사는 공적문건、즉 제三 특군 군단장 그리고로풀로스 장군에게 보낸 왕당—파시스트들의 五一六대대 대대장 께트르풀르스중좌의 보고에 의거하여 一九四九년 七월 四일 즉 그 전날밤 왕당—파시스트들이 포포볼르시와 카이마크찰란 지방에서 유고슬라비야령토를 리용하였을때 유고슬라비야장교들과 왕당—팟쇼 희랍장교들과의 회견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이 회견에는 영 미의 장교들도 참석하였다。

유고슬라비야통신사는 그러한 회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았다。영국 외무성 대표도 이 회견에 관하여 그에게 질문을 하였을때 이를 거부하지 않았었다。

찌또도 역시 一九四九년 七월 一〇일 포—라에서 한 자기연설에서 유고슬라비야통신사와 꼭같이 이 회견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으나 다만 왕당—파시스트에 의한 유고슬라비야 령토리용에 관한 협정체결의 사실을 거부하며고 시도하였다。

一九四九년 七월 二十一일 유•엔•발간 위원단이 희랍민주군 총사령부와、一九四九년 七월 六일부의 자유희랍 라디오에 의하여 폭로된 찌또도배와 왕당파시스트의 협조를 감추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한 콤뮤니케를 발표하였을때 벨그라드에서는 사태를 그렇게 속였던 것이다。

유•엔 발간 위원회의 이 콤뮤니케는 대단히 주목할만하다。왜냐하면 첫째 자기 력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위원회는 왕당—파시스트들이 몇번이나 카이마크찰란 지방에서 유고슬라비야국경을 월경 침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바 그러나 이에 있어 보병부대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포병 및 항공 대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둘째、콤뮤니케와 발간위원회가 카이마크촬탄지방에서 왕당—팟쇼장교들과 유고슬라비야장교들의 회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희랍인민들의 인민해방투쟁에 대한 찌또도배의 반역행위가 진보적 인류와 유고슬라비야인민들의 면전에서 폭로된 이후에 유고슬라비야지도자들은 찌또와 쮀라스 다음에 가는 또 한명의 선동가를 동원하였던 것이다。

카르델도 一九四九년 七월 二十四일에 유고슬라비야통신사에게한 희랍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카르델은 촬다리스와의 모든 협정、카이마크촬탄 지방에서의 교섭、왕당—파시스트에 의한 유고슬라비야령토의 리용을 부정하고 있고 벨그라드정부는 여전히 희랍인민들의 운동을 동정하고 있으나 힘으로써 그에게 자기의 방조를 줄 수 없으며 그에 대하여서는 찌또를 비방한 『보도국 앞잡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간악한 확언으로써 끝을 맺고있다。우리들은 유고슬라비야인민들의 동정에 대하여서는 어느때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죄있는 사람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서는 포—라시에서 찌또가 현재 필요한 달라를 미국인들로부터 받기 위하여 미리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있는 『타임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추악한 반역자들인—찌또、쮀라스、카르델 및 그 도당들은 자기들의 반역행위를 가장(假裝)하기 위하여 희랍 민주주의자들의 도덕적 정신이 저락되고있고 그들이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있다고、외치고 있다。

찌또도배는 희랍 민주주의자들의 도덕적 정신을 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있다。찌또의 반역행위와 희랍에서의 인민 민주주의운동을 반대하는 그의 장구한 파괴공작은 우리들을 위하여 커다란 곤난을 조성시키고 있다。찌또는 희랍의 인민 해방운동을 대단히 증오하고 그와 미친듯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동맹자인 왕당—파시스트들이나 또는 그들의 공동적 장전들은 우리들을 분쇄할 수 있다고 잘못 기대하였던 것이다。

전 희랍에 걸쳐 두멜리야、멧싸리야、메로포네쓰、애피르、마케도니야、프라키야 및 여러섬(島)에서 희랍의 민주군은 거대한 곤난을 극복하면서 확호한 용감성을、가지고 원수들과 계속 투쟁하고 있다。도시에서는 수만명의 로동자 및 사무원들을 포괄한 광범한 동맹파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왕당—파시스트들에 의하여 그곳으로 강제로 추방을 당하였던 도시에서 멸망하여 가고 있는 수만명의 농민들은 아테네정부를 마음껏 증오하고 있다。

희랍의 반동은 그들이 그로부터 출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및 정신적 위기를 체험하고 있다。

희랍 민주군은 그르모스와 비찌에서 준비되고 있는 대전투에서 왕당—파시듬과 정면으로 철저하게 대전하고 있다。

우리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확립과 희랍의 독립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싸우는 것이다。반동은 전쟁을 목표하고 있다。그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우리들을、짓밟아 없애려고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찌또도배를 리용하고있다。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포함한 진보적 인류의 원조와 단결로써 희랍인민들은 전쟁에서나 평화에서나 승리를 쟁취하고 인민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한다。

월남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프·사흐마고노브

十九세기 중엽에 월남은 안남인들이 거주하는 세개 지역들로서되는 독립국가였었다。인도지나의 기타의 두개의 지역인 라오스지역과 캄보쟈지역은 월남제국(帝國)에 예속되어 있었다。

불란서 식민지강탈자들은 인도지나를 강점한 첫해부터 월남을 분렬하는 로선을 취하였었다。통일된 국가인 월남은 그들에 의하여 세개의 식민지—똥찐 안남 및 꼬힌힌—으로 분활되었다。

그러나 불란서 식민지강탈자들의 여하한 노력도 자기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한 월남인민들의 투쟁을 중단시키지 못하였었다。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 그리고 제二차 세계대전에서의 파시스트침략자들에 대한 자유애호인민들의 승리는 식민지 및 예속국인민들의 투쟁에 더욱더 많은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물론 자기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월남인민들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았다。

일찌기 一九二七년에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식민지 및 예속국가의 평온한 착취와 예속의 시기는 지나갔다。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의 자유혁명의 시기가 닥쳐왔다』

쓰딸린동지의 이 명제는 월남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도 완전히 확증되는 것이다。월남은 월남인민의 자주독립을 위한 철저한 투사인 공산당을 선두로 하여 조직된 로동운동을 가지고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나왔던 것이다。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월남인민들을 결속시켰다。일제를 반대하는 반항운동가운데서 월남의 일체 진보적 정치조직들—공산당、사회당、민주당、국민당、신안남당、청년련맹、직업동맹—을 자기 대렬에 집결시키고 있는 월남련맹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한 운동이 장성되었고 강화되었다。

一九四五년 九월 二일에 월남은 월남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고 월남인민의 수령 호시민을 수반으로한 림시정부를 형성하였다。

월남인민의 뒤를 이어 불란서 식민지의 기타 지역들에서도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났다。즉 一九四七년에 마다가스가르에서 마리그인들은 불란서의 식민지적 억압을 반대하여 봉기하였었다。—불명 에크와돌 및 북부 아프리카의 역압당하는 민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불란서 식민지통치자들은 월남 민주의 공화국을 없이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으며 또 현재도 쓰고 있는 것이다。월남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자행동은 공화국이 수립된 후 二十일이 경과하여 시작되었다。

매년 불란서 반동층은 인도지나에 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만일 一九四七년에 있어、한달의 전쟁비용이 四억 프랑이었다면 一九四八년말에 있어 이

지출은 七억프랑에까지 이르렀다。一九四九년 六월에 불란서정부는 월남에서의 식민지전쟁의 계속을 위한 새로운 보충금액을 국회에 청원하였었다。

무서운 시련도 월남 민들의 용감성을 꺾지 못하였다。불란서―월남전쟁 제三년도의 말에 불란서 식민지통치자들은 군사행동을 시작하던 그때보다 더욱더 자기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난하게되었다。월남공화국정부는 전체령토의 九〇%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불란서군대는 단지 항구지역 즉 교힌힌 사이공 통킨의 남부 사인공항구지역 통킨―하노이의 해안선등만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월남에서의 군사작전에 관한 최근의 보도들은 모든 중요 전선들에서의 군사적 우월권은 월남군이 가지고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주고 있다。

월남의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一九四八년 六월 十九일부터 一九四九년 四월十五일까지에 월남군은 수十마일의 지역을 해방하였다。완전하지않은 계산에 의하면 이 기간에 불란서군은 二八、八三六명을 손실하였다。

독립을 위한 전쟁의 곤난한 조건가운데서 월남인민은 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였다。우선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분리되었던 월남의 세개 지방인 통킨 안남 및 교힌힌이 통합되었다。一九四六년 一월 八일에 인민의회선거가 진행되었다。인민의회는 호시민에게 정부조직을 위임하였다。인민의회선거에 뒤이어 새로운 헌법에 순응하여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지방 인민주권기관들에 의거하면서 호시민정부는 수다한 중요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시책들을 실시하였다。무엇보다도 먼저 토지문제가 인민의 요구대로 해결되었다。모든 경작지들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정부는 농기구의 개선과 관계공사를 위하여 거대한 금액을 지출하였다。一九四八년에 중요농업지구들에서는 쌀 수확이 전쟁전 수준에 달하였다。호시민정부는 공업생산의 확장에 다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불란서 식민지강탈자들은 단지 무력의 힘만으로는 월남공화국을 없이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정치적 책동들을 취하고 있다。그네들은 호시민정부 주위에 굳게 결속된 월남인민들의 통일을 분쇄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월남인민의 정치적통일을 반대하는 이 음모에 있어서의 동맹자로 불란서반동은 인도지나의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을 발견하였다。

정부정원으로부터 공산당원들을 제외한후 곧 불란서정부는 一九四六년에 체결되었던 호시민정부와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고 인도네시야반동의 두목인 안남왕 보·다이와 호시민정부에 대립되는 괴뢰정부를 수립할 데 관한 교섭을 시작하였었다。

이 괴뢰정부의 수반으로는 一九四八년 六월에 느규엔·크슈안이 임명되었다。그러나 이 정권은 불면목하게도 파산되었다。월남인민과 불란서근로자들은 불란서 식민지통치자들의 이 충복들을 반대하여 서로 함께 진출하였다。월남인민의 전국적인 통일은 동요되지않았다。그때 불란서반동은 낡아빠진 『영웅』보·다이를 도박에 내걸었다。一九四九년三월 八일 불란서―월남협정이 파리에서 또한번 체결되었다。

이번에는 보·다이와 체결하였던 것이다。이『협정』은 월남에 대한 불란서 식민지통치자들의 관계에 있어 아무런 새로운 것이 아니다。이『협정』은 월남을 지장(紙上)에 있어만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립』의 진가(眞價)에 관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협약』조문이 똑똑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불란서 식민지통치자들은 불란서동맹의 법규를 감추면서―이에 의하여 인도지나는 반드시 불란서동맹국으로 되어야 한다―사실에 있어서 인도지나를 과거의 무권리한 식민지상태로 전변시키고 있는 것이다。이『협정』에 의하여 불란서는 악명 높은 불란서동맹자연구소를 내세워 월남의 대내 및 대외정책을 관리할 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또한 불란서제국주의자들은 군사기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령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있는 것이다。불란서의 은행과 독점자본가들은 그들의 이전 재산 및 토지를 보상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에 기초하여 보·다이『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그러나 그에게는 느규엔·크슈안『정부』보다 더욱 적은 가망성이 있는 것이다。월남인민들은 보·다이의 이름을 외래침략자들과 그들의 신하(臣下)들에 의한 오랜 억압의 가장 암흑하던 그 시대를 회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

불란서 륙군참모장관 데베르장군의 최근월남려행은 불란서통치층은 무력으로써 자유애호인민들을 제재하려는 의사를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미국팽창주의자들은 월남에 있어서의 불란서군대의 새로운 작긴에 대하여 다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서부독일점령당국의 방조 밑에서 서부독일지대에서는 불란서 식민지군대에 전 히틀러병지들을 모집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미 지금 인도지나에서는 소위 『불란서군단』에 들어 있는 전 히틀러병사 무리들이 행동하고 있다。그런데 이 수는 비상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불란서 식민지무력에 전 파시스트분자들이 흡수된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간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불란서인민들이 자기의 모든 에네두기를 다하여 월남에서의 일체 식민지적 모험의 계속을 반대하여 항의하고 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불란서 근로자들의 무수한 대회들에서는 한줌밖에 안되는 식민지 강탈자들의 리윤을 보지하기 위한 월남에서의 류혈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불란서 들은 월남에서의 식민지적 모험의 계속은 오직 진보의 원수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란서 주재 월남대표단은(일상적으로 주재하는)불란서정부가 월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강탈정책과 내전도발정책에 관련하여 자기의 활동을 중지하였었다。월남인민들은 이 정책에 결코 굴복되지 않을 것이다。월남인민들은 자기의 자유를 위한 투쟁 즉 월남이 그에 들어 있는 전체 민주진영의 동정을 받는 투쟁을 용감하게 계속하고 있다。

一九四九년九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九월三十일 발행

「근로자」 제十八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二一五七六번
편집실三八〇一―五번

제ㄱ―14366

근로자
一九四七년八월二十일 제三종우편물인가제
一九四九년 제一八호
로동신문사